

특집호

한글 글자꼴

자랑스런 우리의 말과 글

활자체로 보는 한글꼴의 역사

한글 창제 이념을 계승한 새로운 한글디자인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탈네모를 한글꼴의 시도와 한글 글자꼴의 연구에 대한 몇 가지 제안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의 한글—국어정보학회의 할 일

산업디자인
INDUSTRIAL DESIGN

112



'91 서울國際包裝機資材展

SEOUL INTERNATIONAL PACKAGING EXHIBITION '91



SEOUL PACK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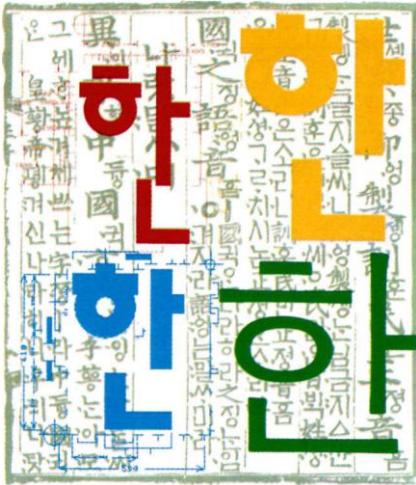
APR. 23 ~ 27, '91 KOEX-SEOUL

■ Organizer

KOREA TRADE PROMOTION CORP, KOREA DESIGN & PACKAGING CENTER

■ Supporter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KOREAN BROADCASTING SYSTEM,
KOREA ASSOCIATION OF MACHINERY INDUSTRY



산업디자인

INDUSTRIAL DESIGN

112

1990 VOL. 21

올해는 한글이 창제된 지 544주년이 되는 해이다.
누구나 우리의 한글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글자라는
데 자부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한글을 알고 다듬는
것을 계올리 해왔다.

또한 한글의 어문학적인 우수성을 뒷받침할만한
아름답고 가독성이 뛰어난 한글 글자꼴 개발에 등한시

해왔다.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는 한글이 영문자에 비해
아름답지 못한 글자라는 사고를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다. 그러나 이제는 한글 글자꼴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개발할 때가 되었다.

목 차 특 집

Contents

자랑스런 우리의 말과 글	이현복	6
<i>The Proud of Korean language, Hangul</i>		
활자체로 보는 한글꼴의 역사	김진평	12
<i>The History of the Hangul Lettering in view of Typography</i>		
한글 창제 이념을 계승한 새로운 한글디자인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석금호	28
<i>The study of the New Korean Letter Design Based on the Ideology in Creation of Hangul</i>		
탈네모를 한글꼴의 시도와 한글 글자꼴의 연구에 대한 몇 가지 제안	안상수	36
<i>The study of Detetragon Hangul Lettering</i>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의 한글—국어정보학회의 할 일	유경희	38
<i>Hangul in Information Society—Korean Language Information Science society's Duty</i>		
질의 응답		41
<i>Question and Answer</i>		
아름다운 한글 : 글자체 600년전		44
<i>Beautiful Hangul: Lettering 600 Years Exhibition</i>		
홍우(洪佑) 한글 신서체 전시회	편집실	48
<i>Hongwoo's New Hangul Lettering Exhibition</i>		
“한글 글자꼴 2500”	편집실	50
<i>“Hangul Lettering 2500”</i>		
“한글 글자꼴 표현 사례”	편집실	52
<i>“The Case study on Expression of Hangul Lettering”</i>		
‘90 우수디자인 상품선정제		56
<i>‘90 Good Design Products</i>		
제3회 한국우수포장대전		62
<i>The 3rd Korea Good-Packaging Exhibition</i>		
제7회 한국그래픽디자이너협회전		66
<i>The 7th Korea Graphic Designers' Association Exhibition</i>		
제3회 오리엔트 시계디자인 공모전		70
<i>The 3rd Orient Watch Design Competition</i>		
디자인 뉴스		73
디자인 동서남북		
Design News		
디자인 자료		78
국내외 디자인 정보 자료		
<i>The Latest Information on Industrial Design</i>		
기 타		80
내용색인		
<i>Index</i>		

격 월 간 : 「산업디자인」 통권 제112호 Vol. 21

발행감 편집인 : 조진희

발행·편집 **한국디자인포장센터**

발 행 일 : 1990년 10월 31일

본 사 :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간동 128-8 Tel.(744)0226~7

시범공장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제2공단 Tel.(856)6101~4

부산지사 : 부산직할시 북구 학장동 261-8 Tel.(92)8485~7

등록번호 : 마-599호

등록일자 : 1971년 1월 14일

인쇄·제본 : 정화인쇄(주) 김행술

출판위원

박한유·이태상

기 획

이돈규·김재홍

편 집

안재경

사 진

황선주

본지는 한국 도서 윤리위원회의 잡지 윤리 실천

강령을 준수한다.

제2기 시각디자인 교육 안내

우리 센터는 기업체 실무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시각디자인 전반에 대한 이론, 실무, 기법, 마케팅, 정보 등의 보수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실무와 연계하여 디자인 기획능력을 고취시키고 디자이너의 자질향상과 기업활동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디자이너를 양성하기 위하여 제6기시각디자인 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있으시기 바랍니다.

1. 교육실시 : 1990. 11. 19(월) - 11. 30(금)

(매일 13:30-17:30, 토·일 제외)

2. 장 소 :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영상자료실(별관3층)

3. 교육일정 : 별표 첨부

4. 수 강 료 : 170,000원

(할인 20% - 센터등록디자이너, 디자인·포장 정보이용회원(사),
1개업체에서 5명이상 신청시)

5. 수강신청기간 : 1990. 11. 16(금)까지.

6. 수강신청방법

가. 참가신청서와 참가료 동시 접수

나. 센터내방이 어려울시는 아래 은행계좌로 수강료를
온라인 입금시키고, 신청서와 입금증 사본을 센터로
우송, 또는 FAX로 신청
*한일은행 : 107-03-010079
*상업은행 : 112-01-212081
*국민은행 : 031-25-0000-533
*FAX : 745-5519

7. 문 의 처 : 서울 종로구 연건동 128(우) 110-460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진홍부 교육연수과

전화번호 : 742-2562/3

과정	일자	시간	시수	과목명 *강의내용	강사명 *소속
개론 영역 기법 응용	11.19 (월)	13:30- 14:20	1	개강 및 오리엔테이션	
		14:30- 15:20	1	산업사회에서의 시각디자인 박현우 KDPC상무이사	
		15:30- 17:20	2	시각디자인과 색채 시각디자인에 있어서 디자이너가 갖추어야 할 색채능력과 색채 계획에 필요한 색지정 방법 김학성 숙명여대 교수	
	11.20 (화)	13:30- 17:20	4	편집디자인 국내외 편집디자인의 약사 국내편집디자인의 현황과 그 과제 편집디자인의 기본요소들 사례연구·자유토론 정병익 핵사점 대표	
		13:30- 17:20	4	포장디자인 포장디자인의 역할(중요성, 필요성) 중소기업포장디자인 사례연구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 미래의 포장디자인(인간연구, Hard에서 Soft로, 국적없는 상품) 자유토론 오국영 KDPC주임연구원	
	11.21 (수)	13:30- 17:20	4	일러스트레이션 일러스트레이션에 관한 개론설명 일러스트적 사고 일러스트의 표현 자유토론 강우현 아시아문화교류 연구소 소장	
		13:30- 17:20	4	디자인 기획기법 김 면 울산대 시각디자인과 교수	
	11.22 (목)	13:30- 17:20	2	마케팅 조사의 이론과 실제 마케팅과 마케팅조사 마케팅 조사절차 자료수집방법 및 설문지작성방법 이학식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15:30- 17:20	2	마케팅 조사의 이론과 실제 마케팅과 마케팅조사 마케팅 조사절차 자료수집방법 및 설문지작성방법 이학식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디자인 기획	11.23 (금)	13:30- 15:20	2		

과정	일자	시간	시수	과목명 *강의내용	강사명 *소속
디자인 기획 (조사)	11.26 (월)	13:30- 15:20	2	디자인과 법률 디자이너가 알아두어야 할 법률 상식개론 (저작권법, 의장법, 부정경쟁 방지법) 기타관련법규 및 국제조약 최근의 시사적인 문제	김연수 국제특허 법률사무소
		15:30- 16:20	1*	세계일류브랜드 디자인 이미지	문수근 KDPC주임연구원
		16:30- 17:20	1	시각전달을 위한 픽토그램디자인	조선희 KDPC주임연구원
개론 영역 기법 응용	11.27 (화)	13:30- 17:20	4	광고디자인 자동차광고를 중심으로 한 광고계획 J-CAR(ELANTRA) 사례발표 광고의 현실과 문제점 자유토론	채광철 금강기획 광고1본부장
		13:30- 17:20	4	인쇄기법 및 향후 인쇄기술동향	윤형규 광명인쇄공사 전무
		13:30- 17:20	4	인테리어디자인 이론과 실제 판매장 디스플레이	이 철 신세계 신규사업 본부 점포개발 인테리어 과장
특 강	11.29 (목)	13:30- 17:20	3	전자출판시스템(DTP) 전자출판의 과정 디자이너들의 전자출판시스템 활용 컴퓨터의 발전과 향후추세	김민수 신명시스템 부사장
		13:30- 17:00	1	수료식 (90% 이상 출석하신 분에게는 수료증 수여)	

특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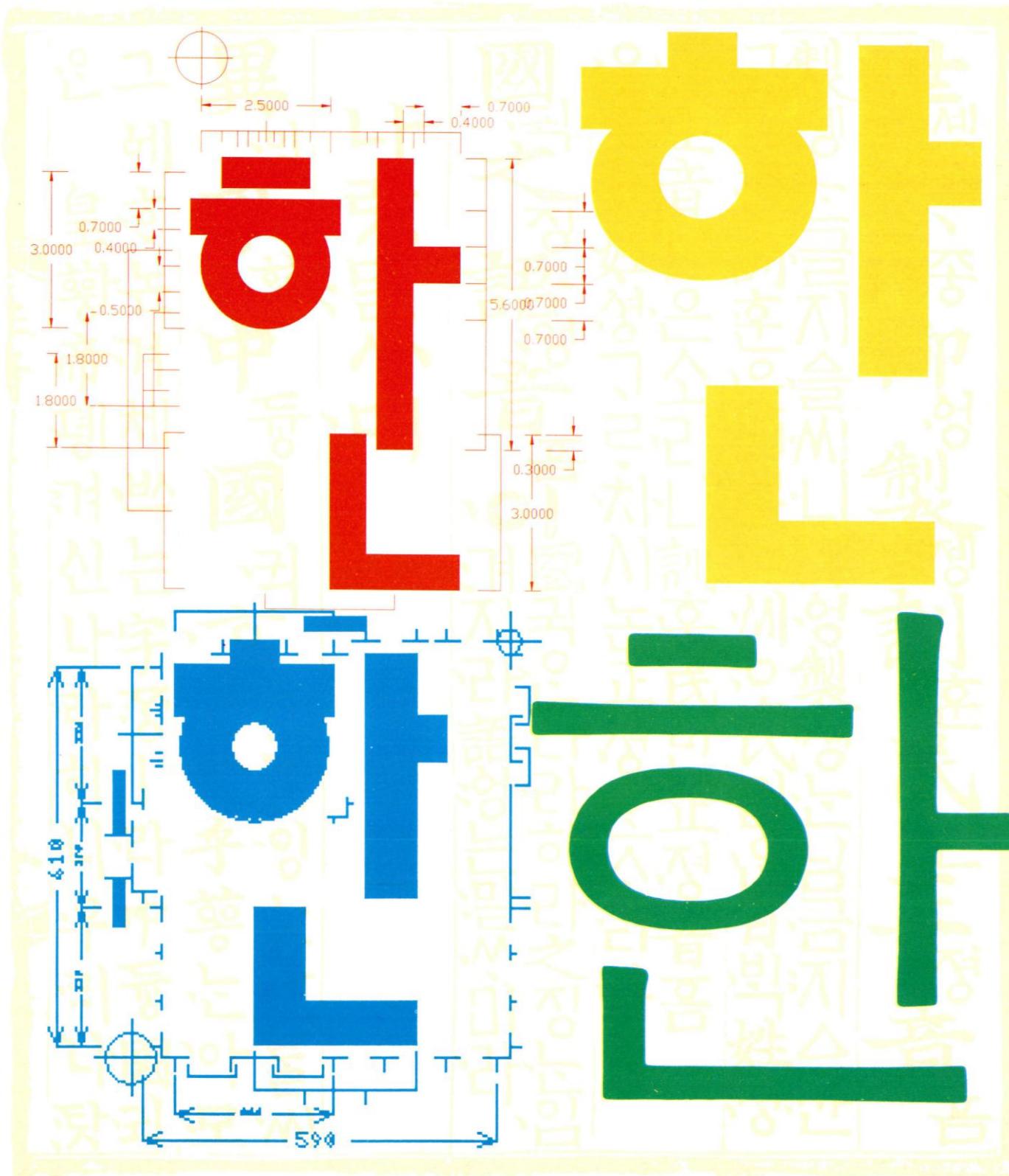
올해는 한글이 창제된 지 544주년이 되는 해이다. 누구나 우리의 한글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글자라는 데 자부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한글을 같고 다듬는 것을 계을리 해왔다. 또한 한글의 어문학적인 우수성을 뒷받침할만한 아름답고 가독성이 뛰어난 한글 글자꼴 개발에 등한시 해왔다.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는 한글이 영문자에 비해 아름답지 못한 글자라는 사고를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다. 그러나 이제는 한글

한글 글자꼴

글자꼴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개발할 때가 되었다.

본 지에서는 한글 글자꼴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발의욕을 고취하며, 직접적으로 한글꼴 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한국디자인포장센터가 주최한 「한글 글자꼴 세미나」 발표 내용과 문화부가 주최한 「아름다운 한글 : 글자체 600년전」, 「홍우 한글 신서체」와 「한글 글자꼴 2500」에 대한 내용, 한글 글자꼴 표현 사례 등으로 특집을 구성했다.



자랑스런 우리의 말과 글

이현복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교수

머리말

금년 10월 9일은 우리 민족의 글자인 한글, 즉 훈민정음이 반포된 지 544주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는 한글날을 맞을 때마다 한글의 우수성을 내세우며 우리의 글과 말을 되돌아 보게 된다. 그러나 금년 초부터 정부에서는 한글날을 공휴일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공휴일이 너무 많아서 생산성이 저하된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요 기념일을 공휴일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논리이다. 특히 한글날을 없앤다는 주장을 하면서 그 근거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글자를 기리는 기념일은 없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발상은 한글의 중요성, 우리 글자의 우수성을 너무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밝힐 수밖에 없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한글은 지극히 과학적이고 우수한 글자이며, 우리 민족에게는 독특한 의미를 지닌 글자이다. 또한 한글은 우수한 글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일제 침략시기에는 우리 민족의 얼과 정신을 북돋우며 독립운동에 굳건한 바탕이 되었던 것이다. 이 지구상에 글자 즉, 문자를 기리는 기념일을 정한 나라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무지한 소치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다른 나라에서는 문자를 기리는 날이 없다. 그러나 그 이유는 그들에게는 특정한 날을 기념일로 정하여 기념할만한 고유하고 독특하고 훌륭하고 자랑할만한 문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외국에서 문자를 기리는 날이 없기 때문에 우리 나라도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한다는 것은 너무도 사대적인 발상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유산이며 대대손손 물려주어야 할 중요한 문화재인 우리 한글을 계속 기리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한글날을 계속 공휴일로 유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금년의 한글날은 대단히 뜻이 있는 날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날을 기념하여 우리 말과 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점쳐 보는 기회로 삼기로 한다.

언어의 본질과 기능

우리의 말과 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일반적으로 언어의 본질과 기능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인간의 언어, 즉 사람이 쓰는 말은 의사소통의 수단이 된다. 즉, 나의 뜻을 남에게 전달하고 남의 생각을 내가 알아 듣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인간을 가르켜 만물의 영장이라 일컫는 것도 인간이 다른 동물이 지니지 못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언어를 가지고 있어서 일상생활의 간단한 표현뿐 아니라 고차원의 추상적인 사고도 할 수 있고, 높은 문명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언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실감하려면 말이 없는 사회를 상상하면 족하다. 사람은 아침에 잠자리에서 눈을 뜨는 순간부터 다시 잠자리에 들기까지 끊임없이 말을 하고 듣고 그리고 글자를 보고 쓰는 언어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인간의 생활이다. 그런데 만일 우리 주변에서 갑자기 말과

글이 없어진다면 어찌될까 상상해 보라. 우리는 다름 아닌 동물의 세계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표현의 도구가 없는 그러한 세계는 이미 조직과 체계가 있는 인간세계가 될 수 없음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가까운 예로써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에 갔을 때를 생각해 보아도 말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쉽게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언어란 정상적인 인간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문화유산임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살펴보면 말이란 단순한 의사표현의 도구에 끝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은 말을 통해서 사고, 즉 생각을 하고 있다. 언어를 떠나서는 명확한 사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언어와 사고는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다. 언어와 사고, 즉 말과 생각과의 긴밀한 관계는 옛부터 서양의 학자들도 느끼고 있었다. 언어학자 술레겔은 “언어란 인간 정신을 그대로 본떠 놓은 것”이라고 하였다. 또 철학자인 라이프니찌는 “언어는 인간 정신의 반영”이라고 하였으며, 헤겔은 “언어는 생각의 몸뚱이”라고 한 바 있다. 인간의 말과 사고의 관계가 이같이 밀접하고 또 사람이 언어를 통하여 생각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언어 자체가 인간의 사고력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올바른 언어의 구사는 명쾌한 사고력을 기르는 데 큰 구실을 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말은 인간의 인간성과 인격을 반영한다.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할지라도 사람에 따라서 어휘의 선택이나 발음, 억양 등이 다를 수가 있어서 어떤 이는 정밀하게, 어떤 이는

간략하게, 또 어떤 이는 아름답게, 그리고 어떤 이는 거칠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람마다의 교육이나 교양 그리고 성격에 따라서 말씨나 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각자의 인간성과 인격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언어는 위에 말한 바와 같이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일 뿐 아니라 사고 능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또한 사람의 인간성과 인격 그리고 교양마저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과 인격을 올바르고 깨끗하게 가꾸고 사고력을 기르며 원활한 언어생활을 해나가라면 무엇보다도 먼저 언어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깊게 하고, 언어를 바르고 정확하며 품위있게 쓰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말을 다듬고 가꾸는 언어순화, 국어정화운동을 하는 것도 바로 이같은 언어의 본질과 구실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이다.

우리 말의 기원

우리 말은 과연 어디서 출발하여 어떻게 왔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많은 사람이 하려고 하였지만 아직 아무도 한반도에서 한국어가 정확하게 언제부터 사용되었으며, 어떤 경로를 거쳐 왔는지 이를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다. 우리는 아직도 계속 연구가 되고 있는 한국어의 기원, 즉 우리말의 기원에 대한 역사비교 언어학적인 연구결과를 지켜보아야 한다. 특히 15세기 이전의 한국어의 실상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니고 있는 한자로 된 기록을 살펴볼 때 이미 한국인들은 서기전 1세기부터 4세기 까지의 기간 동안에 한자를 이용하여 자기의 뜻을 전하려는 노력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국어의 기원 그리고 한국어와 다른 언어 간의 친족관계에 관한 이론은 여러 가지가 난립해 온 것이 사실이다. 가령 독일학자인 에카르트교수는 한국어가 인도유럽어족에 속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고 할버트라는 학자는 드라비디아어족에 속한다는 설을 주장한 바도 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가장 끈질기게 내려오고 있는 한국어의 기원에 관한 이론은 알타이 계통론이라고 할 수 있다. 핀란드의 람스테드 교수가 내놓은 이 알타이설은

널리 알려져 있을 뿐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이를 추종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이 이론에 따르면 한국어는 통구스어, 만주어, 몽고어, 터키어와 함께 알타이어족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앞에 말한 여러 알타이계통 언어와 마찬가지로 한국말은 교착어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교착어라는 것은 어간이나 어근의 여러 가지 접사들이 일정한 순서에 따라서 첨가되는 특성을 말한다. 예를 들어서 “가시겠습니까”란 말은 바로 동사 하나로 된 문장인데 이 문장을 문법적으로 분해해 보면 제일 먼저 ‘가다’라는 어간이 있고, 이것의 어간은 ‘가’인데 ‘가’에 ‘시’란 음절이 붙어서 주어가 되는 사람에 대한 높임을 의미하게 되고, ‘겠’이라는 음절이 붙어서 미래 또는 추측의 의미를 더하게 되고, ‘읍니다’가 붙어서 말을 듣는 상대의 대한 높임을 나타내게 된다. 끝에 오는 ‘까’는 물음을 나타내는 접사라고 볼 수 있다. 만약에 ‘가시겠습니다’라고 했다면 끝의 ‘다’는 서술문, 물음이 아닌 풀이말의 어미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서 바로 ‘가시겠습니까’와 ‘가시겠습니다’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 이와 같이 어간에 한 음절 한 음절씩의 의미있는 접사들이 붙어서 하나의 완전한 말을 이루어 내게 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을 교착어적인 특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되는 경우로서 라틴말의 예를 들면 가령 ‘Amare’라는 원형에서 어간은 ‘Ama’인데 이것을 ‘Amo’로 하면 사랑한다는 뜻의 현재에서 ‘o’글자 하나로 ‘내가 사랑한다’는 뜻이 되므로 ‘o’ 하나에서 1인칭 단수 직설법 현재라는 여러 가지 문법적인 범주가 동시에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우리말에서 한 글자 한 음절이 하나의 고유한 뜻을 가지고 일정한 순서에 따라 첨가되는 현상과는 전혀 다른 특성인 것이다. 한국어는 교착어적인 특성을 지닌 대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의 기원에 대해서는 또 다른 견해도 있다. 가령 그린슨 같은 학자나 레빈 같은 학자는 한국어와 일본어를 묶어서 그들이 하나의 독자적인 어족을 형성하는 것으로 본다. 물론 한국어와 일본어는 전체적인 문법구조, 문장 구성방법에 있어서 상당히 유사성이

큰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도 이 두 언어의 친족관계가 확실히 밝혀졌다고 볼 수는 없다.

우리 말의 현재와 미래

한국어는 오늘날 거의 6천4백만의 한국인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이다. 그 중에 6천만은 한반도에 살고 있고 나머지 4백만 정도가 주로 중국, 일본, 소련, 미국 등지에서 살고 있다. 6천4백만이라는 한국어 사용자 수는 국제적으로 볼 때 그리 적은 숫자가 아니다. 세계지도를 펴놓고 보면 한반도를 찾기가 그리 쉽지 않을 정도로 국토는 적지만 한국어를 쓰는 한국인수는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이다. 언어 사용자수가 우리보다 많은 경우는 중국어, 소련어, 영국과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가 쓰는 영어 그리고 인도의 여러 언어, 스페인어, 일본어 등이 우리보다 많은 경우로 꼽을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는 그 사용자수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상당히 상위권에 속한 말이라고 할 수 있다.

88년 올림픽을 개최하고 우리의 경제발전이 널리 알려짐에 따라서 세계적으로 한국에 관한 관심은 계속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우리말에 관한 관심과 열기도 고조되고 있는 형편이다. 1990년 한해 동안 유럽과 미주를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한국학 강좌를 설치할 외국 대학은 21개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물론 88년도까지 한국학과를 설치하였거나 동아시아학과나 극동학과 안에서 한국학 강좌를 개설해 온 외국 대학의 수는 4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동안 한국학을 설치한 지가 수십년을 헤아리지만 그동안 큰 발전이 없었던 대학에서도 근래에 들어와서는 연구 시설과 교수진을 강화하고 확장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의 런던대학은 한국학의 역사가 거의 40년을 헤아리면서도 최근까지 겨우 1명의 부교수가 있었을 뿐이다. 그러다가 2년전인 1988년에 이르러 부교수가 4명으로 증원되었다. 커다란 발전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한국의 국력신장이 가져온 변화이다. 천대받던

한국학이 해외에서 인기 있는 분야로 발돋움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가 60년대에 스웨덴에서 한국학을 강의하고 70년대엔 일본에서 그리고 85년에 영국에서 한국학을 강의할 때만해도 한국학의 국제적인 위치는 크게 보잘 것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한국학이란 용어는 한국에 대한 모든 분야를 뜻한다. 언어, 문학, 역사, 민속같은 인문분야를 비롯하여 정치, 경제, 사회 등 사회과학 분야 등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학의 핵심은 다름 아닌 언어, 즉 한국어이다 언어는 모든 분야의 바탕이요.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학이 국제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는 것은 바로 한국어의 국제적인 위치가 높아진다는 것을 뜻한다. 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되어 세계 유수의 대학에 한국학과가 별도로 독립되고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의 수가 계속 늘어날 경우, 한국어는 다른 주요한 언어와 함께 국제적인 언어가 될 수 있으리라 본다. 물론 한국어가 장차 모든 민족이 사용하는 세계공통어가 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중요한 언어의 하나는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장차 세계로 뻗어 나가야 할 한국어는 현재 대단히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다. 남한 내의 한국어가 여러 면에서 혼란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남북한 간의 언어 차이 또한 심각한 상태에 있다. 그러므로 한국어가 국제적인 지위향상을 기하려면 먼저 한반도 안에서의 우리말의 표준화와 통일작업이 급선무라고 볼 수 있다.

한반도의 언어 현실과 문제점

8·15 해방과 함께 국토가 분단된 지 40여년, 그리 길지도 않은 세월이 흐른 동안 북한은 상당히 큰 언어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최근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소련과 체코의 한국학 학자들은 말로만 듣던 남북한의 언어 차이를 피부로 실감하였다 한다. 식당의 여자종업원을 그들은 '접대부'라고 불렀다가 아가씨의 얼굴색이 달라지자 당황하게 된 것이다. 북한에서 예사롭게 쓰던 '접대부'란 말이 한국에서는

여자종업원에게 함부로 써서는 안 될 정도로 좋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알 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북한말에 익숙한 이들 동유럽 학자들은 이러한 뜻의 차이를 모르고 예사롭게 이 말을 썼던 것이다. 물론 남한에서 흔히 쓰이는 '아가씨'라는 낱말 역시 북한에서는 함부로 쓸 수 없는 말이다. 북한에서 '아가씨'는 봉건사회의 잔재를 풍기는, 좋지 않은 의미를 전달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똑같은 낱말이 남한과 북한에서 각각 다른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자칫 커다란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이들 소련과 체코의 학자들은 서울에 머무르는 몇 주일 동안 이러한 남북의 언어 차이를 실감한 나머지 이런 말을 하고 떠났다. "남북한의 통일을 대비하여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바로 언어 이질화의 극복과 남북한 언어의 통일작업이다" 북한을 잘 알고 북한말에 익숙한 이들의 체험과 판단은 북한사회와 언어를 잘 모르는 우리 남쪽의 한국인들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한반도에서 쓰이는 한국말은 여러 면에서 대단히 혼란된 상태에 있다. 크게 보아서는 분단된 남과 북의 언어의 차이가 그러하고, 작게 보아서는 한국 안에서의 언어 역시 질서와 통일과 정돈을 외면하고 이탈과 문란으로 달리고 있어서 우리 겨레의 말과 글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 공산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한 도구로서의 언어의 가치를 일찍이 깨달은 북한에서는 용의주도하고 치밀한 언어정책을 펴 나갔다. 그 결과로 남한과 북한간에는 언어의 이질화가 심화된 것이다. 북한에서는 옛부터 우리나라의 표준말이던 서울지역의 말이 아닌 평양말에 함경도 사투리가 섞인 말을 이른바 문화어라 하여 이를 북한뿐 아니라 한반도의 표준어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 나름의 철자법을 만들고 사전을 편찬하며, 우리에게는 의미와 형태가 생소한 많은 낱말을 만들어서 쓰고 있는 것이다. 남북회담 당시에 남북대표가 만나서 회담하는 가운데에서 남북한 언어 차이가 심화되어 언어가 이같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계속 나간다면 먼훗날 통일이 되었을 때의 언어 상태가 어찌되며, 이에

따른 혼란이 얼마나 심각할 것인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8·15 광복 이후 이렇다 할 뚜렷한 정부 차원의 언어정책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서구 민주사회가 그러하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언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강압적인 정책은 없고 학술 사회단체 주도의 언어연구와 국어운동이 민주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왔을 뿐이다. 그러나 70년도 이후 문교부의 주관으로 표준말,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등 어문에 관한 네 가지 중요한 분야에 대한 재검토와 개정을 거쳐 확정·발표한 것은 우리의 혼란한 언어생활에 새로운 질서와 통일을 부여하려는 당국의 적극적인 자세라고 풀이되어 크게 환영할 일이다.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앞두고 우리는 한국의 언어를 먼저 통일하고 순화하며 표준화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남북의 언어대결에서 우리의 언어의 자세가 먼저 가다듬어지지 않고는 이미 그들 나름대로 정돈되고 통일된 북한과 효율적인 대결을 벌일 수가 없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남북의 언어 통일작업에서 우리는 그만큼 불리한 입장에 있게 된다고 전망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언어생활에서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것은 발음의 혼란, 글씨생활의 혼란, 무질서한 외래어의 수용으로 인한 어휘체계의 문란, 외래어의 한글표기 및 로마자 표기법의 혼란, 어법의 혼란 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지역방언의 진출 및 난립과 표준말·표준발음의 퇴조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 국민총화를 해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지역감정이 지역적인 방언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지역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표준말의 보급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표준말의 권위가 약화되고 표준말 교육도 제대로 안 되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의 언어에도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만일 표준말과 표준발음의 보급과 정착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서지 않는 한 언어의 혼란은 계속될 것이며, 지역감정

촉발제인 지역방언간의 대립도 지속되리라고 예상된다. 금년부터 국민학교에서는 말하기·듣기라는 국어과목이 별도로 독립되었다. 이 말하기·듣기 과목에서는 한 단원마다 한 페이지 반에 걸친 발음학습이 들어 있다. 그것은 올바른 말하기·듣기를 목표로 하여 정확한 우리 말의 표준발음을 국민학교에서부터 익히게 하려는 획기적인 조치인 것이다. 이러한 교육이 훈련된 교사의 지도밑에 이루어지는 한 앞으로 표준말과 표준발음의 교육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게 될 것으로 믿는다.

한글 창제의 의미

우리 나라에는 많은 문화재가 있다. 가령 서울의 남대문은 한국의 문화재 제1호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무형문화재인 우리 한글이야말로 남대문에 앞서는 문화재가 아닌가 한다. 매일 매일의 언어생활에서 한시도 빼놓을 수 없는 통신의 도구이고, 조상에서 현대 그리고 자손만대에까지 이어져서 언어생활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한글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영원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먼저 한글창제의 의미를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한글에 대한 사랑은 한없이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일은 한글은 민본사상의 결정이라는 점이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듯이 한글이 창제된 15세기는 봉건군주사회였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봉건군주하의 정치체제에서는 군주나 그 아래의 관료들이 주로 백성들의 고혈을 뺏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은 백성을 위하는 마음으로 한글창제에 온 힘을 기울였던 것이다. 특히 중국의 사상·철학·문화의 영향이 엄청났던 그 시절에 한자가 우리 백성의 언어생활에 알맞지 않으므로 우리 국어체계에 맞는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 내겠다는 발상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예상했던 대로 최만리 등은 한자를 제치고 새로운 글자를 만든다는 것은 큰 반역이라고 주장하며 임금에게 강력한 상소를 제기했던 일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대왕은 끝내 백성을 위한 마음으로 백성의 언어생활, 백성의 글자생활을 쉽고 간편하게 해 준다도 일념으로 끝까지 일을 성사시켜 훈민정음을 반포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주체적인 민본사상의 극치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 세상 어느 나라에서도 글자를 새로이 인공적으로 만든 나라는 그리 많지 않다. 더구나 일반학자도 아닌 왕의 주도하에 새로운 문자를 창제해 냈다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로써 찬양해야 할 위업인 것이다. 요즘 논의되고 있는 한글날의 공휴일 폐지문제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544년 전 세종대왕은

백성의 글자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한글을 창제하여 반포하셨는데, 현재를 사는 우리와 우리 당국은 그러한 깊은 뜻과 역사를 지닌 한글을 기리자는 한글날을 제외하자는 발상을 하고 있으니 대단히 대조적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

한글의 우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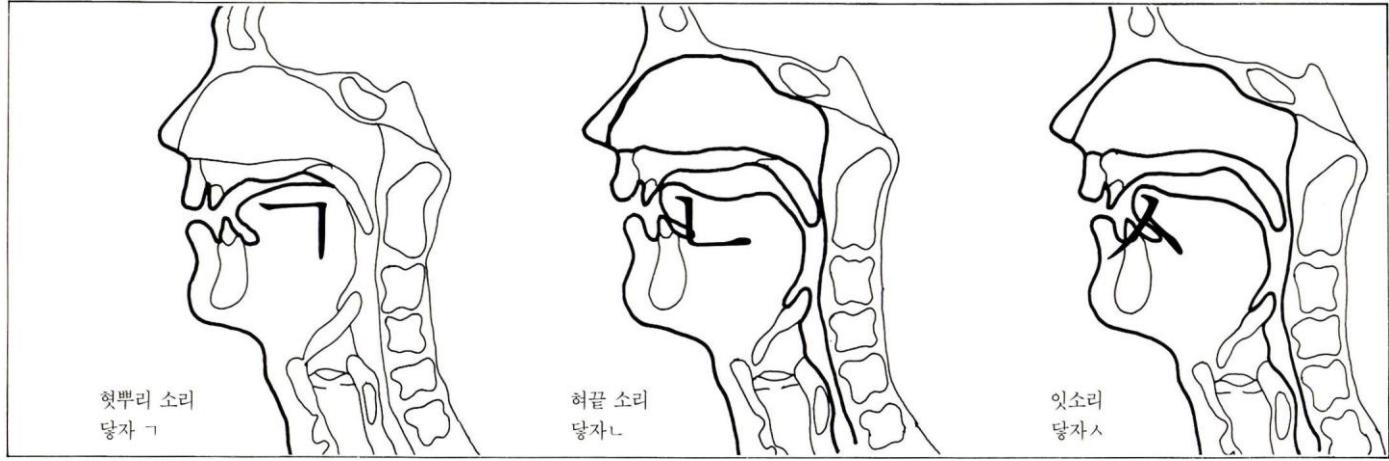
한글의 우수성이나 독창성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지만 이를 간추려서 설명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한글은 음성문자라는 점이다. 즉, 알파벳 문자인 것이다. 이는 한글자로 한 소리를 나타내는 문자를 뜻한다. 문자의 종류를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로 표음문자, 즉 한글과 같은 음성문자이고 여기에는 서양의 알파벳도 포함된다. 즉 하나의 글자로 하나의 소리를 나타내는 글자이다. 두번째 음절문자는 대표적인 예로 일본 가나글자인데 이는 글자 하나가 하나의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음절을 나타내는 것이다. 가령 '가'라는 글자는 실제 소리는 'K'와 '아'라는 모음으로 이루어졌지만 이를 합쳐서 하나의 글자로 나타낼 뿐 분석적으로 'K'와 '아'를 구별해 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글이나 서양의 문자, 유럽문자같은 표음문자, 즉 음성문자로는 'K'와 '아'를 갈라서 적을 수 있는 것이다. 세번째는 이른바 표의문자, 뜻글자이다. 즉, 하나의 개념, 하나의 뜻을 하나의 글자로 적어 내는

것이다. 가령 한자로 '山'은 그런 형태로 산이란 개념을 드러내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표의문자, 뜻글자는 실제 낱말의 구체적인 소리보다는 개념을 더 철저히 드러 내는 데 이용된다고 할 수 있다.

문자의 진화 과정을 보면 대체로 표의문자, 상형문자에서 음절문자로 이어지고 여기서 알파벳, 표음문자로 옮겨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한글은 알파벳 문자이고 표음문자이기 때문에 문자의 발전과정에서 볼 때에도 가장 발전된 단계의 문자라고 할 수 있다. 중국에 대한 모화사상, 중국 문화의 영향을 강렬하게 받고 있던 그 당시에 우리 말의 체계를 깨뚫어 보고 이에 맞는 음성문자, 즉 표음문자를 만들어 낸 세종대왕의 개인에 다시 한번 찬탄을 금할 수가 없다. 훈민정음의 또 하나의 우수한 독창성은 발음기관을 상형하여 만든 글자라는 점이다. 발음기관을 바탕으로 하여 글자의 형태를 유도해 냈다는 점 때문에 세계 어느 문자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과학성을 갖추고 있다. 한글에 대한 이해가 국제적으로 커짐에 따라 외국학자들의 한글에 대한 연구가 속속 진행되고 있지만 그들은 오늘날의 음성학,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도 대단히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며 정치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찬양하고 있다. 발음기관을 상형해서 만든 글자라는 근거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령 '가'를 발음할 때 X-레이를 찍어 보면 'ㄱ' 첫부분에서 입안의 혀모양이 'ㄱ'자와 같은 형상을 보여준다. 따라서 'ㄱ'이라는 글자는 어느 민족이 발음하든 똑같은 'ㄱ'자 모양이 입 안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뜻에서 한글이야말로 만국 공통의 국제문자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어느 민족 누가 발음해도 같은 혀 모양을 입 안에서 보여준다는 이 사실은 한글의 국제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또 한 가지 한글의 우수성은 한글 글자의 체계적인 유연성을 들 수 있다. 체계적인 유연성이란 한글 글자간에 드러나는 체계적인 상관성을 말한다. 한글은 하나 하나를 아무렇게나 만들어 모아 놓은 것이 아니다. 그 글자를 사이에 일정한 규칙이 적용됨을 알 수 있다. 가령 'ㄱ'자에 획 하나를 그으면



기본 달자꼴의 기원

'ㅋ'이 되고, 'ㄱ'은 겹치면 'ㆁ'이 된다. 'ㄱ', 'ㅋ', 'ㆁ'은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발음이 되지만 음성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글자의 묶음이다. 따라서 이 세 글자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글자는 'ㄱ'인 것을 알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체계적인 유연성·상관성은 한글을 체계 있는 글자, 즉 'ㄱ'을 알면 손쉽게 'ㅋ'과 'ㆁ'을 유도해 낼 수 있는 체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런 체계성 때문에 한글을 배우기 쉬운 글자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분명 부정할 수 없는 장점이 들어 있는 것이다. 가령 영어에서 'K'와 'G'는 같은 위치에서 발음되는 소리를 나타낸다. 즉 'ㄱ', 'ㅋ'는 같은 위치에서 발음되는 글자이지만 구체적인 음성 차이가 추가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것을 마치 한글의 'ㄱ'과 'ㅋ'의 차이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로마자의 'G' 와 'K'는 시각적으로 볼 때 아무런 공통성이 없다. 따라서 'K'와 'G'는 별도의 글자로서 독립적으로 익힐 수밖에 없다. 이것은 한글의 'ㄱ'과 'ㅋ'에 대비해 보면 전혀 다른 양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체계성은 'ㄱ'뿐 아니라 'ㅂ·ㅍ·ㅃ', 'ㄷ·ㅌ·ㄸ', 'ㅈ·ㅊ·ㅉ' 등에도 적용이 되며 'ㅅ'과 'ㅆ'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24자의 글자라고 하지만 체계적 유연성의 관점에서 보면 몇 가지의 묶음으로 한글 글자는 나눌 수 있고 그 각 묶음 안에 일관성 있는 공통 요소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한글학습을 쉽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한글 모아쓰기는 세종대왕의 일대 실책이다

지금까지 한글의 우수성과 장점에 대해서만 설명을 했지만 이제 한 가지 한글이 지닌 약점을 지적하면 한글은 글자 자체의 형성이나 활용에 있어서 흡합을 때 없는 글자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 한글이 지닌 문제점이 있다면 모아쓰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개개 한글 하나 하나의 글자는 대단히 우수하지만 이를 모아서 네모 안에 모아쓴다는 활용이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 즉, 초성·중성·종성을 한 데 묶어 하나의 글자로 쓰는 한글의 구조는 현대 컴퓨터 시대에 맞지 않는 방법이다. 한글은 말하자면 서양의 알파벳과 같이 자음·모음을 하나 하나의 글자로 별도로 적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절별로 글자별로 초성·중성·종성을 한 데 묶어 모아쓰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세종대왕께서 중국 글자가 우리 말을 적는 데 맞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글자 훈민정음을 만들어 낸다고 하셨지만 결국 중국 한자의 글자모양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고 여러 획을 한 데 모아 쓰는 그런 한자의 운용습성을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즉, '학교'라는 말을 적을 때 초성의 'ㅎ', 중성의 'ㅏ' 종성의 'ㄱ' 그리고 초성의 'ㄱ', 중성의 'ㅗ'를 풀어 쓰면 한줄로 되어서 '하-ㄱ-교'로 쓰면 될 것을 음절별로 '학교' 두 글자로 모아쓰는 방법은 대단히 불편한 점이 많다. 우리는 일상 익숙해 잘 모르지만, 컴퓨터 전산화, 기계화시에 모아쓰기는 대단히

비능률적이다. 가령 '학술'이라는 낱말을 오늘날 우리는 '학'과 '술' 두 글자로 적고 있다. 이것은 초성·중성·종성을 모아 한 글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생긴 결과이다. 그러나 이를 풀어서 쓰면 '하-ㄱ-ㅅ-奴'한 줄로 쓸 수 있게 된다. 풀어쓰기나 모아쓰기의 차이는 무엇일까? 잘 생각해보면 풀어쓰기는 엄청난 장점을 지니고 있다. 글자는 기계화·컴퓨터화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모아쓰기에 비해 풀어쓰기는 대단히 능률적이고 빠르다. 우선 글자의 수에 있어서 모아쓰기를 하면 음절 하나를 별개의 글자로 만들어 내야 하고, 인쇄소에서는 별개의 납글자로 제작은 해놓아야 한다. 가령 '하'라는 글자가 있다면 다시 이것 외에 '학·한·활·함·항' 등 모든 글자를 독립적으로 만들어 내야 하며 이어서 '허·현·혁...' '호·혹...' 등 모든 글자를 낱낱이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풀어쓰는 경우는 이러한 글자 하나하나를 만들 필요가 없이 한글 24자를 활용하면 축한 것이다. 책을 인쇄 출판할 때 모아쓰기로 하려면 최소한 3천자의 별도의 글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풀어쓰기를 하는 경우는 24자와 거기에 필요한 몇 글자를 더한다 해도 3십자면 충분하다. 3천자와 3십자의 차이 이것은 엄청난 능률의 차이를 뜻한다. 풀어쓰기를 하면 인쇄문명이 발전되고 글자의 기계화·전산화 특히 타자기 자판 문제로 상당히 간소화되고 능률적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 모아쓰기는 여러 획을 한 글자 안에 모아써야 하기 때문에 판독시의 오류를 낳을 확률도 높다.

예를 들어 '공'자를 풀어쓰기로 바꾸면 '**ㄱ ㄴ ㅇ**'로 적으므로 판독하기 쉽지만, 이것을 모아쓰기로 '공'하면 속의 작은 획이 잘 보이지 않아 '공인지' '궁'인지 잘 알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해 반포하실 때는 타자기도 컴퓨터도 글자의 기계화도 생각할 필요가 없는 때였다. 봇으로 글씨를 쓰면 죽한 때였기 때문에 그 모양이 어떻든 모아쓰기를 하든 풀어쓰기를 하든 별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 아니 모아쓰기가 훨씬 유리했을 것이다. 그러나 컴퓨터 시대인 현대에는 풀어쓰기가 훨씬 유리한 글자생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오늘의 관점에서 볼 때 500년 전의 세종대왕은 훌륭한 발상, 훌륭한 글자를 독창적으로 만들어 내셨지만 운영의 면에서 모아쓰기를 채택한 결과 대단히 불합리한 면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글자 생활이 가야할 길

나는 우리 글자 생활의 발전과정을 세단계로 본다. 첫단계가 한글과 한자를 전용하여 세로쓰기 종서를 하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수백년 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해오던 이것은 우리의 글자생활의 면모였다. 그리고 세로쓰기는 얼마전까지도 지켜오던 방법으로 신문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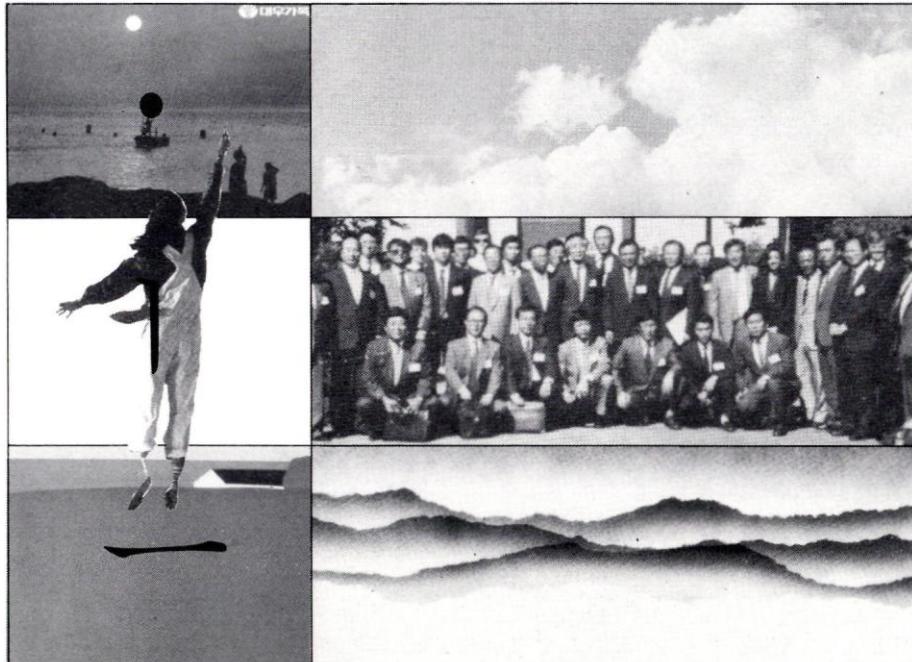
두번째 단계는 한글전용이 보편화되면서 가로쓰기가 굳어진 시기이다. 근래 들어서서 많은 신문잡지들이 앞을 다투어 가로쓰기, 신문가로짜기를 하고 있고 또한 한자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신문에 따라서는 완전히 한글전용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만족하지 말고 세번째 단계로 하루속히 들어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번째 단계는 한글만으로 가로쓰기를 하면서 동시에 풀어쓰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풀어쓰기는 첫눈에 거부감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아무리 인쇄문화에 혁명을 가져올 능률적인 방법이라 할지라도 이미 모아쓰기에 익숙한 독자들에게는 생소한 느낌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것은 훈련의 문제요, 습관의 문제라고 본다. 어린 세대부터 점진적으로 훈련을 시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줄로 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한글만을 가로로 쓰고 풀어쓰기를 하는 단계로 나가는 경우에 우리는 글자의 모양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야 한다. 그래서 보기 좋고 아름답고 능률적인 글자 생활에 알맞은 우수한 글자체를 여러 가지 개발할 필요가 있다. 글자꼴의 개발은 바로 3단계의 문자생활, 즉 한글만을 가로로 쓰며 풀어쓰는 이상적인 단계를 더욱

앞당기는 데 큰 공헌을 하리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끝으로 글자에 관한 연구와 개발에 못지 않게 우리는 국제화 시대를 맞아서 음성언어 차원에서도 바른말·옳은말·쉬운말·표준말을 표준발음으로 교육하고 보급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국내의 국어교육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고 지금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우리말 교육, 우리 글자의 교육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문제이다. 가령 지금까지 소련과 관계가 깊었던 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헝가리·유고슬로비아 그리고 중국 등지의 공산사회주의국가에서는 주로 북한의 언어, 평양 중심의 문화어를 익혀 쓰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표준말은 과거부터 서울 경기 중심의 말로 되어 있고, 서울 경기 중심의 발음을 어휘를 우리는 아직도 한반도의 표준말로 알고 있다. 민주화에 들어선 동구 여러 나라들은 이제는 서울의 표준말, 표준 어휘, 표준 발음을 목표로 삼고 학습을 하기 시작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에 대비하여 우리 말과 글을 더욱 더 알고 다듬어서 이들 외국인들이 학습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표준화된 우리 말과 우리 글의 모습을 하루바삐 정립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라고 본다. ■

기본 훌자꼴의 기원



한사람이 지킨 질서, 모아지면 나라질서

활자체로 보는 한글꼴의 역사

김진평 서울여대 산업디자인과 교수

① 서언

금속활자에 의한 인쇄 기술은 세계에서 우리 나라가 가장 먼저 발명하였다. 고려시대에 창안되어 조선조에 더욱 발전하였는데 우리 글자인 한글도 이러한 활자 기술에 바탕을 두고 창제되어 세종 28년(1446)에 반포되었다.

다른 나라의 글자들은 오랜 동안 손글씨에 의해 글자꼴이 다듬어지는 과정에 활자기술이 도입되어 활자체가 만들어졌다. 따라서 활자체는 손글씨로 다듬어진 글자꼴을 따르게 되었다. 그러나 한글꼴의 역사는 이와는 전혀 다른 과정을 거쳤다.

한글은 글자 체계의 모든 원리가 먼저 연구되고 완성되어 단번에 발표된 글자이며 이를 반포하기 위해 당시의 발달된 인쇄술이 이용되었다. 따라서 한글은 인쇄된 글자가 손글씨보다 먼저 만들어지게 된 독특한 출발을 한 글자이다.

한글 창제 초기의 인쇄된 글자꼴은 글자 원리에 충실할 뿐더러 글자줄기의 성격과 담소리 및 홀소리 글자 모양이 붓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단순하고 기하학적인 동그라미, 세모, 네모로 짜여져 있는 점이 크게 두드러진다. 이런 성격은 1800년대 말에 비로소 나타나는 영문 산세리프(Sans Serif) 활자체의 현대적 감각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한글 글자꼴 출발의 또 하나의 독특한 성격이라 할 수 있다.

한글꼴 540여 년의 역사는 원리적이고 단순 기하학적인 글자꼴이 조선조 필기도구인 붓에 의한 자연스러운 손글씨체로 정착되어 온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정착과정에서 가장 빠른 변화를

보인 것은 손글씨체이며, 다음으로는 목판인쇄 글자체이고, 마지막으로 나라에서 주조한 활자체가 가장 더딘 변화를 보인다. 이는 선대의 전통을 지키려 한 중앙관서의 보수적인 관료 성격의 결과로 볼 수 있다.

활자체로 본 한글꼴 역사는 먼저 크게 3시대로 나누어질 수 있다. 즉, 우리의 전통 구조(놋, 무쇠)활자와 나무활자를 사용하던 옛활자 시대(1443-1863, 훈민정음이 창제된 해에서 철종 말년까지)와 근대식 활판술과 납활자를 도입하여 사용했던 새활자 시대(1864-1949, 근대를 맞는 고종 원년에서 6. 25동란 직전까지), 그리고 원도 설계에 의해 조각활자와 사진식자 및 전산활자를 제작하여 사용하는 원도활자 시대(1950-현재, 6. 25동란에서 오늘날까지)이다.

○ 옛활자 시대는 손글씨체가 변화하여 한글 붓글씨체가 정립되면서 그 영향으로 한글 활자체의 정형이 완성된 시대였다. 선조 25년(1592)의 임진왜란은 글자 생활과 인쇄술에 큰 영향을 끼쳤으므로 이를 고비로 옛활자 시대를 전기와 후기로 나눌 수 있다. 이 시대는 각 시기의 문화정책에 따라 활자 문화가 아주 발달하기도 하고 혹은 덜 발달하기도 하였다.

○ 새활자 시대는 앞서 완성된 한글 활자체의 정형이 새활자에 적용된 시대였으나 일제 식민지하에서의 계속된 억압과 겸열로 한글 활자문화가 제대로 발전되지 못하였고 일본 한자 활자체의 영향이 커던 시대이기도 하였다. 이 시대 말엽부터 남북 분단으로 한글 활자체가 서로 달리 발전되기 시작하였다.

○ 원도활자 시대는 활자 제작공정과 활자체 설계가 분리됨으로써 활자체 디자이너가 새로이 등장한 시대이다. 이 시대에는 일반 활자 외의 사무기용 활자나 각종 광고표지판, 제품명을 위한 글자꼴 등 한글꼴에 대한 여러 가지 쓰임새가 계속 늘어가고 있다. 특히 발달되고 있는 전산기술에 맞는 전산활자체와 그 쓰임새에 대한 연구 개발이 크게 요청됨으로써 한글의 시각적, 조형적 문제를 전문으로 해결해 나가는 한글 타이포그래피 분야가 생기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배출되고 있다.

따라서 이 시대는 전산기술을 응용하여 한글꼴의 여러 문제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있는 시대일 뿐 아니라 한편으로는 분단 지역 한글꼴의 문제도 함께 분석하고 해결해 감으로써 다가오는 통일을 준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시대이기도 하다.

훈민정음 원본 목판글씨체(세종 28년)

如。里。為。山。口。為。暮。奠。弓。如。人。弓。為。
蝦。二。弓。為。教。大。如。子。為。尺。才。為。
紙。大。如。才。為。簾。才。為。鞭。人。如。손。為。
手。愬。為。島。古。如。부。形。為。鶴。鵠。咸。為。
筋。○。如。비。육。為。鷄。雞。卑。암。為。蛇。弓。
如。무。리。為。霄。어。름。為。冰。△。如。아。수。
為。弟。내。△。為。鴉。中。聲。●。如。토。為。頤。
夭。為。小。豆。二。弓。為。橋。ㄱ。래。為。歛。

② 옛활자 시대 전기

훈민정음 창제에서 임진왜란 전까지 :
세종 25년(1443)-선조 24년(1591)

1. 세종 28년(1446) : 훈민정음원본
목판글자체 (이후 정음체라 약칭)

가장 최초로 표현된 한글꼴인 정음체는 네모진 단순한 줄기와 기하학적인 동그라미, 세모, 네모의 담소리 글자로 이루어지고, 특히 결줄기가 둥근 점으로 표현되어 있고 둥근 소릿점이 붙어 있다.

2. 세종 29~30년(1447-1448) : 동국정운
전용 나무활자체 (이후 동국체라 약칭)

동국체는 나무활자체이면서도
목판글자체인 정음체와 그 성격이 거의
동일하다. 특히 창제 초기의 글자 중
곁줄기가 둥근 점으로 표현된 것은
정음체와 동국체뿐이다.

정음체와 같이 쓰인 한자는 행서체 봇글씨의 자유로운 성격이지만, 정음체 한글꼴은 정모네틀에 가까운 글자 윤곽의 기하학적 구조로서, 한글과 한자의 성격이 크게 대비되고 있다. 이는 창제 초기 글자들의 공통된 특징이기도 하다. 글자 크기에서

3. 세종 29년(1447) : 용비어천가
목판글자체 (이후 용비체라 약칭)

용비체는 정음체와 같은 목판 글자로서, 그 성격은 거의 동일하나 정음체의 결줄기가 둑근 점인데 비해 용비체의 결줄기는 짧은 줄기로 되어 있다.

4. 세종 29년(1447) : 석보상절 전용
놋쇠활자체(이후 석보체라 약칭)

석보체의 성격 역시 창제 초기의 다른 글자들과 거의 같다. 그런데 이 시기 서책들의 본문에 쓰인 한글은 대체로 정네모틀 글자 윤곽의 큰 글자였으나, 석보체는 이러한 큰 글자 외에 세로로 긴 네모틀 윤곽의 가늘고 작은 글자와 더 작은 글자를 함께 쓰고 있다.

5. 세종 29년(1447) : 월인천강지곡 전용
놋쇠활자체(이후 월인체라 약칭)

월인체는 석보체와 같은 놋쇠활자이며

정음체 한글은 한자보다 크고 굵지만 동국체에서는 크기가 거의 같다.

훈민정음이 창제된 세종 25년(1443)에서 5년 동안의

그 성격이 석보체 큰 글자와 거의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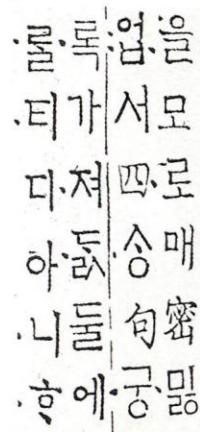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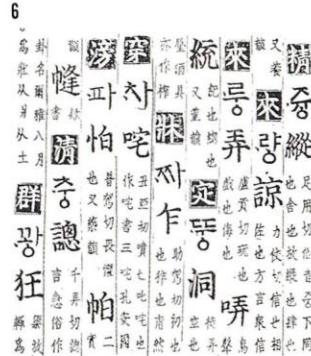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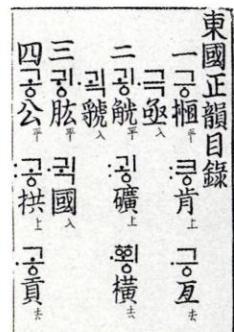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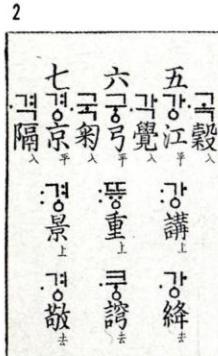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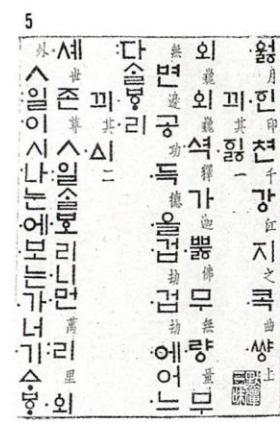
6. 단종 3년(1455) : 홍무정운역훈
나무활자체 (이후 홍무제라 약칭)

홍무체는 큰 글자로서 글자를 이루는 글자줄기에 굵기의 변화와 함께 붓글씨 성격인 돌기와 맷음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닿글자에서도 붓의 흔적과 쓰기 순서에 의한 모양의 변화가 보이고 있다.

- ## 7. 세조 원년(1455) : 강희안 글자본의 놋쇠활자체(이후 강희안체라 약칭)

강희안체에는 큰 글자와 작은 글자가 있으나 현재 남아 있는 자료의 대부분에는 작은 글자가 쓰여져 있다. 강희안체 작은 글자는 석보체 작은 글자와 비슷한 세로로 긴 네모틀의 글자 윤곽으로 되어 있지만, 글자줄기와 닿소리 글자의 모양에서 붓글씨의 흔적이 두드러지기 시작하고 있다. 강희안체와 함께 쓰인 한자 활자는 을해자

자료에서 정음체, 동국체, 용비체, 석보체, 월인체의 다섯 가지이다. 이들의 원리적 구성과 단순 기하학적 성격은 함께 쓰인 한자 붓글씨의 성격과 대비됨으로써 한자와 구별하여 말소리를 표기하도록 했던 훈민정음 차체의 독립적 자주적 의도를 시각적으로도 표현한



(강희안자)로서 강희안체는 을해자와 함께 조선조에 가장 오랫동안 쓰여진 활자체였다.

8. 세조 7년(1461) : 간경도감 목판글자체 (이후 간경도감체라 약칭)

간경도감체는 작은 글자로서 담소리 글자를 확대하여 세로로 긴 네모틀에 가까운 글자 윤곽을 이루고 있다. 글자줄기의 성격이나 담소리 글자의 모양도 보다 단순하고 기하학적인 성격으로 창제 초기 글자들의 성격과 비슷하다. 그러나 글자줄기는 끝이 예각으로 비스듬히 잘려진 목판 글자로서의 특징이 두드러지고 있다.

9. 세조 10년(1464) : 대산어첩 붓글씨체 (이후 대산어첩체라 약칭)

대산어첩체는 오대산 상원사의 중창 때에 세조가 하사한 권선문(勸善文)의 글씨체로서 글씨 쓴 이는 미상이며, 현재

것이다.

홍무체와 강희안체부터 한글꼴은 붓글씨의 영향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창제 초기 글자들의 원리적 구성을 보다 시작적으로 공간 조정이 된 글자 구성으로 바뀌고 있고, 단순 기하학적인 담소리

남아 있는 한글 붓글씨체 중 가장 오래된 자료이다. 대산어첩체는 담소리 글자의 비례나 줄기의 구성 등에서 이미 글자의 공간 구성이 완성되어 있다. 그러나 첫 담소리 글자의 모양이나 받침 담소리 글자의 비례 등에서는 아직도 창제 초기 한글꼴의 원형이 남아 있다.

10. 세조 11년(1465) : 정난종 글자본의 놋쇠활자체 (이후 정난종체라 약칭)

정난종체는 중간 글자와 작은 글자로 되어 있으며 그 비례는 세로로 긴 네모틀의 글자 윤곽을 이루고 있다. 글자의 구성과 성격은 간경도감체와 비슷하나 글자 줄기가 더 가늘고 조잡한 편이다. 정난종체와 함께 쓰인 한자 활자는 을유자(정난종자)로서 그 크기와 굵기 및 운동감에서 한글을 압도하고 있다. 정난종체와 을유자는 별로 사용되지 않은 활자체이다.

글자의 성격은 붓글씨에 의한 성격으로 서서히 변화되고 있다. 또한 네모틀에 가깝던 글자 윤곽도 네모틀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 특히 창제 초기 글자들에서 보이던 한글과 한자 성격의 대비현상은 홍무체와 강희안체부터 서로 비슷한 성격의 동화

11. 연산군 2년(1496) : 인경(印經)

나무활자체 (이후 인경체라 약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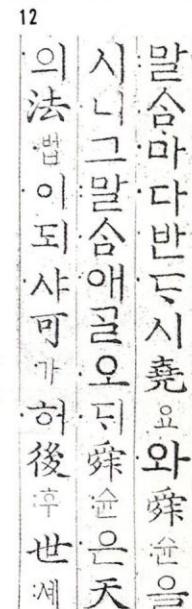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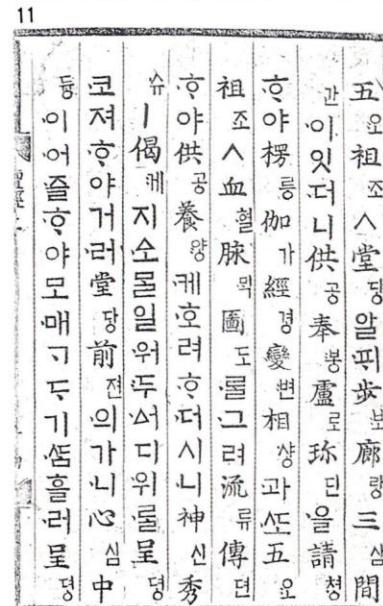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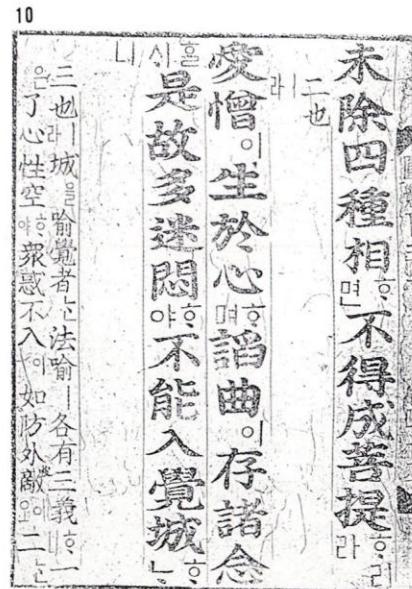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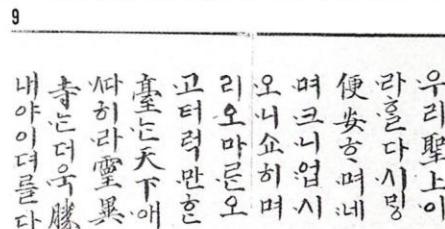
인경체는 가로 세로 비슷한 굵기의 글자줄기에서 기둥 첫머리의 경사진 돌기와 뾰족한 맷음 등의 성격이 뚜렷하다. 담소리 글자의 모양은 세모시옷, 동글 이용 등의 기하학적 성격이지만, 글자의 구성은 네모틀의 글자 윤곽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고 줄기의 공간 조정이 두드러져 단정한 균형감을 주고 있다. 인경체의 소릿점은 둑근 점이 아닌 내리점으로 표현되어 있다.

12. 1500년대 : 경서(經書) 전용 놋쇠활자체 (이후 경서체라 약칭)

경서체는 선조 21년(1588)부터 선조 23년(1590) 사이에 유교 경전의 한글 번역본만을 인쇄하는 데 쓰인 활자체로서 이 활자에 대한 확실한 기록은 알려져 있지 않다. 경서체에는 약간 작은 중간 글자와 작은 글자가 있으며, 특히 중간

현상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있다.

간경도감체와 정난종체는 홍무체나 강희안체보다도 글자 성격에서 창제 초기의 글자에 더 가깝다는 점에서 서로 비슷한 점이 있다. 특히 대산어첩체



글자에는 붓글씨의 성격이 현저하게 나타나서 시옷의 모양은 갈래점이 위에 있는 윗점 갈래 시옷으로 바뀌고 있으나, 작은 글자는 보다 더 직선적이고 기하학적인 성격으로 되어 있다. 글자 구성에서 경서체 중간 글자는 인경체와 비슷하고 작은 글자는 강희안체와 비슷하나 강희안체보다 붓글씨의 성격이 더 강하다. 경서체의 소리점은 중간 글자와 작은 글자에 똑같은 크기의 기하학적인 동글점으로 통일되어 있다.

13. 1500년대 : 1500년대 목판글자체

이 시기의 목판글자체는 성격이 매우 다양하나 비슷한 시기 활자체인 경서체의 특성과 대체로 유사하고, 다만 줄기의 공간 구성에서 붓글씨적인 필기 습관의 영향이 더 강하게 표현되어 있다.

붓글씨의 완성된 공간 구성 및 균형감은 이 시기 활자체와 목판글자체의 불균형한 원리적 구성과 크게 대비되고 있다.

경서체 중간 글자와 작은 글자의 성격은 오랫동안 옛활자체의 전형을 이루게 된다.

③ 옛활자 시대 후기

임진왜란에서 철종 말년까지 : 선조 25년 (1592)-철종 14년(1863)

14. 선조 35-36년(1602-1603) : 훈련도감 나무활자체 (이후 훈련도감체라 약칭)

훈련도감체는 임진왜란 후의 혼란과 결핍기에 당시 병영이었던 훈련도감의 인력과 물력을 이용하여 만든 나무활자체이다. 중간 글자와 작은 글자로 이루어진 훈련도감체는 글자 줄기의 성격과 담소리 글자의 모양이 네모지고 기하학적인 성격과 부드러운 붓글씨적 성격이 함께 뒤섞여 있다. 글자 구성은 고르지 않으나 대체로 경서체보다 글자의 네모틀에서 더 벗어나고 줄기의 공간 조정이 더 진전되어 있다.

15. 1600년대 : 1600년대 목판글자체

이 시기의 목판글자체는 훈련도감체의 조잡한 활자체 균형과는 대조적인

경서체까지의 종래 활자체가 고른 균형과 통일된 성격을 유지해 온 것과는 달리 훈련도감체는 불균형과 통일되지 못한 조합함으로 활자체의 퇴보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균정하면서도 더욱 붓글씨화된 완성도 높은 균형으로 목판글자체의 전형을 이루고 있다.

16. 현종 9년(1688) : 김좌명 의장의 놋쇠활자체 (이후 김좌명체라 약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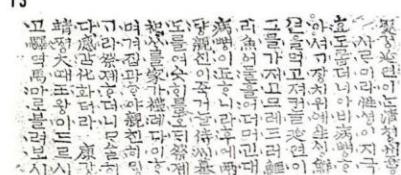
김좌명체에 의해 임진왜란 이후의 활자본들이 비로소 깨끗하게 인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김좌명체의 중간 글자와 작은 글자 모두 줄기의 굵기 및 성격이 비교적 고르게 되었으나, 특히 작은 글자에서 아직도 붓글씨 성격과 기하학적 성격이 뒤섞여 있다. 또한 담소리 글자 모양에서 윗점 갈래 시옷과 중간점 갈래 시옷이 혼용되고 있는 것처럼 동일한 담소리 글자에서 글자에 따라 붓글씨적 성격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 있다.

17. 1600-1700년대 : 한글 붓글씨체—궁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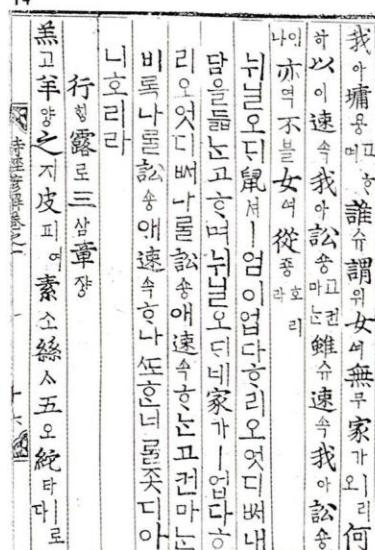
이 시기의 붓글씨체에서 한글

훈련도감체의 불균형하고 조잡한 활자체의 성격은 김좌명체와 원종체에서 다시 균정함과 통일성이 회복되고 있다. 특히 훈련도감체에서 보인 붓글씨의 영향은 김좌명체와 원종체의 순서로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1700년대체는 붓글씨의 성격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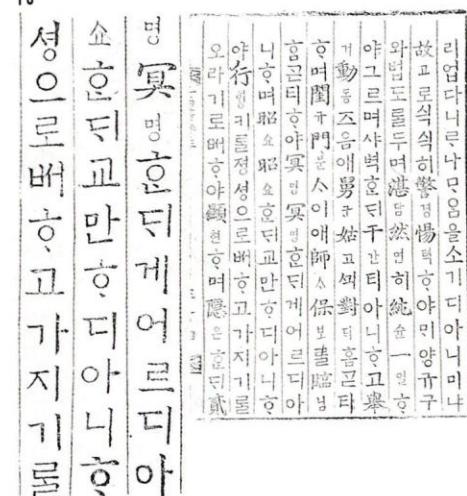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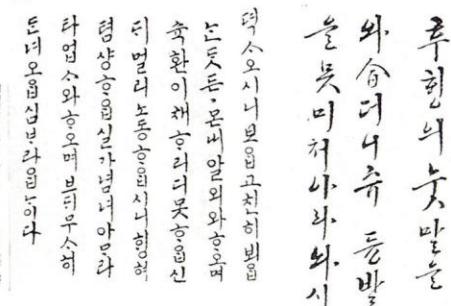
14



16



17



붓글씨체의 대표적 양식인 궁체의 형성 과정을 볼 수 있다.

18. 숙종 18년(1692) : 원종 글자본의 무쇠활자체 (이후 원종체라 약칭)

원종체는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의 글씨를 글자본으로 하여 주조된 활자체로서 중간 글자와 작은 글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글자 줄기의 성격이나 담소리 글자의 모양 및 글자의 구성에서 김좌명체보다 현저하게 고른 균형을 이루고 있다. 특히 붓글씨체의 성격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 있는데 세로 줄기와 기둥선은 가지런한 반면, 가로 줄기는 대체로 오른쪽 오름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시옷의 모양은 중간점 갈래로 통일되어 있다.

19. 1700년대 : 1700년대 나무활자체

(이후 1700년대체라 약칭)

1700년대체는 1700년대에 걸쳐 임진자·

직선적이고 기하학적인 새김적 성격과 절충되고 있다.

이제까지의 한글 활자체와 크게 다른 성격이 교서관체와 오륜체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즉, 교서관체는 붓글씨 성격에서 벗어나 함께 쓰인 한자

정유자·무신자 (김좌명자) 등의 한자 활자와 함께 쓰인 활자체로서 그 제조자와 제조 연대 및 제조 방법 등이 알려져 있지 않으나 나무활자로 추정되고 있다. 중간 글자 및 작은 글자로 이루어진 1700년대체는 줄기와 다른 활자체보다 약간 가늘고 나무활자의 새김적 성격이 보이나 글자의 짜임새나 줄기의 성격이 고르지 않다. 특히 반침 담소리 글자의 비례가 줄어드는 점이 특징이다.

20. 경종3년(1723) : 교서관 개발

무쇠활자체(이후 교서관체라 약칭)

교서관체는 1723년경부터 나타나는 후기 혹은 제2교서관 한자 인서체자 (印書體字)와 함께 쓰인 한글 무쇠활자체이다. 이 교서관 한자 인서체자는 중국 명나라에서 수입한 명판본(明版本)들을 글자본으로 새겨 주조한 우리 나라 최초의 인쇄 전용 한자

활자 명조체의 단순하고 기하학적인 성격을 한글에 적용하면서도 비교적 네모틀에서 벗어난 짜임새 있는 글자 구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교서관체는 오늘날의 한글 명조체(한자 명조체의 성격을 그대로 표현한 한글 활자체)의 원조로서의 의미가 있다. 한편

활자 명조체이다. 따라서 교서관체는 최초의 한글 명조체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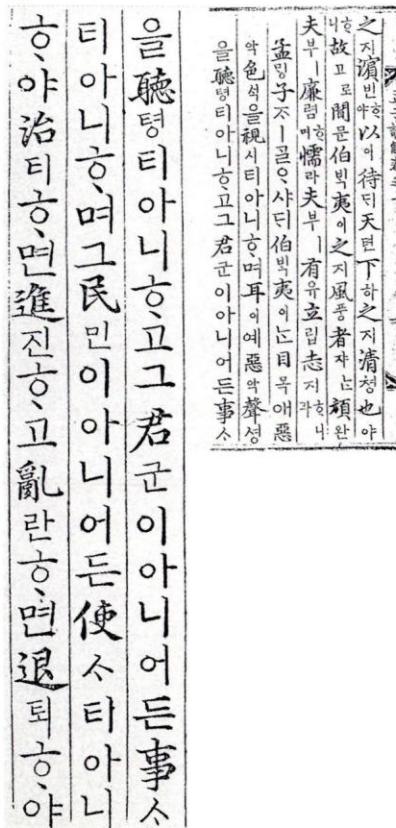
교서관체는 줄기의 단순하고 기하학적인 성격으로 함께 쓰인 한자 활자 명조체 성격에 어울리도록 하였으며 글자 구성은 담소리 글자의 크기 비례를 줄여 네모틀에서 더욱 벗어나면서도 글자의 짜임새를 높이고 있다.

21. 정조 20년(1796) : 오륜행실도 전용 활자체(이후 오륜체라 약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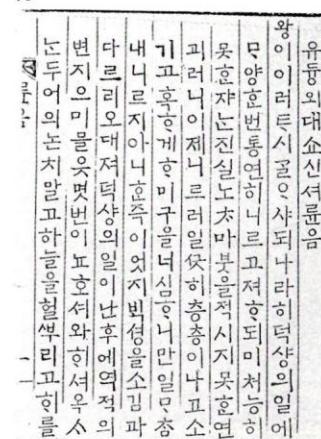
청나라 활자의 글자본으로 된 생생 (生生) 나무활자를 바탕으로 하여 정조 19년(1795)에 주조된 한자 놋쇠활자가 정리자(整理字)인데, 이 정리자는 청의 활자를 글자본으로 한 셈이나 활자체의 성격은 역시 완성도 높은 전형적인 한자 명조체이다. 이러한 정리자와 함께 쓰이도록 정조 20년(1796)에 만들어진 오륜체는 정조 21년(1797)에 간행된 오륜행실도에만 유일하게 사용되고

오륜체는 활자체로서의 균형감과 통일성에서 그 이전 활자체와 비교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완성도를 보이며, 한글 명조체로 흔히 불리는 오늘날의 활자체와 거의 동일하여 오늘날의 한글 활자체의 최초의 정형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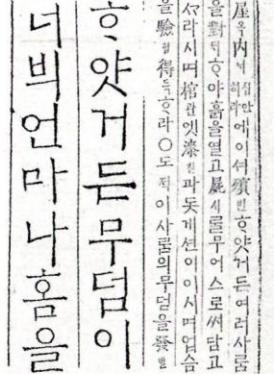
18



19



21-2



교오남영희업교내모으풀두엄
이수다데므로내안도다우러밤

있는데, 활자에 대하여는 놋쇠활자설도 있으나 나무활자는 당시 기록이 있다. 중간 글자와 작은 글자로 된 오윤체는 글자 줄기의 굵기, 돌기나 맷음 등의 성격이 강한 붓글씨의 성격으로 통일되고 있으며, 담소리 글자의 모양과 글자의 구성도 필순이 반영된 짜임새 있는 균형으로 오늘날의 활자체와 거의 동일하게 되어 있다.

22. 1700년대 : 1700년대 목판글자체

이 시기의 목판글자체는 임진왜란 아래의 규정하고 완성도 높은 목판글자체의 전형이 계속 다듬어지고 있고 보다 개성 있는 글자체의 성격으로 발전되고 있다.

23. 1800년대 초 : 장흔 의장의 나무활자체 (이후 장흔제라 약칭)

장흔체는 순조 원년(1801)에서 순조 10년(1810) 사이에 장흔(張混)의

이 시기의 활자체는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집약된다. 하나는 한자 활자 명조체의 성격에 영향받은 단순하고 기하학적 성격의 교서관체 흐름으로서 민간에 의해 만들어진 장흔체와 박종경체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의장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작은 활자체이다. 함께 쓰인 한자 활자의 굵은 붓글씨 성격과는 대조적으로 장흔체는 가늘고 간결한 기하학적 성격이나 글자의 짜임새는 고르지 않는다.

24. 순조 16년(1816) : 박종경 주관의 놋쇠활자체 (이후 박종경체라 약칭)

박종경체는 청나라 활자를 글자본으로 하여 박종경(朴宗慶)이 주조한 한자 활자 전사자(全史字)와 함께 쓰인 한글 활자체이다. 전사자의 명조체 성격과 조화되도록 중간 글자와 작은 글자의 박종경체는 단순 간결하고 기하학적 성격이나 담소리 글자의 모양이나 글자 구성의 짜임새는 붓글씨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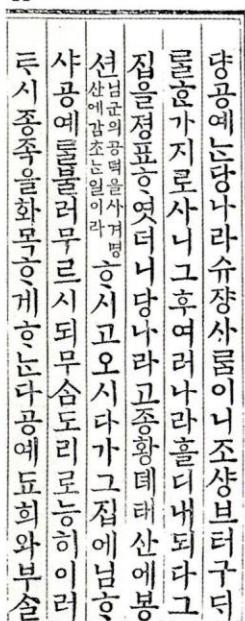
25. 철종 9년(1858) : 1800년대 놋쇠활자체

(이후 1800년대체라 약칭)

1800년대체는 정리자를 다시 주조한

재주 정리자와 함께 쓰이도록 만든 한글 활자체이다. 따라서 정리자와 함께 쓰인 오윤체의 성격과 비슷하리라 예상되나 실제로는 오윤체와는 매우 다르다. 글자 줄기의 성격에서 1800년대체는 오윤체보다 줄기의 굵기가 가늘고 붓글씨 성격이 강하며 담소리 글자의 모양이나 글자 구성에서도 오윤체보다 강한 붓글씨의 영향이 나타나 있으나 고른 균형감은 더 떨어져 보인다.

22



23

嫦娥○星精	上帝	火○火	火○火
真宰	玉皇	蠍○蠍	蠍○蠍
星妃○風伯	地祇	蠍○蠍	蠍○蠍
星妃○風伯	后土夫人○造	蛇○蛇	蛇○蛇
裴麻		野馬○野馬	野馬○野馬

24

上	傍邊	有	無箇	金	粉
旁	邊	有	無箇	金	粉
傍	邊	有	無箇	金	粉
邊	邊	有	無箇	金	粉
邊	邊	有	無箇	金	粉

25

이前事를 想覺하고 川流를 當하야 부려 물 속에 너머저도 소금을 버렸사모이다.

그려나 두 눈이 밝은 소경도 세상에 있느이다.
이런 소리를俗談에 하니 눈도 소경이라고 일은 다 험요.
文宇란 거손 우리들로 험야.古今事를
운으로 말미암아 알게 험거나. 눈도 소경이
必然조금도 分間처 못 험것지니.
文字를 읽지 못 험하는 것. 엇지 험터이요.

4 새활자 시대

고종 원년에서 6.25동란 전까지 :
1864년 ~ 1949년

26. 고종 17년(1880) : 최지혁의 새활자체

(이후 최지혁체라 약칭!)

최초의 한글 새활자인 최지혁체는 고종 17년(1880) 일본 요코하마(橫濱)에서 처음 주조되어 그 해에 그 곳에서 간행된 「한불자전」에 최초로 사용되었다. 이 초기 최지혁체는 5호의 작은 활자였으나 이후 큰 활자인 1호와 중간 활자인 2호 활자가 갖추어짐에 따라 고종 23년(1886) 국내에 정식 수입되기까지 주로 천주교의 많은 출판물에 사용되었다. 국내에서의 최지혁체는 종현 천주교당(현 명동성당) 내 활판인쇄소를 통한 많은 천주교의 간행물과 이후 각종 교과서 등에 폭넓게 활용되었는데, 특히 본문용으로 2호 중간 활자가 가장 널리 사용되었다. 최지혁체의 글자 구성은

새활자 도입 초기의 최지혁체, 성서체 및 한성체는 활자체의 흐름으로 볼 때 성서체는 교서관체의 흐름으로, 최지혁체와 한성체는 오른체의 흐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최지혁체와 한성체는 동일한 흐름이면서도 서로 대조적인 성격을 보이는데

세로로 긴 글자 비례의 강한 봇글씨의
성격으로 필력이나 필순이 표현된 닉소리
글자의 모양은 오늘날의 이른바 한글
명조체와 거의 동일하다.

27. 고종 19년(1882) : 예수성교전서의

새활자체 (이후 성서체라 약칭)
성서체는 고종 19년(1882) 만주
봉천에서 간행된 순한글판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처음으로 사용된 이후
고종 24년(1887) 최초의 신약전서인
「예수성교전서」의 간행에 계속 사용된
3호 활자이다. 성서체의 설계자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활자가 주조된 곳은 2호
최지혁체를 주조한 일본의 쓰쿠지(築地)
활판제조소였다.

성서체는 간결하고, 직선적,
기하학적인 독특한 성격이며
글자 구성은 낭소리 글자를 글자 윤곽
안에 크게 채우고 있는데 특히 가로모임
글자 중 ㅏ, ㅓ 글자의 받침이 기둥선보다

오른체의 안정되고 균형하며 표준적 성격은
한성체에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지만 최지혁체는 보다
활달한 봇글씨의 개성을 나타내고 있다. 민간에서
만든 활자체와 보수적인 중앙관서에서 만든 활자체
비교의 좋은 사례이다.

오른쪽으로 크게 벗어나는 특징이 있다.
성서체는 초기의 성서 간행에만 주로
사용되었다.

28. 고종 23년(1886) : 한성주보의 새활자체

(이후 한성체라 약칭)

한성체는 고종 20년(1883) 설립된
최초의 근대식 관립 인쇄국인
박문국(博文局)에서 고종 23년(1886)
1월 1일자로 발간된 한글 한자 혼용의
「한성주보(漢城周報)」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한성체의 설계자 역시
알려져 있지 않으나 주조된 곳은 일본
쓰쿠지 활판제조소였다. 한성체는
최지혁체와 달리 글자 윤곽이 정네모틀의
비례이며 붓글씨 성격이면서도 글자
구성에서 공간 조정이 잘 이루어져 있어
짜임새가 균정하고 안정감을 이루고
있다. 한성체는 새활자 시대기간 동안
교과서, 신문 등의 각종 간행물 및
개신교의 출판물 등에 가장 널리 활용된

26

사람이나 종은 처음에 비거 더욱 인잔으
리라 이 비유는 벌어리물 년자 듣경재 홍시 도망승이나
마치 날은 서 담사물의 명호이 하물이 이_minus; 수 멀지 마기
그 양회 엇다 가해 물을 끗지 멀지 마기 빙 리고 나가며 엄는 명
흔으로 들어 가니마치 강조 향마 희들이 감각고 오직 마기

어린아이들

서울방판한나히제죽현위산에홍상신선이느려와
논다말을듯고상현할흐드리가제죽목수로현어
션남을호번별오현마는나밖을워수잇는가호
터니우현이금대말한야의와에그목수를호예간지
二皇廟文字書簡原本 (THE HALL OF TWO ROYAL TEMPLES)

서울냥반호나

아침은 아침을 낸다. 고. 일과 운동한다. 아침을 낸다. 고. 아침은
리암의 가장이 다. 그 세 개를 광고 홍보. 알리온이 보내. 달빛
비단이. 이 모든 데 학생이 바쁜문에 온갖 고민문서에 저마다
부모에 올라온다. 무기리 쏘아세우는 학생들이 저마다
도와나를 헬프에 죄로. 후노. 이 많아 미안함은 보상의 면면으로
에 성령으로 양립. 흥물보. 고. 아비드온은 사인이라. 아파도 할

세 허 러 들 가 고 다 만
은 다 각 각 제 집 으로

활자체이며, 오늘날 개신교의 신구약 성경 본문으로 아직도 사용되고 있다.

29. 고종 32년(1895) : 학부 나무활자체 (이후 학부체라 약칭)

학부체는 학부 편집국이 개편 교과서를
찍기 위해 만든 나무활자체로서 새활자
시대의 마지막 옛활자인 셈이다.
학부체의 성격은 직선적이고 기하학적인
성격이나 글자 줄기의 굵기나 글자의
짜임새가 고르지 않다. 학부체는
새활자인 성서체와 글자 성격이 매우
비슷하다.

30. 1800년대 : 1800년대 목판글자체

이 시기의 목판글자체는 1700년대에 이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방각본 소설의 독특한 글자체가 새로운 목판글자체의 전형적 성격으로 제시되고 있다.

31. 1900년대 초기 : 1900년대 초기

새활자체 (이후 1900년대 초기체라 약칭)

1900년대 초기체는 4호 활자인 한성체에 이어 1900년대 초에 주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5호와 6호의 작은 활자이며 주조된 곳은 역시 일본의 쓰쿠지 활판제조소였다. 글자의 성격은 한성체와 거의 동일하나 글자 구성은 다소 엄청하여 짜임새가 떨어진다.

32. 1915년 : 조선어독본 새활자체 (이후 독본체라 약칭)

독본체는 1915년의 「보통학교 조선어독본」에 처음 사용된 1호 큰 활자로서 주로 조선어독본 교과서에만 사용되고 있다. 독본체는 글자 줄기에 붓글씨 성격을 줄이고 수직 수평의 직선적 성격을 강조하면서 굵기를 고르게 하여 그 구성이 매우 균정하게 보이고 또한 담소리 글자의 비례를 크게 하여 글자가 커 보인다.

33. 1920년 이후 : 초기 조선·동아일보

새활자체 (이후 초기 조선·동아일보체라 약칭)

초기 조선·동아일보체는 1920년 3월 5일 창간된 조선일보와 같은 해 4월 1일 창간된 동아일보에 사용된 활자체들로서 창간 초에는 본문 활자에 동일한 활자체를 사용하다가 각 신문사마다 수 차에 걸쳐 독자적으로 본문 활자를 개량해 나갔다. 이 활자체는 9-8 포인트의 아주 작은 활자이므로 창간 초기의 활자체는 매우 거칠고 불균정한 글자 성격이었으나 개량을 거듭함으로써 1930년대 이후는 간결하고 비교적 균정한 성격으로 정리되었다.

34. 1900년대 : 1900년대 목판글자체

이 시기의 목판글자체는 1800년대에
이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지방에서
만들어진 목판글자체에는 토속적이고도
독특한 성격이 표현되어 있다.

29

20

滅亡 바나 되니라
其

코저호야 於是에 마호멧도의信徒와此教를排斥
고자호는數多亞刺比亞人의間에戰爭이 出호되
此役이 只승지 마호멧도의 大勝에歸호리 其後도
年이 못되야 亞刺比亞全土로 亨야 爰마호멧도의
主權을 承認해 亨니라 是故로 마호멧도의 宗教를
奉호드者——國을 成하야 사라센國이라稱호니

21

여유궤로 주거날 바다보니 그물에 하
습니까를 티봉은 양스쳐 려지고 ○ 왈
은 엉고 일 베온이 르니 ○ 천수그리하

33

쉬고잇섯소。

3

한국의 철학자들은 그들의 철학을 통해 세계관을 확장하고, 개인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자 노력해온다. 특히, 전통적인 윤리관과 철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학제적 접근법은 현대 사회에서 윤리적 가치를 재정립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컨대, 윤리학자들은 개인의 행동과 사회적 책임, 공동체의 복지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철학적 분석과 고찰을 통해 깊은 이해와 실천적 제언을 제공한다. 이러한 노력은 개인의 윤리적 성장을 촉진하고,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34

유아동조옹군자는저소심명
명찰하여보쇼나도도호이세
네쇼전율을호그회포를못철
신심권작가

35. 1933년 : 이원모의 새활자체 (이후 이원모체라 약칭)

이원모체는 동아일보사가 본문활자체 개량을 위해 1928년 국내 최초의 활자체 공모를 통해 채택, 제작한 활자체로서 1933년 4월 1일자 신문부터 사용되었다. 종래의 봇글씨 성격의 활자체와 달리, 이원모체는 한자 활자 명조체의 성격을 그대로 한글에 적용한 이름 그대로의 한글 명조체였다. 특히 좁은 면적에서 크게 보이도록 한 공모 규정에 따라 네모틀에 글자 윤곽을 가득히 담소리 글자를 채움으로써 이제까지와는 다른 글자 균형을 이루고 있다.

36. 1930년대 후반 : 한글 고딕 새활자체 (이후 고딕체라 약칭)

고딕체는 일본 한자 활자 고딕체와 함께 사용할 필요에 따라 1930년대 초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보다 널리 사용된 것은 1930년대 후반부터였다.

1930년대의 대표적 세 활자체인 이원모체, 고딕체 및 박경서체는 원도활자 시대를 잊는 가교적 구실을 했던 중요한 활자체이다. 멀리는 교서관체의 흐름을 따르고 가까이는 일본 한자 명조체의 성격을 적용한 이원모체는 이후 이름 그대로의 한글 명조체의 시작이

일본 한자 활자 고딕체가 국내에 들어온 것은 이미 1900년대 초였으나 한글로 표현되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 초 신문의 본문 제목이나 광고 등에서의 손글자 표현이 처음이었다. 초기의 손글자 표현 고딕체에서는 담소리 글자의 모양과 크기 비례가 여러 가지였으나 활자체는 대체로 네모틀의 글자 윤곽에 가득 채우는 글자 구성으로 통일되었다. 이는 되도록 글자를 크게 보이도록 함으로써 제목 글자용 고딕체의 쓰임새에 맞도록 한 결과이다.

37. 1930년대 말 : 박경서의 새활자체 (이후 박경서체라 약칭)

천재적 활자 조각가인 박경서(朴慶緒)의 5호 및 9포인트의 작은 활자체인 박경서체는 이 시기의 가장 완성도 높은 짜임새의 활자체이다. 박경서체는 글자의 공간 구성이 규정하며 특히 글자의 기둥선을 맞춤으로써 활자를

된 것이다. 또한 고딕체는 그 기하학적 성격으로는 창체 초기 글자와 같으나 담소리 글자의 모양이나 글자 구성에서는 역시 일본 한자 활자 고딕체의 직접적 영향으로 시작된 것이며 오늘날 불리고 있는 고딕체 이름에서 아직도 그 유래가 남아 있다.

세로로 짚을 때 오른쪽 세로 글줄선, 즉 기둥선이 가지런하게 된다. 이러한 우수한 글자 균형으로 박경서체는 해방 이후 원도활자 시대 초반까지도 널리 사용되었으며 이후 원도 설계의 기초 자료가 되었다.

38. 1900년대 : 1900년대의 손글자체

한글 손글자의 표현은 1920년대의 신문광고에 자주 나타나기 시작하며 그 성격도 초기의 고딕체나 둑근 고딕체 외에 여러 가지의 장식체나 보다 자유로운 손멋글씨체도 등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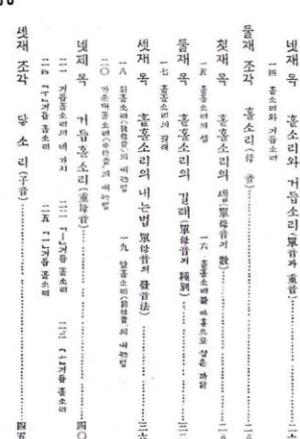
39. 창씨개명/내선일체/황국신문

일제의 우리 말, 우리 글 말살정책으로 모든 한글 활자가 폐기되고 소멸되었다.

오륜체의 흐름으로 이어져온 한글자체의 정형은 박경서체에서 높은 짜임새를 볼 수 있으나 이를 오늘날 한글 명조체라 부르게 된 것 역시 일본 한자 활자 명조체와 함께 이 기간 동안 쓰여진 결과이다. 그러나 명조체 이름에 맞는 한글 활자체는 이원모체의 성격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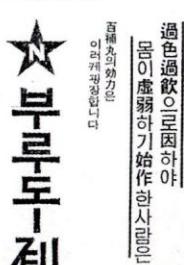
35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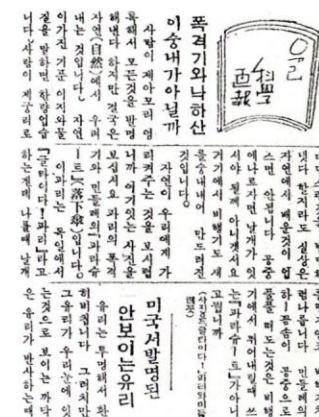


기켜물엇리구텅멍

어안지리꼴에 告廣은人新



37



5 원도활자 시대

6·25 동란에서 현재까지 :

1950-오늘

1. 한글 주조활자체

1954년 국정교과서(주)에 국내 최초로 일본제 벤턴 자모조각기(Benton Matrix Cutting Machine) 4대가 도입되어 그 해부터 국정교과서에 이른바 벤턴 포인트 활자가 사용되며 종래의 호수(號數) 활자 대신 포인트 활자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 자모조각기의 등장으로 사람이 실제 크기대로 조각하던 옛활자 및 새활자 시대에서 활자체 원도의 디자인이 필요로 되는 새로운 원도활자 시대가 열렸다. 초기 국정교과서 활자체의 원도는 이임풍(李林風)과 최정순(崔貞淳)의 설계와 제도로 이루어졌다.

한편 1955년에는 동아출판사 사장

김상문(金相文)의 의뢰에 의해 최정호(崔正造, 1916년-1988년)의 활자 원도설계가 시작되었고, 1956년 벤턴 자모조각기 2대의 도입으로 1957년부터는 동아출판사의 초기 원도 주조활자가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이 최정호의 활자체는 그 미려함과 균형 함으로 당시의 인쇄, 출판계를 석권하였다.

이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평화당인쇄(주)는 최정순의 활자 원도에 의해 활자체를 개량하고, 또한 삼화인쇄(주)와 보진재(주)는 최소호의 원도에 의해 벤턴 주조활자를 개발하였으며 이즈음 대한교과서(주), 민중서관, 흥원상사(주) 광명인쇄소, 삼성인쇄(주) 등도 일제히 활자체를 개량하였다. 이렇게 하여 원도활자 시대 초기에는 자모조각 활자가 새로이 개발되면서 새활자와 교체되었으며 이후 꾸준히 주조활자가 개량되었다.

신문활자에서는 조선일보 활자체가

그 독특한 성격을 계속 발전시켰으며, 동아일보 활자체인 이원모체를 최정순의 활자체로 교체하였다. 한국일보는 1962년 최정순에게 자모조각 활자를 의뢰하여 개발하였으며, 1965년에는 중앙일보가 역시 최정순의 활자체로 창간되었다. 그후 신문사마다 활자체를 꾸준히 다듬고 있으며 1980년 이후부터는 본문활자를 확대하여 독자들에게 가능한 한 가독성을 높이고자 시도하고 있다.

2. 한글 사진식자체

사진식자체라 함은 사진식자기로 찍혀진 활자체를 말한다. 금속 주조활자와 달리 사진식자는 이름 그대로 활자 한 자 한 자가 사진으로 찍혀서 조판되는 활자로서 음판 상태로 배열된 글자판에 렌즈를 통해 광선을 투과시켜 인화지 위에 글자를 찍는 것이다.

• 동아출판사의 한글 주조활자체

금강이 저리로다 구름밖에 저기로다
꿈인지 상해(眞)먼저 그림인지 실상인지
알고도 모를 것이야 금강인가 하노라.
바쁜 양 몸은 아직 먼 곳에 있건마는
마음은 언제 벌써 금강중에 들었구나
만이천 구구 총총이 낮익은 듯하여라.

지금 어디매쯤
아침을 몰고 오는 분이 계시옵니다.
그분을 위하여
북은 이 의자를 비워 드리지요.
지금 어디매쯤
아침을 몰고 오는 어린 분이 계시옵니다.

• 최정순의 한글 주조활자체

이 고개는 삼년고개라는 고개인데,
여기서 한 번 넘어지는 사람은은, 3년
밖에 더 못 살다는 말이 전하여 오는
고개이므로, 노인은 그만 어찌할 줄 모
르고, 허둥지둥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
와 아들을 불러 놓고,

손쉽게 조합해 낼 수 있는 것이다.

최초의 한글 타자기는 1914년 재미교포 이원익의 5벌식 타자기였으며, 다음으로는 1930년 송기주가 개발한 담소리 글자 3벌 훌소리 글자 1벌의 4벌식 타자기였다. 그런데 이 타자기들은 당시 모든 글자를 내려쳤던 습관에 따라 모두 가로 찍어 세로 읽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지만 일제하에 있던 국내에는 거의 보급되지 않았다. 1947년에는 공병우의 3벌식 가로 읽기 타자기가 개발되어 타자의 능률과 속도를 향상시켰는데 1950년에 일반에 보급되고 6·25 동란 중에는 군에 납품되어 처음으로 대중화된 한글 타자기였다.

1950년에는 김동훈의 5벌식 타자기가 개발되어 1958년에 상품화되었고 1969년 7월에는 국무총리령으로 과학기술처 제정에 따른 4벌식 타자기가 표준자판 타자기로 공포되었다. 1985년 5월에는 국무총리령으로 다시 2벌식

표준자판이 공포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표준자판은 2벌식이나 활자는 4벌식으로 타자되도록 한 것이다.

한글 타자기 활자체는 날개의 담소리 글자와 훌소리 글자를 조합하여 만들기 때문에 그 모양이 사람들에게 익숙한 종래의 출판용 활자와 다르다. 즉, 글자 윤곽이 네모틀에 가까운 출판용 활자와 달리 네모틀에서 벗어나 들쭉날쭉하다. 담소리와 훌소리 글자의 벌수를 간단히 하면 타자 능률은 오르나 글자 윤곽의 들쭉날쭉한 감이 심해지고 반대로 많은 벌수를 갖추면 글자 모양이 네모틀 글자 윤곽에 가까워지는 대신 타자 능률이 떨어지게 된다. 이런 점이 기계식 타자기 활자체 표현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단순한 기계식 타자기에서 출발했던 문서 사무의 신속화는 1970년대 말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사무용 컴퓨터와 전자 타자기 및 워드 프로세서의 개발로 사무 자동화

시대를 열게 하였다. 이에 따라 타자 방식도 볼(ball)타자, 휠(wheel)타자 등으로 바뀌어 가고 한글 타자기 활자체 역시 기계식 타자기의 표현적 한계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다. 앞으로 컴퓨터의 발달로 타자기 활자체는 출판용 활자체와의 구분에서도 점차 벗어나리라고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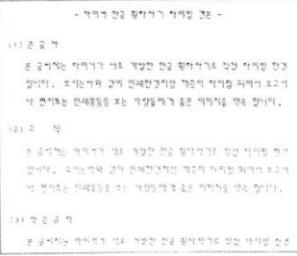
4. 한글 전산활자체

1970년대 말부터 사무용 컴퓨터가 국내에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아이비엠(IBM), 유니벳(UNIVAC), 동양전산기술(주) 등의 회사에서 한글 전산활자체가 개발되었다. 1979년에는 한국 컴퓨터그라피사에 의해 국산 전산식자 시스템(CTS; Computerized Typesetting System)이 첫선을 보이고 이를 발전시켜 1982년에는 한글 전산식자 시스템의 국내 보급이 시작되었다. 뒤를 이어 서울시스템(주), 정주기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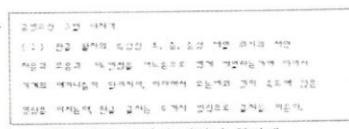
• 이원익의 최초 한글 타자기 활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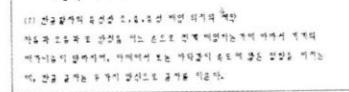
• 한글 훌 타자기 활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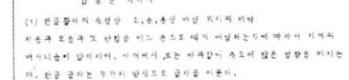
• 공병우의 삼벌식 타자기 활자체



• 사벌식 통일 글자판 타자기 활자체



• 김동훈의 사벌식 타자기 활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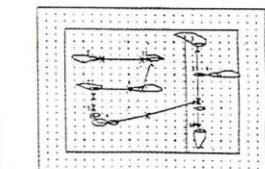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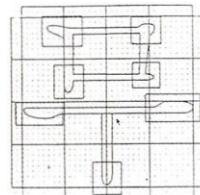


• 한글 타자기용 볼



• 공병우의 삼벌식 한글 타자기

• 한글 전산활자체의 각종 표현



동국전산(주), STI(주) 등의 회사가 자체 기술개발을 통하여 혹은 외국과의 합작으로 전산 사식 입력기와 출력기 및 전산활자체의 개발을 시작하였다.

1985년에는 사무용 컴퓨터인 워드 프로세서를 전산 식자 시스템의 입력기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한국컴퓨터산업인쇄(주)에 의해 개발되었고 STI(주), 삼화양행, 제일인쇄재료 등의 회사가 차례로 개인용 컴퓨터의 전산 식자 입력화에 성공함으로써 탁상용 출판 시스템(DTPS; Desktop Publishing System)에 의한 전자출판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현재 신명시스템, 휴먼컴퓨터 등의 컴퓨터 회사들이 한글 탁상용 출판 시스템의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중에 있고 이미 제품을 보급하고 있는 회사도 있다. 이로 인하여 앞으로 신문, 도서, 잡지 등의 출판과 인쇄 방법에 많은 변화가 올 것이 예견되고 있다.

컴퓨터 입출력기 및 프로그램이 눈부신 발달에 따라 보다 기능적이고 아름다운 한글 전산활자체가 계속 요청되고 있다. 전산활자체의 출력 방식도 초기의 단순하고 거칠은 점행렬 활자체(Dot Matrix Font)에서 더욱 섬세한 외곽선 활자체(Outline Font)로 발전되고 있다. 그러나 초기의 한글 전산활자체는 사진식자체를 거의 그대로 전산화한 것으로서 발전적으로 다듬은 노력이 별로 없었다. 최근 들어 보다 기능적이며 새롭고 아름다운 전산활자체 개발의 여러 가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극히 바람직한 일이다.

한글 전산활자체의 개발 방법에는 날글자별로 설계하여 입력하는 완성형 설계방법과 날개의 담소리 및 홀소리 글자들을 설계하고 이들을 조합하여 출력하는 조합형 설계방법이 있다. 이 중 완성형 설계 방법이 현재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한글꼴의 성격으로 볼 때 앞으로

이 두 가지 방법이 모두 적절하게 이용되어야 컴퓨터의 용량에 따른 기능성과 경제성 및 활자체의 아름다움이 잘 조화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활자체 쓰임새의 시각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한글 타이포그래피 분야는 앞으로 한글 활자체의 전산화가 바람직하게 발견하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5. 새로운 한글꼴의 시도—탈네모들의 방향

이제까지 사용해온 출판용 한글 활자체는 실상 우리에게 가장 낯익고 익숙한 한글꼴이어서 그 기능상 혹은 시각상의 문제가 일반 사람들에게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한글 활자체를 가장 많이 다루는 출판인, 인쇄인, 편집인 그리고 시각 디자이너들은 한글 활자체를 다룰 때마다 한글꼴의 기능과 아름다움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 한글 전산활자체의 각종 표현

쉬어 새 삶을 살게 된 마지막 곳임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 텁터가 그냥 재미있고 즐거운 곳만은 아니었습니다. 일일한 일을 생활을 없애기 위해 칼럼없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부담이 같았습니다. 텁터가 부담이 같으며, 마음 속에서는 악과 양이 쟁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리빙스턴 목자님께서 저의 그런 심정을 아시고 주님의 사랑을 입계하는 최대의 일식인 인생소감을 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더욱 더 이곳 텁터가 부담스럽고 싫어졌습니다. 내가 입장을 정망 잘못 짚구나 하고 후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했던 삶이 있었던 것 또한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리빙스턴 목자님과 함께 차대들은 제가 소감을 쓸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했으나 저는 계속 버티고 쓰지 않았습니다. 왜

나하면 인생소감은

든 일과 주님의 일 제 과거에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목자님이

고 며이도 데 안나오는 여자 며이도 데

목자님이 예께서 짧은 청바지가 어울리는 여자 며이도 데

고 며이도 데 예께서 짧은 청바지가 어울리는 여자 며이도 데

목자님이 예께서 짧은 청바지가 어울리는 여자 며이도 데

고 며이도 데 예께서 짧은 청바지가 어울리는 여자 며이도 데

목자님이 예께서 짧은 청바지가 어울리는 여자 며이도 데

고 며이도 데 예께서 짧은 청바지가 어울리는 여자 며이도 데

목자님이 예께서 짧은 청바지가 어울리는 여자 며이도 데

고 며이도 데 예께서 짧은 청바지가 어울리는 여자 며이도 데

목자님이 예께서 짧은 청바지가 어울리는 여자 며이도 데

고 며이도 데 예께서 짧은 청바지가 어울리는 여자 며이도 데

목자님이 예께서 짧은 청바지가 어울리는 여자 며이도 데

고 며이도 데 예께서 짧은 청바지가 어울리는 여자 며이도 데

목자님이 예께서 짧은 청바지가 어울리는 여자 며이도 데

고 며이도 데 예께서 짧은 청바지가 어울리는 여자 며이도 데

목자님이 예께서 짧은 청바지가 어울리는 여자 며이도 데

고 며이도 데 예께서 짧은 청바지가 어울리는 여자 며이도 데

목자님이 예께서 짧은 청바지가 어울리는 여자 며이도 데

고 며이도 데 예께서 짧은 청바지가 어울리는 여자 며이도 데

목자님이 예께서 짧은 청바지가 어울리는 여자 며이도 데

고 며이도 데 예께서 짧은 청바지가 어울리는 여자 며이도 데

목자님이 예께서 짧은 청바지가 어울리는 여자 며이도 데

고 며이도 데 예께서 짧은 청바지가 어울리는 여자 며이도 데

목자님이 예께서 짧은 청바지가 어울리는 여자 며이도 데

고 며이도 데 예께서 짧은 청바지가 어울리는 여자 며이도 데

목자님이 예께서 짧은 청바지가 어울리는 여자 며이도 데

그러나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 필요성을 누구나 인정하면서도 아직 몸에 배여있지 않아서인지, 어색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노력을 해야죠. 의식적으로라도 말입니다. 여기에다, 장난속으로 하는 알박한 천결이 아니고, 의자적인 차원에서 깊은 맛이 우리나라에는 천결, 좀위있고 깊이 있는 천결이라면 더욱 좋겠지요.

어릴적부터 할계모르개 배워온 사실이 있습니다. 를 앞에 알립거려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요. 가요.

연 경박하다고 하고, 면 해로제 보인다고 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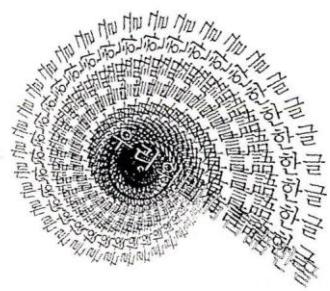
장광이 달라졌습니다. 것말으로는 안됩니다. 합니다.

경 콧방개 하고 양

날 빛을 코으려면

을 천발해야 합니다.

마음 것의지요.



살보 컴퓨터 휴먼 컴퓨터

온글학며 깊고 신선하며 예술과 인생을 소중히 여겼던
로 악간의 번역과 선경질을 부려도 예교로 통할 수 있을
전한 충분해도 적절히 맞장구를 쳐주고 나서 얼마의 시건
부드럽고 세련된 표현으로 충고를 아끼지 않았으면 한다
설치는 없다. 많은 사람과 사귀기도 원치 않는다. 나의 「
않는 아름답고 험기로운 인연으로, 죽기까지 지속되기를」
웃을 이행하면서 끼니와 잠을 아끼 될수록 많은 것을 구:
많은 구경 중에 기막힌 광희로 남은 것은 거의 없다. 만
상았다면 두고 두고 되새겨진 자신이 되었을 걸 정이라면
다. 그리고 나는 친구들은 괴롭이고 살지는 않듯이 나또
한 재간도 없다. 나는 도 닦으며 살기를 바라지 않고 내

글자 윤곽이 정네모틀 안에 한정되어서 보통 네모틀 글자라고 불리는 현행 출판용 한글 활자체의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단점을 요약하면 첫째, 간단한 낭소리와 훌소리 글자를 모아서 모든 소리를 적어 내도록 만들어진 본래 한글 원리와 달리 실제는 소리마다 별의 완성된 글자로 활자를 만들므로 한 벌의 한글 활자 수는 적어도 2300자 이상이 되는 점이다. 이렇게 많은 한글 활자 수와 함께 한자 활자까지 포함되어 활자체 개발에 큰 어려움이 있다. 둘째, 글자 구성에 관계 없이 일정한 정네모틀에 한정되므로 복잡한 구성의 글자는 모양과 크기가 자연스럽지 못하게 되는데, 특히 굵은 활자체일수록 그 정도가 심하다. 셋째, 모든 글자의 균형은 정네모틀의 중심선이 기준이므로 글자들이 가로로 배열될 때 글줄의 균형이 분명하지 못하다. 본래 한글은 세로 배열이 가지런하도록 만들어지고 다듬어져 온 결과 세로 글줄 균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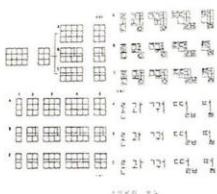
기둥선으로 가지런하게 되었지만 가로 글줄 균형은 이처럼 가지런하지 못하다. 넷째, 정네모틀 활자는 정네모틀 단위로 판짜기를 해야 하므로 판짜기나 지면 배열은 쉬우나 글자 간격이 고르지 않다.

이른바 네모틀 글자와 다른 균형의 한글꼴에 대한 시도는 1960년대 이래로 여러 가지 글자 표현에서 발견되나 이를 처음 이론상 체계화시켜 활자체에 적용한 시안은 1976년 조영제와 1977년 김인철에 의해 제안되었다. 이는 기본적인 낭소리 훌소리 글자만으로 일정한 기준선에 따라 모아 짜도록 하여 특징 있는 글자 윤곽과 가지런한 가로 글줄 균형선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네모틀 글자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코자 하였다. 이러한 원리의 한글꼴을 이른바 네모틀 글자와 비교하여 탈네모틀 글자로 부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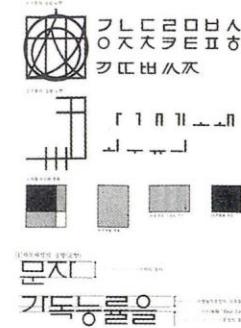
탈네모틀 글자의 시도가 실용화되기 시작한 것은 1984년 샘이 깊은 물

창간호에 소개된 이상철의 “샘이 깊은 물 글씨체”와 1985년 안상수의 “안체”였다. 특히 “안체”는 1988년 일간 신문 스포츠 서울에 표제 활자로 사용된 이래 이제까지 가장 많이 사용되어 온 탈네모틀 활자체로서 현재 글자 굽기별로 계속 개발되고 있다. 이후 구성회의 “보체” 등 탈네모틀 표제용 활자체들이 여러 가지로 발표되고 있으며 탈네모틀 줄거리용 활자체로는 한재준의 “한 9001”, “공·한 세벌체 6” 등이 실용화되고 있다. 네모틀 글자의 문제점에서 출발한 새로운 한글꼴의 시도인 탈네모틀의 방향은 초기의 낯설고 어색함에서 벗어나 점차 낯익은 한글꼴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이제 탈네모틀 글자의 알맞는 쓰임새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벌써 알려진 사실이 되었으나 앞으로의 문제는 여러 가지의 쓰임새에 보다 알맞는 탈네모틀 활자체를 다듬어 가는 점인데 이는 최근 발달하고 있는 컴퓨터

• 조영제의 최초 탈네모틀 활자체 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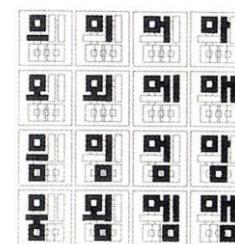


• 김인철의 탈네모틀 활자체 시안



• 이상철의 탈네모틀 활자체 계획

샘이 깊은 물 글씨체



• 한재준의 각종 탈네모틀 활자체

알고 글은 인문 생활의 무기이요, 민족 문화의 연장이다. 무기와 우수한 글자는 전장에서 승리를 얻고, 연장이 남았을 때에는 생존 경쟁장에서 대군을 잃는 것과 같이 편미하고 흥분한 말과 글을 적어 이로서, 능히 그 말과 글의 냇음을 통하여 범위와도 이용하는, 거예는 문화의 히어로임을 이루며, 성령의 즐거움을 누리며, 생활의 번지를 얻는 것이다.

알고 글은 인문 생활의 무기이요, 민족 문화의 연장이다. 무기와 우수한 글자는 전장에서 승리를 얻고, 연장이 남았을 때에는 생존 경쟁장에서 대군을 잃는 것과 같이 편미하고 흥분한 말과 글을 적어 이로서, 능히 그 말과 글의 냇음을 통하여 범위와도 이용하는, 거예는 문화의 히어로임을

이로이며, 생활의 즐거움을 누리며, 생활의 번지를 얻는 것이다.

여기서 사용된 글자체들은 공명하고 밝고 차별화된 3별식 초판 원리로 만들어졌다. 이 연이는 글자체 손취의 혼란이 아니라, 유비의 시각과 회식을 헤悌식하고 한글을 정복하는 데에 그려져 있어서 좋았이다. 글쓰기자신 / 한재준

• 안상수의 각종 탈네모틀 활자체

글이 차듯 빠여 아무래도 비가 올 것 같았다.
선생님과 아이들은 비가 오지 않게 애玷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다.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기도를 해안니까
비가 오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모든 걸 줄어든 마음으로 송을 떠났다.
글이 차듯 빠여 아무래도 비가 올 것 같았다.
선생님과 아이들은 비가 오지 않게 애玷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다.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기도를 해안니까
비가 오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모든 걸 줄어든 마음으로 송을 떠났다.

• 구성회의 각종 탈네모틀 활자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기술의 도움으로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 북한의 한글 활자체

남북 분단이래 북한의 모든 문화적 성격과 마찬가지로 한글 활자체도 그 성격에서 남북간의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다. 일찍부터 순한글로만 쓰고 있는 북한 출판물에 나타난 한글 활자체의 쓰임새를 보면 줄거리용으로 이른바 한글 명조체를, 돋보임용으로 한글 고딕체를 주로 사용하는 것은 우리 출판물에서와 같다. 그런데 우리 교과서에서 외래어 표기 정도에만 사용하고 일반 출판물에서 별로 쓰이지 않는 한글 명조체(한자 명조체와 똑같은 성격의)를 북한 출판물에서는 줄거리용과 돋보임용으로 자주 사용하고 거리의 표지판이나 구호판에도 봇글씨체와 더불어 흔히 쓰고 있는 점이 다르다.

기본적인 글자 구성에서 남북간의 차이점은, 우리 활자체가 이른바 네모틀 글자라 해도 실제 구성에서는 글자끼리의 균형을 위해 정네모틀에서 비교적 벗어나 있는 데에 비해 북한 활자체의 글자 구성은 오히려 정네모틀에 가능한 글자 윤곽을 채우려는 점이다. 이렇게 하면 글자 윤곽은 획일적으로 되더라도 글자들 사이의 크기 균형이 깨어져 서로 들쭉 날쭉해 보이게 되는데 특히 북한의 돋보임용 활자체에서 이런 현상이 심하다.

북한의 줄거리용 활자체인 이른바 한글 명조체는 그 성격에서 일제말의 박경서체와 그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1950년대 이후부터 최정호, 최정순의 주조 활자체와 최정호의 사진식자체로 이어지며 한글 활자체가 다듬어지는 과정과 비슷한 과정이 북한에서는 별로 없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7. 중국, 소련의 한글 활자체

최근 소개된 중국의 우리 말 인쇄,
출판 기술 용어집에 의하면 이들 용어가
대부분 북한의 것을 그대로 “차용”해 온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로 볼 때
기술 용어뿐만 아닌 한글 활자체도
그대로 “차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중국의 한인들이 개발한 한글 전산 활자체를 보면 그 성격 역시 일제말 박경서체의 흐름으로서 북한 활자체와 매우 유사하고 글자의 배열 순서나 완성된 활자의 수 등이 우리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의 한글 출판물에는 소련의 것과 달리 표제 글자로 붓글씨체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대체로 중국과
소련의 한글 출판물에 나타난 한글
활자체는 그 성격이 북한의 활자체들과
거의 같다. ■

- 북한의 각종 한글 글자체

조선어리론문집

어문법도 잘 알아야 합니다. 문법적요구를 잘 지키지 않으면 의 뜻이 달라지거나 이야기하려는 내용을 똑똑히 할수 없습니다.

- 중국의 각종 한글 활자체 및 봇글씨체

제1절 조선족의 우리 나라에로의 이주와 동북수전의 개간

1. 韓國政府의 財政政策

꽃
나
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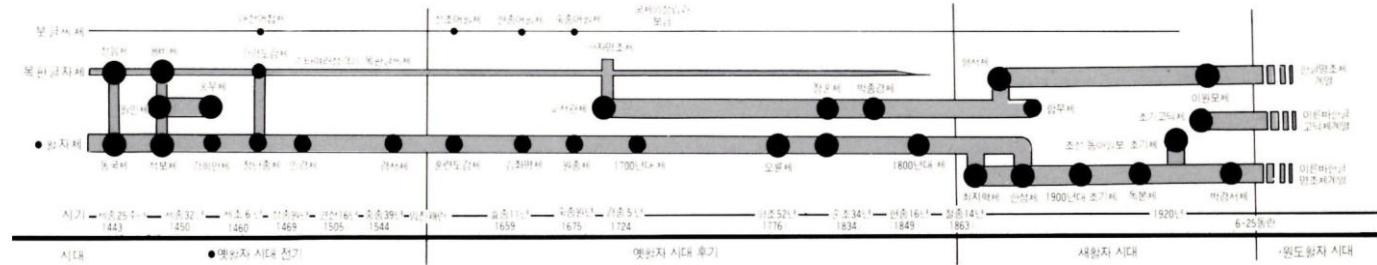
- 소련의 각종 한글 활자체

로조사전

로조사전현찬자들
유.엔.마주르.웨.엠.모즈디코브

사진을 전할 필요가 있어서 전화번호를 미리기록해 전화들을 이용하였다. 사진과 전화번호는 모두 회장과 회장을 부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회장을 찾았습니다. 회장 님의 즐기는 생활방식과 함께 가장 칭찬한 회장은 회장을 봄, 기술, 노동, 예술, 회복 등 각각의 회장을 즐기는 좋은 활동들이었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고판에 회장을 찾았습니다. 회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회장을 찾았습니다.

- 한글 활자체의 흐름도



한글 창제 이념을 계승한 새로운 한글 디자인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석 금 호 산돌룸 타이포그래픽스 대표·단국대 시각디자인과 강사

서 론

우리에게는 지금 산적한 한글 문제가 있다. 한글 전용 문제, 가로쓰기 문제, 자판 통일 문제, 컴퓨터 한글 표준 코드 문제, 완성형—조합형의 문제, 네모틀·탈네모틀 문제, 글자꼴의 저작권 문제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그러나 이 세미나에서는 한글꼴 디자인 문제에 국한시켜 논하기로 하겠다. 이 글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이어질 것이다.

첫째, 현재 사용되는 활자체가 어떤 변천과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으며, 한글 창제 이념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점들이 계승, 소멸되고 변화되었는가? 또 그 문제점과 살려야 할 점은 무엇인가?

둘째, 1970년대부터 등장해 최근에 한글꼴 디자인의 쟁점이 되고 있는 탈네모틀 글자의 가치와 문제점, 그리고 살려야 할 점은 무엇인가?

셋째, 한글 창제 이념에 비추어서 볼 때 네모틀 글자와 탈네모틀 글자는 각각 어떤 점에서 그 이념을 계승했으며 또 어떤 점에서 그 이념을 유실했는가?를 살펴보고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과연 한글 창제 이념을 충실히 계승하고 현대 정보화 시대의 활자 사용 연구에 맞는 새로운 한글 글자꼴 디자인은 가능한가? 그 가능성에 대해 연구하고 본인의 의견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이 논문의 중요성에 대하여

한글 창제 이후 가장 심각한 문제로 뿐만 아니라 한글 전용 문제는 한글을 사랑하는 운동가들과 학자들의 끈질긴 싸움과 1960년대 이후 정책적인 계몽으로

현재는 거의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문제의 해결은 한글꼴 발전을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문제이므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글 가로쓰기 문제는 1978년 리더스 디자이스트 독자 선호도 조사에서 가로쓰기 편집을 응답자 중 64%가, 그 중 30대 이하는 60%가 선호한 결과와 안상수의 가독실험에서 가로쓰기가 19.6%나 빠르게 읽힌다는 증거를 보임으로써 가로쓰기 본문의 문제도 해결되었다. 비록 일간지에서는 여전히 세로쓰기를 포기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그러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중요한 문제가 더 많이 남아 있다. 그것은 컴퓨터와 타자기의 자판 통일 문제, 컴퓨터 한글 코드 문제, 그리고 한글 글자꼴의 다양한 문제들이다. 이 어려운 문제들은 현재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들로 인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더욱 혼돈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답답한 기분까지 들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을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들이 너무나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중요하기에 싸움을 계속하며 시원스럽게 해결되기를 끝까지 기다릴 것이다. 그러면 그 해결의 실마리를 어디에서부터 풀어야 할 것인가? 본인은 그 문제의 실마리는 한글 글자꼴의 구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본다. 그 이해의 근거는 한글 창제의 의도와 근본 이념에서만 찾을 수 있다.

이 글의 주된 목적은 위에 제시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창제 이념에 비추어 한글 글자꼴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구성되어야만 하는가를 밝히는 것이 이러한 중요한 한글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또한 논문의 제목과 같이 과연 한글 창제 이념을 계승한 새로운 한글꼴 디자인이 가능한 것인가도 밝혀질 것이다. 이 논문의 중요성은 여기에 있다.

2. 현재 사용되는 네모틀 글자꼴에 관하여—명조체를 중심으로

본인이 기존의 명조체를 중심으로 다루는 이유는 현재 대부분의 글자꼴 연구와 컴퓨터 폰트 제작이 네모틀 글자인 명조체 사진식자를 모델로 삼아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명조체는 1960년대 일본으로부터 사진식자기를 수입해 오면서부터 광범위하게 활자문화를 지배해 온 글자꼴이다. 이 활자체는 고 최정호가 만든 것이다. 이 활자의 꿀을 이루는 원리는 “한글 타이포그래피란 주판알같이 똑같은 크기로 써야 한다. 더욱이 한 자 한 자가 지닌 개성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된다”라는 그의 고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말은 다음과 같이 분석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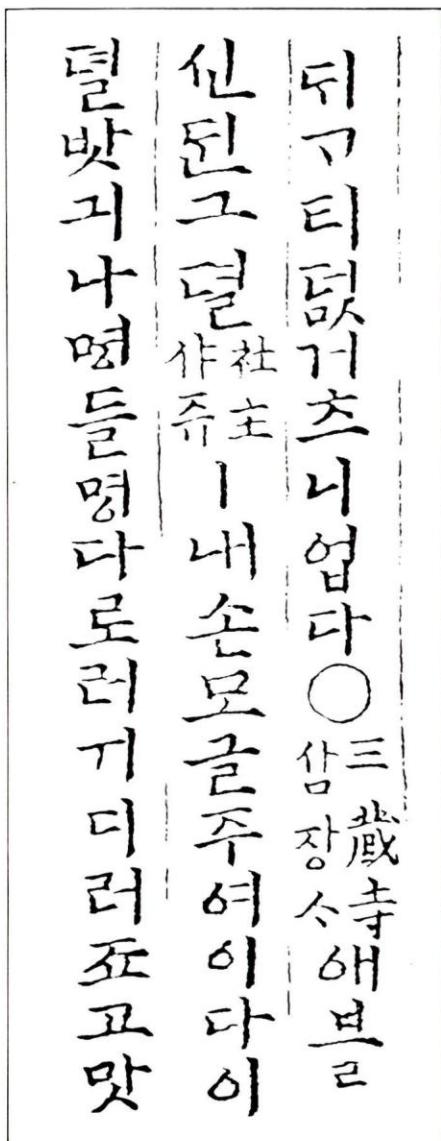
- 1) 시각 기준과 무게중심을 가운데 맞추어야 한다. (마치 주판알의 중심이 가운데 있는 것처럼)
- 2) 각 낱글자들은 각각 정확한 정사각형 안에서 쓰여져야 한다. (주판알이 규칙적인 공간을 차지한 것처럼)
- 3) 각 글자의 크기는 모두 동일한 크기로 보여야 한다. (주판알의 크기가 일정한 것처럼)
- 4) 한글은 담자, 홀자로서의 개성보다

모여진 상태에서 한 글자로서의 개성을 더 중시해야 한다.
(한 자 한 자의 개성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된다)

이상을 보면 기존 명조체의 꼴을 이루는 원리가 분명히 드러난다. 그 공식을 다시 정리해 보면, (기하학적인 정사각형의 틀) + (모든 낱 글자를 동일 크기로) + (글자를 이루는 원리나 조형면에서는 완성형으로) = (명조체)이다.

기존 명조체는 완성형을 원칙으로 만들어졌다. 여기서 현재의 한글 자판 통일 문제, 한글 표준 코드 문제가 왜 해결될 수 없는지 그 원인이 분명히 드러난다. 그 문제의 원인은 위에서 제시한 공식에 맞추어 제작된 명조체를 기준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기

〈그림 1〉악장가사
중종~명종(1506~1567년) 간행 추정 목판본.



때문이다. 이 명조체의 공식을 탈피하지 않는 한, 한글 표준 코드 문제도 자판 통일 문제도 한글의 다양한 글자꼴 개발 문제도 결코 해결될 수 없다고 본다. 명조체 공식을 가지고는 두벌식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고 한글 표준 코드를 완성형으로 주장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므로 이 명조체를 그대로 복사하여 자모를 분석, 조합형으로 만드는 기존 컴퓨터 업계의 방법은 한글을 거꾸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조합형으로 만들려고 시도했던 것을 포기하고 다시 완성형으로 가고 있는 문제의 원인도 여기에 있다. 기존 명조체를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하려면 차라리 완성형으로 쓰는 것이 옳다.

완성형으로 만들어진 글자를 조합형으로 풀려는 의도 자체가 얼마나 모순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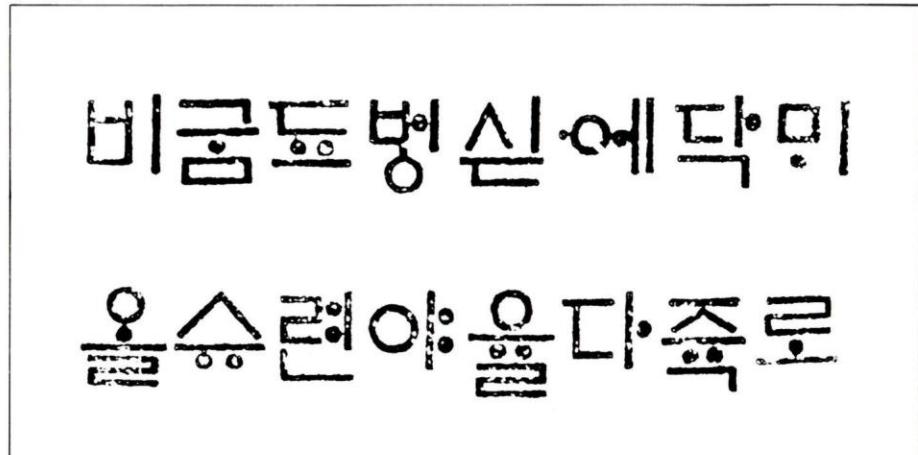
그렇다면 과연 기존 명조체 공식이 한글 창제 이념을 충실히 반영하여 계승된 글자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언급하기로 한다. 여기서는 다만 기존 명조체는 과연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된 글자인가? 그리고 현재 여러 사람에게 지적되는 문제점들과 본받을 만한 점들은 무엇인가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기존 명조체의 기원을 안상수는 1600년 이후에 나타났다고 보았다. 김진평은 그의 논문에서 1700년대 말 정조때에 그 틀이 형성되었다고 했다. 그래서 명조체는 정조체로 불리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인은 명조체의 기원을 1500년대 악장가사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그림 1).

이 의견들은 명조체가 오랜 세월을 거쳐서 변천되어 온 역사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이 기존 명조체의 위치를 확고히 해 주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된다. 그러면 현재 사용되는 최정호의 명조체가 왜 동일 정방형의 네모틀 안에서 쓰여지도록 재정되었을까? 몇 가지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나올 수 있다.

- 1) 한글 창제때부터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러나 사실 창제 당시의 한글은 동일동형의 네모틀은 아니었음)(그림 2)
- 2) 한자의 영향이다. 한자를 병행하여 쓸 수 밖에 없었던 문제로 인해 일본이 만든 한문꼴 틀에 한글의 형태를 끌어 맞추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 3) 한글 조합방식 자체가 가로조합, 세로조합, 또는 가로세로 혼합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사각적 통일을 가장 쉽게 줄 수 있는 방법이 동일한 네모틀 안에 넣어서 해결하는 것이었다.
- 4) 네모틀을 벗어날 절실한 이유가 없었다. (네모틀을 벗어날 이유는 현대에 와서 활자를 생산하는 도구가 필기도구에서 기계, 즉 타자기 및 컴퓨터로 바뀌면서 요구되기 시작했음)
- 5) 습관, 즉 이제까지 모든 사람들의 조상들도 그렇게 사용해 왔다. (가장 강력한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근거임)
- 6) 가로쓰기와 세로쓰기 양편 모두 무리 없이 사용하려면 동일 정방형 글자가 아니면 불가능했다.
이상과 같은 이유들 때문에 현재의 명조체는 주판알 공식으로 제작되었으며 이제까지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그림 2〉



3. 새롭게 등장하는 탈네모틀 글자꼴에 관하여

기존 주판알 공식의 네모틀 완성형 글자에서 전적으로 탈피한 새로운 조형의 탈네모틀 글자꼴은 글자를 만들어내는 도구가 필기구로부터 기계로 바뀌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겨났다. 한글을 타자기에서 만들어 내려면 첫닿자와 홀자, 그리고 받침닿자를 분리해서 각 한글식 최소의 자모를 자판에 올려야만 가능했다. 그 이전까지는 닿자와 홀자를 분리, 조합하여 글자를 쓰고 만들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탈네모틀 글자를 처음 시도한 사람은 공병우 박사였다. 1950년대 그는 3별식 한글 타자기를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탈네모틀 글자를 처음 선보였다(그림3). 그 다음에 시도한 사람은 조영제였다. 그는 한글 글자꼴의 가장 기본적인 공간 배분 연구와 최소 단위의 기본 자모만으로 모아쓰기를 시도하여 한글꼴의 기능적 개발의 가능성을 제시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연구는 그 후의 연구자들에게 네모틀 탈피 글자꼴 개념을 정립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그림 4). 김인철은 알파벳의 기준선에서 착안하여 한글의 기준선을 만들어 아래쪽에서 들쑥날쑥하게 하여 가독성을 높이고자 시도했다(그림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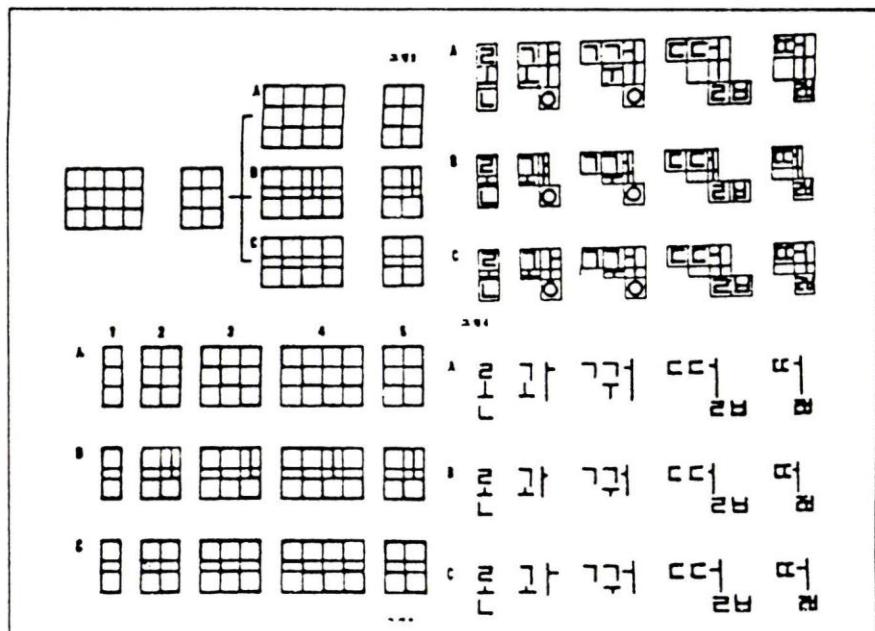
이런 실험 단계를 지나 직접 탈네모틀 글자가 실용화된 것은 이상철의 “샘이 깊은 물”체와 안상수의 “안체”이다(그림 6,7). 그 중 “안체는 받침을 모음의 중심에 놓는 규칙이 다른 탈네모틀 글자와 구별된다. 이 방법은 앞에서 든 조영제의 시도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그 후에는 필자를 비롯해서 한재준에 의해 글자꼴이 개발되어 출판물에 사용되고 있다(그림 8,9). 이 탈네모틀 글자의 등장은 자판 통일과 완성형, 조합형 문제에 관련해서 새로운 쟁점의 동인이 되고 있다. 또한 기존 네모틀 활자체와 비교하여 반발과 호응의 이중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그러면 탈네모틀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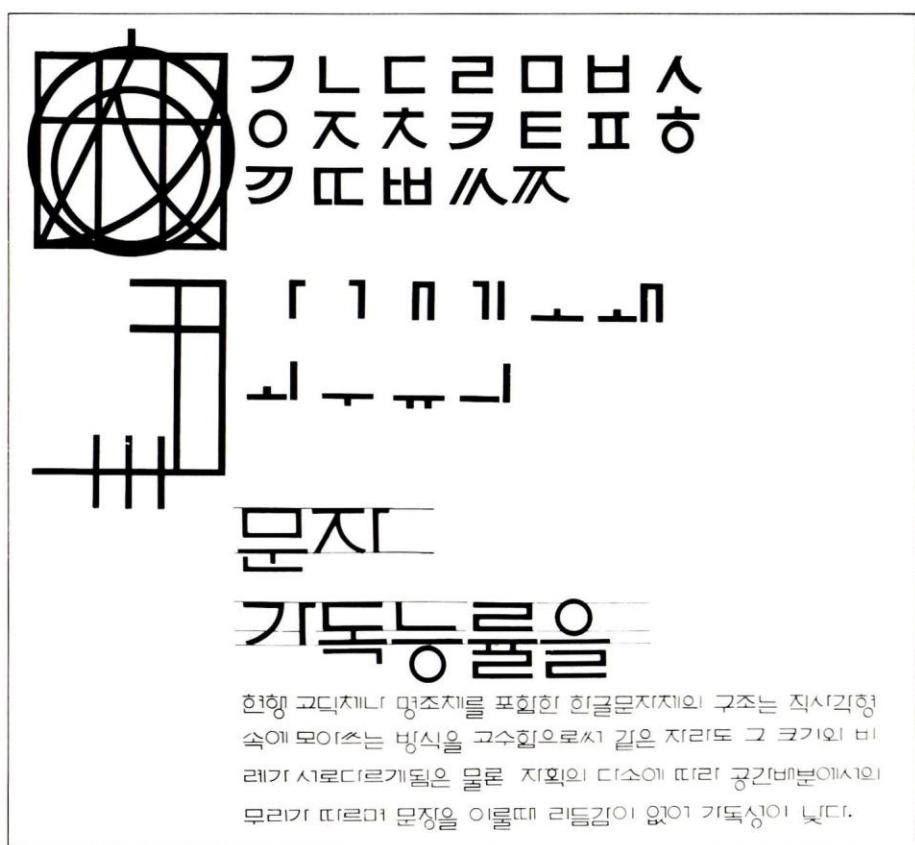
1) 글자 도구의 변혁에 따른 필연적인 시대적 요구이다. (붓과 연필 대신에 훨씬 능률적인 타자기와 컴퓨터를

어제는 한겨례신문 188년 11월 29일자를 반갑게 받았습니다. ‘펙시’의 위력을 다시금 실감 했읍니다만, 거기서 선생님의 활동 사항을 읽고 기쁨을 금할수 없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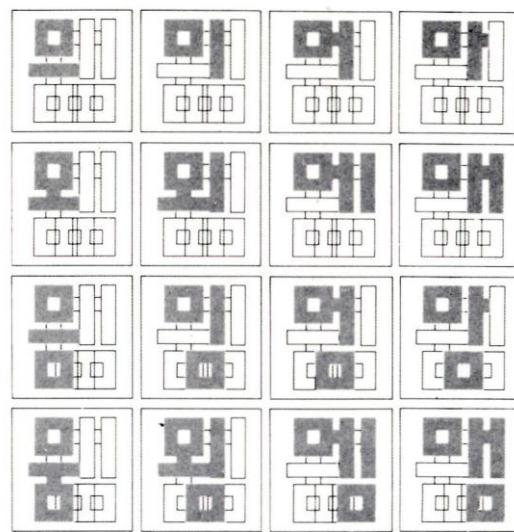
<그림 3>공병우의 타자기 글자꼴(195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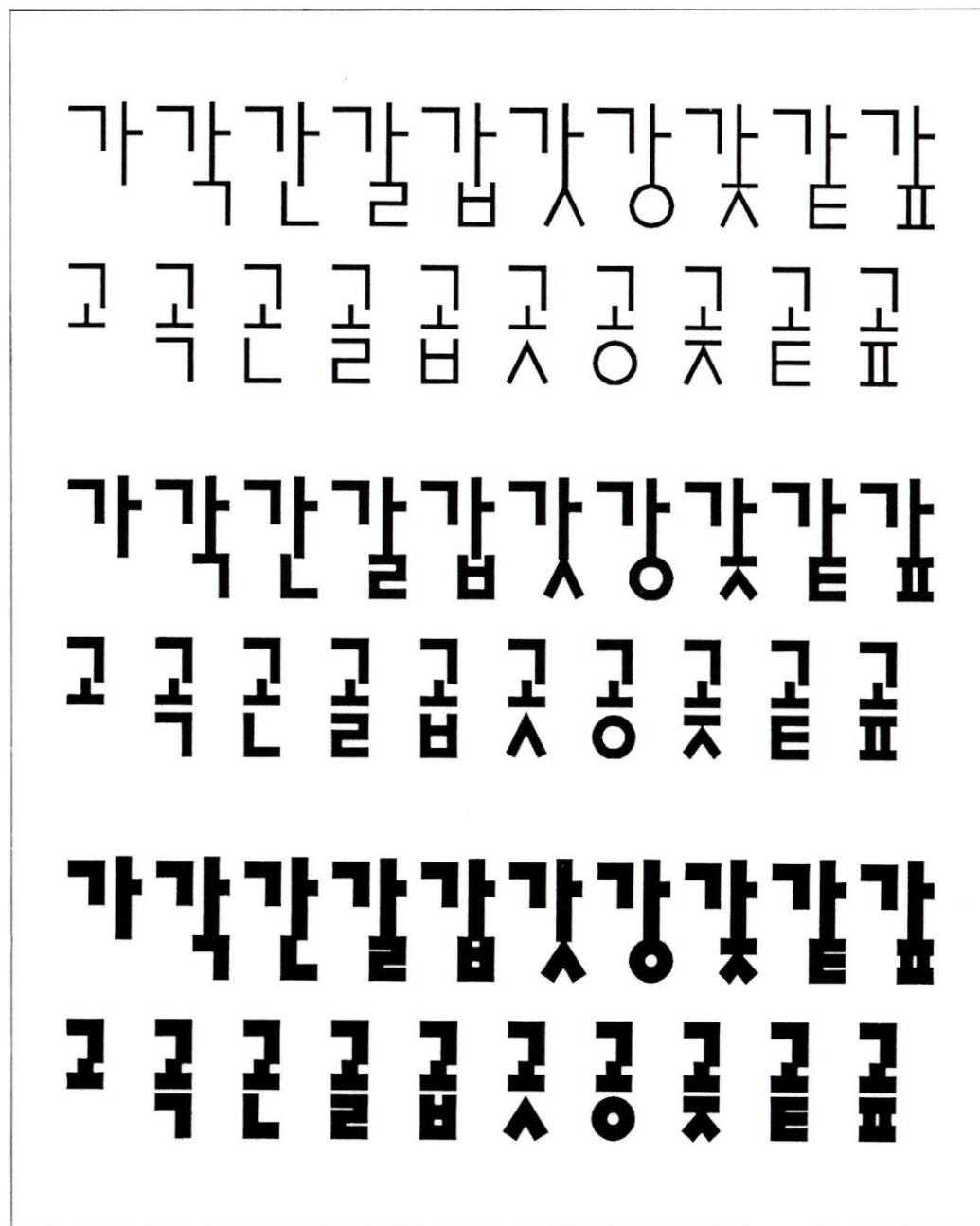
<그림 4>조영제의 탈네모틀 모듈(1976년)



<그림 5>김인철의 탈네모틀



〈그림 6〉
이상철의 “샘이 깊은 물”체



〈그림 7〉안상수의 “안체”(1985년)

실터선교회를 찾으면 먼저 나무결이 아름다운
큰 미송나무대문이 눈에 뜨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환희의 문이라는 작은 문패가
찾는 이를 인상적으로 맞이합니다.
이곳이 바로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 지친
영혼이 쉼을 얻는 곳, 실터입니다.

〈그림 8〉석금호의 산돌체(1987년)

아름다운 서울 조선일보 한국일보
한겨레신문 한글 그래픽 디자인전
문화부 한국의 정원 경복궁 창경궁
일러스트레이션전 백두산 이야기
세종대왕 한글창제 글자의 산업화

〈그림 9〉한재준의 “한9001”체(1988년)

사용하려면 최소한의 자모만을 사용해야 가능.-첫닿자 19자, 홀자 14자, 받침닿자 27자)

2) 정보교환의 시간성, 일관성, 편리성 때문이다. (시간성 : 자모가 단순할수록 빠른 속도로 정보교환이 가능하다.

일관성 : 단순할수록 기계간의 호환도가 높다. 편리성 : 단순할수록 기계를 다루기가 편리하다.)

3) 한글 글자꼴의 기준선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닿자 홀자가 어떤 글자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므로 다양한 활자체를 쉽게 개발할 수 있다.

4) 글자 자체의 판별력에 도움을 주어 습관을 들이면 가독성에 도움을 줄 여지가 많다.

이상과 같은 주장으로 탈네모틀 글자는 점점 사용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 본문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가독성 문제와 어느 정도 미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앞으로 계속적인 사용과 실험을 통해서 가치와 문제점이 드러날 것이다.

4. 한글 창제 이념에 나타난 한글 글자꼴의 원칙들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한글로서 인간에게 가장 쉽고 정확하게 식별되는 가장 단순한 형태를 지닌 기호를 가지고서 음의 가치를 표현한 것은 세계적인 문자 혁명이었다. 훈민정음에 나타난 한글 글자꼴은 한자의 봇의 감각으로 이루어진 부드러운 글자체하고는 완전히 대비되는 기하학적인 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글의 기하학적인 형태는 가장 강한 질서를 가져 규칙적이고 단순하며 명쾌한 조형적 감각을 유발시킨다. 또한 신체 발음기관을 음양오행적으로 분리, 분석 연구하여 천연에 가까운 소리를 재현 시키려고 한다. 이것은 세계 문자사상 그 유래가 없는 대혁신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언어학자인 매카트 박사는 “만일 세계 여러 나라의 민족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글자로서 민족의 우월성을 측정한다면 한글을 가진 한국 민족이 가장 훌륭한 문화 민족일 것이다.”라고 평가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한글꼴을 디자인할 때나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 창제 원리를

무시한다면 곧 한글의 높은 가치를 격하시켜 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글로서의 특징과 가치는 그 순간부터 사라진다.

그러면 훈민정음에 나타난 한글 창제 이념과 구성원리를 찾아보자. 한글 창제를 처음 발상, 한글이 연구하고 완성되기까지 집현전 학자들을 감독한 세종대왕은 훈민정음 예의(例義)의 서두에 기록한 서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 사람마다 하여금 쉬이 익혀서 날마다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날마다 쓰기에 편하게 할 따름”이란 이 말은 한글의 창제 이념을 한마디로 농축한 것이다. 한글은 첫째로, 가장 중요한 그 원리를 무엇보다 “사용하기에 편리함”에 두었다. 세종대왕은 한글을 미적 가치보다 기능에 우선적 가치를 두었다는 말이다.

둘째, 한글은 소리글자이면서 자수를 적게 해야 한다. (여기에서 자수는 담소리와 홀소리의 수를 의미한다. 이 원칙은 백성이 깨우치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함에 그 근거를 둔 것이다. 그리고 우리말의 음가의 표현이 시각적으로 단순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기록한 말소리는 담소리(자음)와 홀소리(모음)로 분간되어야 한다. (이 원리는 분명히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시각적으로 명백하게 분간되어 보이도록 해야 할 뿐 아니라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말이다. 이 원리는 훈민정음 해례의 집현전 학자 정인지 서문에서 보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정음〉… 스물 여덟자를 가지고 전환이 무궁하고 간단하고도 정묘하고도 두루 통하느니라…”¹⁰⁾

집현전에서 한글창제의 핵심 학자였던 정인지는 한글을 정의하기를 “스물 여덟자를 가지고 전환이 무궁하도록”, 즉 자음과 모음만을 가지고 무궁무진한 글자를 만들어 내는 글자라고 했다. 그래서 자음과 모음이 그 모양새와 쓰임새가 간단하고 요긴하며 정묘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므로 한글을 완성형으로 보고 완성형으로 만들어 2350자로 제한시키는 것은 이미 한글 창제의 원리를 상실한 글자로 만든 것이다. 또 정인지은 한글의 스물 여덟자를 가지고 전환이 무궁할 때 비로소 두루 통하는 글자가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두루 통한다는 말은 사람끼리 뿐 아니라 오늘날에 와서는 기계에서도 두루 통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자판 통일 문제의 실마리도 이 창제 원리로부터 풀어나갈 때 해결될 수 있다. 이상에 언급한 세 가지는 많은 창제 원리 중에서 꼴(모양), 사용(쓰임새)에 대한 규정만을 뽑아 정리한 것이다.

그러면 좀 더 깊이 들어가 훈민정음 해례의 합자해에 나타난 담소리와 홀소리 조합 규정에 대해 살펴보자. 합자해의 첫 문장은 “첫소리, 가운데소리, 끝소리, 세소리(삼성)가 합하여 글자를 이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각 소리를 규정하는데 그 모양은 다음과 같다.

1) 첫소리(첫닿자)는 혹은 가운데 소리 (홀자) 위에 있고, 혹은 가운데 소리의 원쪽에 있느니라.

2) 가운데 소리의 둘째 글자(·)와 가로펴진 글자(— 는 고 ㅠ)는 첫소리의 아래 있고, 세로 펴진 글자 (ㅏ ㅓ ㅑ ㅓ ㅕ)는 첫소리의 오른쪽에 놓는다.

3) 끝소리 글자는 첫소리 글자, 가운데 소리 글자의 아래에 있느니라.

이상 한글 자음 모음의 합자례 규정에서 살펴보면 첫째로, 첫자음과 모음과 받침 자음은 각각 분리해서 사용되어야 하며 둘째로, 첫자음과 모음과 받침자음은 각각 별도의 규정된 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원리에는 한글을 어떤 특정한 네모틀에 넣어서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또한 받침의 정확한 위치, 즉 첫자음 아래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모음 아래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 중앙에 위치해야 하는지 정확한 규칙이 제시되지 않았다. 오히려 창제 당시의 의도는 자음과 모음 가운데 자리에 놓는 것처럼 보인다(그림 10). 그러나 이 받침의 위치는 1600년대 말 송강가사에서부터 오른쪽 홀자쪽으로 불기 시작했다. 이것은 세로쓰기 필법을 사용함으로써 나타난 결과이다.

오늘날 명조체의 모든 받침이 모음 오른선을 기준으로 맞추게 된 것도 여기에서 기인되었다. 탈네모틀 글자 중 하나인 “안체”는 받침을 모음의 중심으로

<그림 10> 받침 위치의 변천

년대	책 이름	세로모임 받침글자	가로모임 받침글자	
창제당시 1440년대	훈민정음 원본	홑분몰	갈김낱	받침이 가운데 자리에 놓였음
	세종어체 훈민정음	흡총정	밍칭병	
1680년대	송강가사	솔풍름	칠권팔	모음 기둥 기준선 아래로 놓여지기 시작함
1960년대 이후	최정호의 명조체	글용을	한전말	모음 기둥 기준선 아래로 정착됨
1970년대 이후	안체	곰돌	던멸빔	모음 기둥 중심에 놓임

옳기는 시도를 하였다. 한글 창제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어느 것이 정확하게 옳다는 증거가 없다.

모든 위치가 가능하다.

이상 한글 창제 원리에 나타난 한글의 꿀과 쓰임새에 대한 규정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한글은 사용하기에 편리함, 즉 기능을 대원칙으로 하였다.

2)닿소리와 홀소리의 수를 작게 해야 한다.

3)음가의 표현은 시각적으로 단순해야 한다.

4)닿소리와 홀소리와 받침은 각각 명확하게 보여야 하며 서로 조합해서 무궁무진한 글자를 만들어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5)사람끼리나 기계끼리도 두루 통하도록 해야 한다. (호환성)

6)한 글자를 반드시 동일한 네모틀 안에 넣도록 규정되지 않았다(그림11).

7)받침의 위치는 자음과 모음 아래 어느 쪽에 위치하라는 규정이 없다.

위에 제시한 일곱 가지 한글 창제 원리는 한글꼴 디자인 문제와 자판 통일 문제 그리고 완성형·조합형 문제를 풀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므로 의미가 있다. 한글 글자꼴 디자인도 한글 창제 원리를 충분히 반영할 때 한글 다운 한글을 사용할 수 있다.

5. 창제 원리에 입각한 네모틀, 탈네모틀 글자꼴에 대한 비판

현재 사용하는 동일동형 네모틀 글자이며 완성형으로 만들어진 명조체가 한글의 활자체의 모델로 인정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역사의 흐름에 따라 서서히 자연적인 변천의 결과이다. 이것을 무시할 수 없다.

2)기존 시대 일반인들의 미감이 충분히 반영된 글자이다.

3)이미 오랜 세기 동안 익숙하고 친근해진 글자이므로 보기에도 편할 뿐 아니라 빨리 읽을 수 있다. 기존 네모틀 글자가 이러한 확고한 위치에도 불구하고 현대에 들어서 기존 네모틀 활자체는 심각한 문제성을 지적받고 있다. 그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1)글자꼴에 있어서 동일 동형의 네모틀 글자, 즉 주판알 공식 활자는 한글 창제 이념과 원리를 상실한 것이다.

2)완성형으로 만들어 글자 표현이 제한되며 불편하다. (2350자)

3)판독성과 가독성이 낮은 글자이다.

4)글자꼴 조형적 발전에 지장이 많다.

5)기계끼리 호환성을 갖기가 어렵다.

6)글자기계값이 비싸져서 한글 보급을 어렵게 한다.

이상에서 볼 때 기존 명조체 글자꼴은 한글 창제 원리에서 강조된 기능성 면에서 심각한 취약점이 있다.

근래에 사용되기 시작한 탈네모틀 글자는 첫닿자 19자, 홀자 21자, 받침닿자 27자, 도합 67개의 최소의 자모를 조합하여 만들어진다. 이 탈네모틀 글자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1)정보화 시대에 글자쓰는 도구의 변화에서 필연적으로 생긴 글자이다.

2)닿자와 홀자 그리고 받침 닿자를 각각 조합하여 11,172자를 만들어 낼 수 있다.

3)한글 디자인 부담이 적어도 8배 이상 줄어든다.

4)한글기계 제작과 사용이 용이하다.

5)자판을 쉽게 통일할 수 있다.

6)판독력과 가독성에 도움을 줄 여지가 많다.

탈네모틀 글자는 네모틀 글자에 비해 주로 쓰임새, 즉 기능면에서 강력한 장점을 가진 기능 위주의 글자이다. 그러므로 한글 창제 이념에 훨씬 더 충실한 글자는 탈네모틀 글자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탈네모틀 글자도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받고 있다.

1)기존 미감에 거슬려 거부감을 느낀다.

2)글자 아래 부분이 심하게 들쑥날쑥 하므로 글자가 과격하게 보인다.

3)닿자와 홀자의 수를 단 1벌만 사용하므로 활자의 미세한 균형을 바로

<그림 11>

온승련야을다죽로

훈민정음에 기록된 한글도 지금과 같은 의미의 네모꼴 글자가 아니었다.
도리어 탈네모틀 글자 조형에 가깝다.

잡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 4) 글자에 따라서는 네모틀 글자보다 가독성이 떨어진다.(주로 받침이 없는—모음글자체열)
- 5) 첫닿자, 홀자, 받침 닿자의 자리를 기계적으로 지켜야 하기 때문에 시각적 원리들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 예 1) “한”的 경우 “하”와 받침 “ㄴ”이 “ㄹ” 받침일 때보다 많이 떨어져 보임

- 예 2) “교”자에서 “ㄱ”기둥과 “교”的 줄기가 겹치므로 판독성에 치명적인 문제 발생

이상을 볼 때 기존의 60여개의 자모를 가지고 조합되는 탈네모틀 글자는 기능면에서는 뛰어나지만 주로 모양새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사람들의 미학적 기준, 즉 미감각이 현재 탈네모틀 글자를 받아들여 주기만 한다면 사용하고 만들기에 탈네모틀 글자보다 우수한 한글은 없다. 그러나 서적의 본문용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제시된 문제점들이 반드시 해결되어야 더욱 그 실용성과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6. 결론

이상의 분석을 통해 볼 때 네모틀 글자는 익숙한 글자이지만 주로 활자의 쓰임새, 즉 기능에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으며 반면에 탈네모틀 글자는 기능상으로는 한글 창제 원리에 가장 접근한 글자이지만 들쑥날쑥한 모양새와 몇몇 글자가 조합되면서 생기는 판독성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예 : 너, 교) 그러나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볼 때 기존의 완성형 네모틀 활자보다는 조합형 탈네모틀 활자가 훨씬 창제 이념과 원리에 가까운 글자임에 분명하다.

그러면 모양새와 쓰임새가 잘 조화된, 그러면서도 창제 원리를 그대로 계승한 새로운 글자꼴을 가능한 것일까? 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다섯 가지로 제안하고 마치고자 한다.

첫째 : 기존 완성형 네모틀 활자는 역사적 미적 가치를 인정하고 그대로 완성형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 대신 3벌식 자판으로 입력하여 이미 저장된 완성형 활자를 불러내는 방법을 쓸 것이며 이 완성형 글자의 자모를 분석하여 거꾸로 글자를 만들어 나가는 방법은 없어야 한다.

둘째 : 이제부터 글자꼴 개발은 지금까지 네모틀 글자의 형태나 조형을 불문율로 여기던 것에서 전적으로 벗어나야 한다. 이 방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한글 사용과 발전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셋째 : 현재 등장하는 최소한의 자모로 글자를 만들어 내는 탈네모틀 활자는 기능면에서 가장 단순하고 뛰어나지만 자모 1벌만으로서는 해결되기 어려운 활자의 미세한 조형미 문제와 시각 혼동을 일으키는 몇몇 글자의 가독성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본문용 글자로 사용할 수 있다.

넷째 : 그러나 무엇보다도 컴퓨터와 정보기기의 한글 자판과 코드 통일을 위해서 충분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글 표준 코드표가 확정되어 알파벳 글자의 아스키 코드표처럼 보급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이다. 본인은 이상의 연구결과를 근거해서 한글 표준 코드표로 첫닿자, 홀자, 받침 닿자를 각 한 벌씩만을 가진 모아쓰기 글자로 할 것을 진적으로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본인은 한글 창제 이념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기존 명조체와 탈네모틀 글자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절충형의 한글 활자꼴을 제안한다. 그것은 첫닿자, 홀자, 받침 닿자의 합한 수가 약 180개로 된 모아쓰기 글자꼴이다. 이 글자꼴은 한 벌로만 된 탈네모틀 활자에서 해결할 수 없었던 “교”자나 “녀”와 같은 시각 혼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지나치게 들쑥날쑥한 글자 밀선이 훨씬 완화되며 기존의 탈네모틀 글자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기능들을 살릴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첫자음 + 모음 + 받침자음을 각 한 벌씩으로 한 모아쓰기 글자보다 기능적인 글자는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 제안의 목적은 기존 완성형 사진식자체를 500—600개의 자모로 분류하는 방법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

〈표 1〉글자 형태별 분석표

구 분	네 모 틀	탈네모틀	탈네모틀 절 충 형
조합방식	완성형	조합형	조합형
자판별수	2벌식	3벌식	3벌식
사용가능 글자수	2350자	11,172자	11,172자
자모수	2350개	63개	약 180개
미적 수용도(현재)	●	▲	●
기계적 적용도	×	●	▲
글자꼴 디자인 용이도	×	●	▲
가독성	▲	▲	●
정보전달 용이도	▲	●	●
본문선택 선호도	●	?	?

● : 유리함

× : 불리함

▲ : 우열 가리기 어려움 ? : 미 확인

예식과 설교

〈그림 12〉석금호의 탈네모틀 절충형 활자 견본(1988년)

참 고 서 적

김진평 : “한글의 글자표현”, 1983.

박종국 : “훈민정음”, 정음사, 1982.

송기덕 : “한글서체의 변화과정 연구”, 홍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8.

송 현 : “한글 자형학”, 1986.

원경인 : “한글의 글자꼴에 따른 판독성과 가독성에 관한 연구”

홍대 산미대학원 석사논문, 1990.

안상수 : “한글 디자인의 과제” 예술과 비평, 창간호, 1984.

이병근 : “한글의 장단점”, 사담, 1986.

최정호 : “나의 경험 나의 시도”, 꾸밈.

최현배 : “글자의 혁명”, 정음사, 1956.

한재준 : “정보화 사회에서의 한글디자인 연구”, 대유공전 논문11집, 1989.

탈네모틀 한글꼴의 시도와 한글 글자꼴 연구에 대한 몇 가지 제안

안상수 안그라픽스 대표

본인은 그 동안 탈네모틀 글자에 대해 연구하고 몇 가지 글자체를 디자인 해왔다. 여기서는 탈네모틀 글자를 왜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것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해 그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논하겠다.

글자

글자는 그것을 얘기할 때 쓰여지는 몇 가지 단어에는 기호, 상징, 암호 등이 있다. 그러나 글자는 이러한 단어와는 틀리며, 우리의 생활의 일부이고 우리의 직접적인 표현대상이며 우리의 메시지를 실어 나르는 하나의 매체이기도 하다.

글자는 그것을 사용하는 그 나라 그 민족의 총체적 미감의 가장 단순화된 표현으로 각 나라의 글자를 보면 그 나라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글자에 민족성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글자의 형태는 그 민족이 가지는 집단적인 미의식의 가장 단순화된 형태이며, 역으로 이미 만들어진 글자의 모양이 그 민족에게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이렇듯 글자꼴은 중요한 것으로 아름다움이나 치기만으로 디자인해서는 안되며, 신성한 대상이다. 우리는 이러한 글자의 원리가 어떻게 발전되었는가 그리고 다음 세대에 물려줄 글자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글자의 발달요인을 2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집단적인 미의식과 도구로 그 2가지가 자연스럽게 작용해 발달한 것이 정조체이다. (정조체가 정조시대에 나타난 것으로 정조체로 부르자는

김진평 선생님의 주장에 의거)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신 뜻

세계적으로 문자는 신성해서 사람이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고, 한글을 제외한 어느 문자도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불가사의한 것이다. 확실히 세종대왕은 성군이셨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신 기본적인 개념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적인 독립의 표상

우리 글을 만드는 것 자체가 놀라운 발상으로, 중국에 대한 문화 독립적인 표상으로 만들어져 훈민정음 중에서 한글체가 한자를 제압하듯이 울뚝불뚝한 글자체를 나타냈고, 한자는 거기에 묻힌 듯한 느낌을 준다.

2. 단순한 형태, 남성적 형태, 추상적 기하학적인 모양, 현대적인 형태를 갖고 있다.

3. 과학적·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만들어졌다.

혀·입·이빨의 모양은 달자를, 하늘(天)·땅(地)·사람(人)은 홀자를 만들었다.

탈네모틀 글자

1) 장점

○기능적이다 — 한글의 어문학적 특성에 맞다.

한글은 애초에 분리해서 만들었다. 즉, 한글은 옹근글자로 만든 것이 아니라 만들 때부터 자소로 만들어졌다. 탈네모틀 글자는 이러한 한글의 창제 원리에 충실한 글자이다.

○기독성이 높다.

기독성에는 심리적인 면과 생리적인 면이 있는데 네모틀 글자에 익숙하고 친근한 것은 심리적인 면 때문이다. 이것은 시간이 극복한다. 탈네모틀 글자는 위 아래로 울뚝불뚝하기 때문에 글자꼴 자체의 생리적 판별력이 높다.

○기계화가 용이하다

자소가 적어서 컴퓨터의 경우 기억 용량을 최대 1/10까지 줄일 수 있다.

○경제적이다.

○원도 디자인의 부담이 적다.

○글자꼴 개발이 활발해진다.

누구나 나도 할 수 있다는 의욕이 생긴다.



훈민정음(세종28년(1446) 간행. 목판본)

- 문화적 독창성이 기대된다.
- 기능이 완전해짐에 따라 한글 자랑이 완벽해진다.
- 한글의 어문학적인 자랑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한글체 개발이 가능해진다.

한글에 있어 최정호씨 등은 한글을 본격적으로 현대화한 세대이고 우리세대는 더 논리적이고 열개, 즉 구조적인 파악을 하는 데 차이가 있다.

그러나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 변화의 계기를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책무이다.

(2) 단점

- 습관 미감에 맞지 않는다.

네모틀 글자

(1) 장점

- 일반인들의 기호에 맞는다.

(2) 단점

- 한글 원도를 2,300여자를 마련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시간과 노력이 크다.
- 기계화가 불편하다.
- 글자 생산가격이 높아진다.
- 글자 획수의 다소에 따라 공간배분에 무리가 생긴다.

안상수체의 경험

안상수체는 자소를 24자에서 출발했고, 모든 자소가 고정된 자리를 갖고 있다.

1. 인체는 마당체에서 비롯되었다.
2. 글자제작에 있어서 구조적인 파악이 가장 선행되어야 한다.
3. 받침이 훌자 밑 중앙에 온다.
4. 안체의 해체, 이상체의 탄생
5. 새로운 구조의 발견을 위한 실험
6. 글자체 정착을 위한 보급방법 연구

탈네모틀에 대한 관심

1. 원형적인 형태를 추구한다.
본질을 파악하는 것에 의의를 가졌다. 가장 원형적인 형태와 구조를 구한다면 그것은 미래를 위한 출발점일 것이다. 돌기를 변형하고 부분적으로 장식화시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탈네모틀에서 안상수체와 이상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가 있으리라는 가정하에 새로운 글자꼴을 만드는데 대한 원초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

2. 글자는 유기체이다. 그러므로 글자는 진화한다.
글자는 이제까지 변해왔으며 지금도 변하고 있고 앞으로도 변할 것이다. 한글은 28자에서 24자로, 영문은 16자에서 26자로, 한자는 간자로 혹은 약자로 변해왔다. 그리고 글자는 발음의 표상이므로 발음의 변화에서도 변한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글자꼴의 어떠한 변화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한글 글자체의 창작세계는 무한하다고 보면, 그 범위는 실험에 의해 개척되고 확장할 수 있다고 믿는다.

결론

글자꼴은 하루 아침에 변하지 않는다.

제 안

1. 남북 공동연구 제안

한글 형태에 대한 연구는 한민족 공통의 것이다. 글꼴모임의 이름으로 한글 글자꼴에 대한 남북한 공동 세미나 및 연구모임을 제안한다. 민족통일을 내다보며 우리는 서로가 개발하고 사용하는 글자꼴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한편, 한글 문화 발전을 도모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2. 활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해야 한다.

한글 글자 디자인 발전은 글자체에 대한 저작권 보호로 그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곧 한글 활자체가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보아 이를 촉구한다.

3. 국립 국어연구소에서도 한글꼴 연구를 해야 한다.

한글 글자꼴에 대한 연구는 그간 국어 관련 계통에서는 소외된 일이다. 국어연구소에서도 한글 글자꼴에 대한 연구부서가 설치되어 정부 차원의 지속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월, 일은 잡지의 날
제25회 잡지의 날 기념식
제24회 한국잡지언론상 시상식』**

안체(1985)

**나-_-_- 이 ㄱ-_-_-자-_-_-
마-_-_- ㄱ-_-_-나-_-_-
이-_-_- ㅅ-_-_-가-_-_-애-_-_-다-**

이상체(1990년)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의 한글

—국어정보학회의 할 일

유 경 희 국어정보학회 회장·한국데이터통신 연구위원

1. 머리말

컴퓨터 기술의 발전과 통신 기술의 보급이 정보통신산업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우리 글이나 우리 말이 이러한 새로운 정보매체를 타게 됨으로서 지금까지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에게 던져 주고 있다. 아직도 우리 글의 로마자화에 있어서 기계화·전산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방법이 표준화가 되어서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가 하면, 한글의 컴퓨터 부호가 조합형이나 완성형이나의 논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한편, 한자를 우리 글자로 고려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의 원칙이 아직도 정해지지 않아서 국제표준기구(ISO)가 추진하고 있는 “다중 옥텟 도형문자부호”에 뚜렷한 우리의 입장을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한글자판이 타자기, 텔레스, 컴퓨터 등의 용도에 따라서 기능이 다르며 심지어는 정부의 관장부처가 모두 달라서 혼란을 거듭하고 있으며 이의 재론에 관한 유타가 여러 곳에서 분출되고 있다. 그리고 한글 워드 프로세서의 통일이 대단히 시급한 일이라는 요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오늘의 주제인 “한글의 글자꼴”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 어디에 있으며 이를 위한 문제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나름대로 생각하여 보기로 하겠다.

2. 한국공업규격(KS)과 국제표준(ISO)

현재로 국제표준화 사업에 있어서도

정보기술(정보처리) 분야의 표준화의 시급성으로 인하여 기존의 표준화 활동에 비하여 어마어마하게 사업량이 늘어났다. 전체 국제표준에 있어서 컴퓨터 관련 표준화의 업무량이 6할~7할이나 될 정도로 폭주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전문가의 부족현상을 절감하고 있다.

특히 ISO의 제97분과위원회(정보처리)와 IEC의 정보기술분과위원회가 유사한 일을 각기 표준화하느니 합동으로 추진하자는 안이 결의되어서 ISO/IEC 제1공동위원회(JTC1)을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국제표준화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이 가운데는 여나문 개의 소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나라에는 4개 소분과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을 뿐이다. 적어도 여기에만은 전적으로 참여하여 신기술개발의 최신정보를 얻어 내는 그러한 활동이 필요하다.

최근에 문제가 된 한글 한자코드에 관한 문제도 JTC1/SC2/WG4에서 발생된 것인데 속칭 DP-106460이라고 부르고 있다. 마치 미국의 법조문이 우리나라에서 말썽이 되는 경우와 비슷하다. 우리가 한자를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관한 확고한 우리나라의 입장이 정해져야 한다.

한편 ISO/TC46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도큐멘테이션” 분야로서 우리의 문화정책과 특별히 관련이 깊다. 그런데 아직도 이 분야의 국내위원회가 없는 형편이다. 여기에서는 “정보검색방법”을 위시하여 “국제단행본 일련번호”, “국제축차간행물 일련번호” 등의 국제표준을 제정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한번도 여기에 참여한 일이 없다. 외국의

책자나 잡지류의 표지에 적혀 있는 ISBN이나 ISSN이 모두 이러한 국제표준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여기에 가맹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된 셈인지 모르겠다. 바로 여기서 어느 독일인이 오래 전부터 “국제표준악보 일련번호” 방안을 제안하여 조만간에 ISMN이라는 번호가 붙여지게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고전음악은 여기에 포함시킬 것인지 아닌지에 대하여서도 진작 연구를 했었어야 하지 않을까? 뿐만 아니라, 문자세트에 관한 문제, 각국 문자의 로마자 표기법 문제도 모두 여기서 다루고 있는데 이를 체계적으로 다루는 연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에 앞서서 미리 정해 두어야 할 것은 우리나라에서 한자를 정말로 배제할 것인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한자를 취급할 것인가 등을 먼저 확정하여야 한다. 어정쩡한 입장에서 국제표준화에 참여하기가 정말로 어렵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쓰는 글자의 숫자는 몇 자인가에 대한 정확한 회답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모르고서 국제표준을 기할 수 없다. 한글의 조합형과 완성형에 관한 논쟁은 그 다음이라도 좋다. 다만, 조합형으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국제표준을 지향해서 노력하여야만 한다. 바로 이것이 한글의 국제화·세계화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국제표준기구의 요구에 의하여 제기된 문제가 첫째, 한글 로마자 표기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둘째, 한글 코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셋째, 한자 코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이다. 국내에서 스스로 제기된

문제가 없이 모두가 외국에서 제기된 문제에 현재 우리가 짤짤매고 있는 셈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공업규격을 KS로 제정하고 있는데 그동안 벌써 230여건의 표준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현재 이들의 보급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조만간에 KS에 관한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우리의 글자에 관한 것, 우리의 말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좀더 폭넓게 참여하여 제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날까지는 몇 명의 자원봉사자 전문가에 의한 심의로서 진행되었으나 좀더 폭넓게 심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3. 우리 글 우리 말의 당면문제

이미 대강 나열하였지만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당면문제를 다루어 보기로 하겠다.

(1) 한글 로마자 표기법에 관한 문제

이미 4년째 ISO에서 다루고 있는 남북한의 각 안에 대한 통일문제는 아직도 완전한 결말이 나지 않고 있으나 추정컨데 내년 5월에 남북한 의견 통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것은 언어학자와 컴퓨터학자의 의견조정이 사실상 더 어려운 과제였다고나 할까… 전사법(Transcription)과 전자법(Transliteration)과의 차이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일으키고 장단점을 너무 쉽게 말해 버려서 더욱 혼란이 되었었다. 언어학의 기본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계화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컴퓨터 과학자들의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다.

적어도 로마자화된 우리 글을 그대로 전송할 때 스스로 자동 모아쓰기가 가능하도록 꾸며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도로표지판에 쓰여지고 있는 “매린 라이샤워” 방식은 전사법이라서 기계화하기가 무척 어렵게 되어 있다는 것도 아울러 일러 둔다.

(2) 한글 한자 코드에 관한 문제

이 문제는 한글문자의 세트(조합형인가 완성형인가라는 문제와는 별도로)를 확정하여야 하며 또한 아울러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한자의 세트도 정해야 한다는 과제에 당면하고 있다. 여기에 국내에서 발생된 조합형의 소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 조합형의 수용, 소요 한자의 수용, 옛글자의 수용 등 코드의 수요가 2바이트 환경에서 감당 못할 정도가 되었다. 한글의 미래를 위하여 그리고 한글의 세계화를 위하여 강력한 연구팀의 결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3) 한글 자판에 관한 문제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몇 가지의 한글 자판이 존재하고 있다. 어느 것을 선택하고 교육해서 보급시켜야 할지에 관해서는 표준규격의 제정이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자판의 기능에 관한 의견 중 이른바 3벌식 기능에 관한 의견도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것에 앞서서 타자기, 텔레스, 컴퓨터 등의 한글 자판의 기능 정의를 먼저 내려야 할 단계에 있다고 본다.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된 타자기의 한글 자판, 체신부가 제정한 텔레스에 관한 한글 자판, 공업진흥청이 제정한 KS 한글 자판 등 3가지를 별개의 행정부처에서 관리 관장하고 있다. 이것이 문제이다. 먼저 이 세 가지를 하나로 통일을 하면서 어떻게 과학화를 할 것인지를 다루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필자 스스로는 현행의 규격에 대하여 할 말이 많으나 현재의 상태에서 아무리 소리높여 외쳐도 소용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4) 한글의 글자꼴(서체) 예

기계장비가 다루는 글자꼴이라면 광학식 폰트와 디지털 폰트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다.

흔히들 사진식자를 하는 글자꼴을 일컬어서 광학식이라 하고, 컴퓨터의 기억장치 속에 글자꼴을 가로 세로로 몇 등분하여 점으로 글자꼴을 나타내게 하는 것을 디지털 폰트라고 한다. 최근에는 디지털화를 아주 용이하게 하는 기계도

등장하였지만 아직도 문제가 되는 것은 디지털 폰트라고 할 수가 있으며 광학식도 정말로 웃어 넘길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미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폰트 은행을 대규모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것이 국제화가 되도록 애를 쓰고 있다. 바로 이러한 영향으로 ISO의 DP-10646의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따지면 폰트 문제에서 코드 문제로 비약한 것이다. 한글의 폰트만큼은 우리 손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폰트 은행에 담아둘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5) 한글 워드 프로세서의 통일 문제

오늘날 이미 컴퓨터로 글을 쓰는 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무슨 워드 프로세서를 익힐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것이 아니다. 메이커의 강력한 판촉에 휘말려서 그들의 워드 프로세서를 쓰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기종에 따라 호환성이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듣건데, 이미 20여종의 워드 프로세서가 있다고 한다. 더욱이 글쓰는 인구가 더 늘기 전에 하나로 통일을 하는 조치는 선진제국의 경우와는 다르다. 이것만은 좀 무리가 있더라도 통일시켜야 한다고 본다.

4. 국어정보학회의 할 일

지난 7월 4일에 언론회관에서 “국어정보학회”가 발족되었다. 여기에서 국어정보학회가 할 일에 관하여 여러 차례 모임을 가지고 의논을 하였는데 여기서 논의된 할 일은

- (1) 한글로마자 표기법에 의한 통신 방식의 개발
 - (2) 한글 한자 코드
 - (3) 한글 폰트
 - (4) 한글 자판
 - (5) 한글 워드 프로세서
- 그밖에도 여유가 있으면
- (6) 기타항목에 패턴인식, 음성인식, 인공지능 등도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 여기에 뜻밖에 강력히 다루도록 요구된 것이

- (7) 국학 데이터 베이스
(8) 전자사전 등을 위한 연구분과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다.

10월중에 4~5개 분과위원회가 결성될 것이며 각 분과에서는 가장 민주적인 방법을 통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반영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추진할 것이다.

국어정보학회는 “우리 글의 전산화, 우리 말의 정보화”를 모토로 삼고 우리 국어의 현대화·세계화를 위하여 연구, 표준화 등에 관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5. 맷음말

우리 글 우리 말의 정보화라는 주제와 우리 글 폰트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약간의 거리가 있다. 다만 국어정보학회의 연구활동의 일부로서 한글 폰트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 두어야 하겠다.

글자꼴을 만드는 것은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이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저작권”으로서 보호를 받을 것인가가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 같다. 공업소유권으로 고려하느냐, 아니면 일반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아직도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안다. 지적소유권에 관련되는 국제기구에 특허청이 가입하겠다고는 하나 이것이 일반 예술작품에 관해서도 여기에서 다루어야 할텐데 과연 당사자가 만족할 만한 국내 조치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가 문제일 것이다. 원래 지적소유권은 먼저 공개함으로써 그 권리를 보호받는 것이다. 그러나 공개와 더불어 바로 표절당해 버리는 우리의 현실이 창작자의 의욕을 꺾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나 법적인 장치도 문제려니와 자세한 보호조치는 정말로 창작만큼이나 어렵다.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등록절차, 공개절차를 정확하게 마련한 다음 이를 보호하도록

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글자의 폰트에 관하여서는 창작자가 글자를 순수예술품으로서 볼 것이 아니라 “대중의 수용성”(Public Acceptability)을 더욱 중시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러 있는 듯 하다.

우리의 문자와 언어를 정보화함에 있어서 창작하는 사람, 시스템을 만들어서 상품화하는 사람, 전문가, 이용자 등 모든 사람이 적극 참여하여 연구하는 분위기가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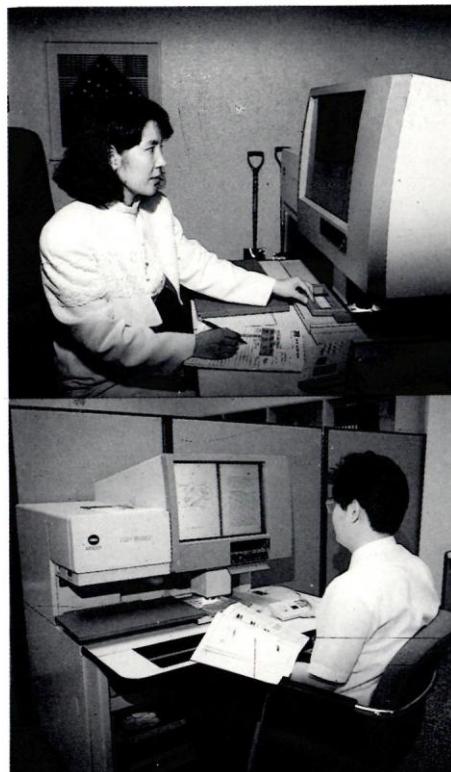
한글날을 맞이하여 미래의 한글은 어떻게 생겼을 것인지 미리 짐작하고, 어떻게 생성되고 가공되고 전달되고 하는지는 종래의 방식과는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고 그 원래의 뜻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본다. 그래서 새로운 시각으로 한글을 조명하여야 한다고 본다. 즉, 한글의 과학화, 한글의 세계화를 지향하는 그러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영상자료실 이용 안내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자료실은 디자인·포장전문 자료실로서 지난 20여 년 동안 수집해온 국내외 디자인·포장관련 도서들이 소장되어 있으며, 모든 분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신설된 영상 자료실은 도서 자료를 통한 정보 전달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슬라이드·비디오 테이프·마이크로 피쉬·마이크로 필름 등 첨단 영상 자료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열람 서비스 안내

열 람 료 : 무료
열 람 시 간 : 평 일 09:30~17:30
토요일 09:30~12:00
자료복사 : 실비 복사
휴 관 일 : 국경일·공휴일

소장자료

— 국내외 디자인·포장 관련 자료 —

- 전문도서, 정기간행물
- 참고 및 주변도서
- 카다로그, 마이크로 필름
- 마이크로 피쉬(석·박사 학위논문)
- 슬라이드, 비디오 테이프 등

문의

정보자료부 자료실, 전화 762-9137

■ 질의 응답

한글 글자꼴 세미나의 발표가 끝난 후 발표해주신 유경희, 안상수, 석금호 선생님을 모시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김진평 선생님은 개인 사정상 참석치 못하고, 대유공전 광고디자인과 전임강사인 한재준 선생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여기에는 질의 응답된 내용을 간추려서 소개하고자 한다. 질의 응답시간에는 한글 글자꼴 개발 방향과 표준화 문제, 저작권 문제 등 한글에 대한 다각적인 문제점들이 토론되었다.

● “1벌식, 2벌식, 3벌식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3벌식은 한글을 첫자음과 모음, 받침 3개로 나누어 보는 것으로 한글의 창제 원리를 그대로 따른 것이고, 2벌식은 첫자음과 받침 자음을 같은 것으로 보아 구분하지 않는 것으로 모음과 자음으로만 분리되는 것입니다. 즉, 컴퓨터 자판에서 ‘ㅂ’과 ‘ㅣ’를 치고 ‘ㄱ’을 치면 ‘벽’이 되고 다시 ‘ㅏ’를 치면 ‘비가’가 됩니다. 또한 1벌식은 한 자 한 자가 완성형으로 된 것을 말합니다.” (석금호)

● “현재 국내에 개발된 서체 종류는 몇 종이나 됩니까?”

— “현재 만들어져 있는 사진식자체는 Family를 1종으로 보면 10종 정도인데 시각적 원리가 제대로 적용되어 쓸 수 있는 글자체는 명조체·고딕체·그래픽체 등 3~4종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시각적 원리에 맞지 않고 글자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개발된 헤드라인체 중 몇 종은 쓸만한 것들입니다.” (석금호)

● “한글서체 개발시 소요되는 비용과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한글서체 개발시 소요되는 비용이나 기간은 완성형 글자체일 경우와, 컴퓨터로 63개 정도의 자소로 조합식 글자체를 만들 경우와, 100~200개의 자소로 절충형의 조합형 글자체를 만들 경우에 따라 가격과 기간이 차이가 나며,

완성형 글자일수록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나 한글은 모든 이가 대중적으로 편하게 써야 하므로 너무 비싸진다면 한글 창제 원리에 벗어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석금호)

● “개발된 서체의 저작권 시행 여부와 저작권 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십시오.”

— “우리 나라에서 지적소유권에 관련되는 법으로는 저작권법과 특허법이 있고, 과기처의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이 있습니다. 특허법에서 발명특허, 실용신안, 상표, 의장특허가 있으나 저작권법은 아직 세부세칙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개발한 것을 공개함으로써 자기에게 부여되는 특권을 저작권이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공개하면 바로 표절되기 때문에 공개를 두려워 하고 있고 등록절차 또한 까다롭습니다.

현재 개발하는 측이 영세해 등록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단체 플레이이나 회사 차원의 플레이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회사 차원에서 등록할 경우는 실시권이 문제시 되기도 합니다.

현재 등록을 하려 하면 할 수 있으나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제도를 탓하기보다는 단결하는 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경희)

● “학습참고물의 편집디자인상, 본문의 경우 사용되는 기존의 글자체의 문제점과 천편일률적인 타이포그래피의 개선방향 및 절충형 한글꼴의 사용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일본의 경우, 타이포그래피가 국민의 건강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므로 국민학생용 교과서에 사용하는 글자체, 급수, 행간을 정해서 법으로 지키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 경우는, 아직 그렇지 못합니다. 교재용 글자체로는 네모틀 글자의 문제점과 탈네모틀 글자체의 시각적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절충형의 글자체를 사용하면 좋겠으나 그것은 아직 제안에 불과하므로 사용하는 데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실험과 과학적 데이터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기존에 쓰던 습관이 잘못된 것이면 과감히 개선하는 결단이 필요하나 충분한 실험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석금호)

● “새롭게 개발한 글자꼴을 볼 때마다 글자꼴뿐 아니라 구두점, 컴마, 코롱 등 부호의 디자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호의 디자인 역시 그 글자꼴의 특수성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연구하고 계신지요?”

— “하나의 글자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특수 기호의 디자인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폰트개념으로 글씨뿐 아니라 점이나 가로까지도 이루어져야 하고 그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글자꼴을 개발하는 데 있어 거기에까지는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실정입니다.” (석금호)

● “한글 창제 원리에 따른 탈네모틀 글자의 개발이 시도되고 있는 현재, 그 시도는 좋으나 현재 우리는 매체 등에서 네모틀 글자와 한자가 병행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의 개발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탈네모틀 글자에 맞는 한자나 알파벳, 숫자의 개발을 병행하는 것이 어떨까요? 가능하겠습니까?”

— “탈네모틀 글자와 한자는 서로 격에 맞지 않습니다. 패턴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한글전용론은 한글 그것 그대로를 발전시키고 완성형이나 네모틀 글자 역시 수명은 길지 않을지라도 그것 그대로 경제적으로 제작하는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많은 이들은 한자가 눈에 들어오면 확실히 이해가 빠릅니다.

혁명적인 변화는 위험하며 서서히 맞추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만약에 탈네모틀 글자에 알맞고 이해하기 쉽고 속독력이 좋은 한자꼴 개발이 가능하다면 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경희)

— “한글은 한글 나름대로 개발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능한 중요한 일이라 →P42

생각하며 이것이 정착되어 보편적으로 쓰이게 되면 그때 가서 그에 맞는 한자를 개발해도 된다고 생각됩니다.”(석금호)
—“저는 한글 전용을 전제로 글자 개발을 하고 있으며 언제가는 우리가 한글 전용을 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자혼용 등은 한글을 위한 한글 개발 뒤에 생각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한재준)

● “현재 컴퓨터에 있어 글자체의 호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서체 개발이 이루어져도 실제로 호환해 사용할 수 없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요?”

—“우리나라는 1982년 N byte를 일단 KS로 정하고 1987년 행정전산망 구축이 시급해지자 KSC-506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완성형으로, 조합형도 함께 쓸 수 있게 했으나 이것의 코드 체계가 메이커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조합형을 KS로 할 것인가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형을 전부 수용하면 11,172 자이고, 도서관계와 출판계에서 요구하는 한자가 35,000자, 국어학자들이 요구하는 고어가 8,000자로 이 모든 것을 수용하려면 50,000자 정도의 글자 영역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행정전산망으로 만든 PC는 30,000자가 들어갈 수 있으므로 어느 것을 포함시킬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해결책으로는 2 byte 16 bit 환경에서 모든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므로 Multi Octet Graphic Character Code를 만들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금은 한글 2,350자와 한자 4,888자를 합쳐 8,000자 영역으로 국제 표준에 제시했습니다.

행정전산망을 만들 때는 폰트는 생각지 못했으나 현재 신문·출판계에서의 수요가 커져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폰트의 표준화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현재 20여종이나 되는 워드 프로세서의 표준화로 이 문제 역시 시급합니다.

또한 폰트 제작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므로 어떠한 기계라도 그 폰트를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폰트 백크를 만들어야 하며, 코드

표준화·폰트 표준화를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유경희)

● “‘안체’에서 종성이 중성의 아래 위치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하셨는데 그 역사적인 논리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홀자 밑에 반침이 와야 한다는 것의 역사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늘 한글의 구조가 과학적 논리적이라고 생각해왔고 원리란 가장 간단하고 명쾌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홀자 밑 중심에 받침이 오는 것은 안체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반침의 위치를 보면 공병우 타자체의 경우 받침이 왼편으로 치우치며, 가로 모임의 경우 균형이 맞지 않고, 본인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글자의 중심은 약간 오른쪽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네모틀 글자의 경우 좌우의 벨런스를 맞춰 작가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위치에 받침을 놓고 있고, 안체의 경우는 홀자의 정중앙에 받침을 놓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홀자는 우리나라 글자의 축, 즉 시각적 축으로, 홀자의 중앙에 받침이 오는 것이 우리나라 글자의 특성을 가장 간단히 설명하는 단순한 원리입니다.”(안상수)

● “2벌식, 3벌식 조합형의 가독성이 높다는 설명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형태별 변별이 쉬워 판독은 용이하나, 같은 크기 글자에서 전체적인 글자 크기는 작아지고 여백은 넓어지며, 크기에 의한 가독성이 떨어지거나 같은 지면에 담는 정보의 양이 적어져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안체’의 경우 최근 원경인씨의 “한글 글자꼴에 따른 판독성과 가독성에 관한 연구”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그러나 판독성은 높게 나타났는데, 모든 글자가 높은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라는 글자의 경우 변별공간의 폭이 좁아 앞으로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독성이라면 가독성(Legibility), 이독성(Readability), 가시성(Visibility)을 말하는 것으로 ‘안체’는

가독성과 가시성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안체’ 등 새로운 글자꼴의 본문체가 완벽하게 개발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은 단지 부분적인 시도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지면에 얼마나 많은 정보가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되며, ‘안체’의 경우 글자가 작아지면 글자 하나 하나의 개성이 강해져서 가독성이 커지고, 획이 가늘어지면 변별공간의 문제도 회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가독성이 높지 않은 것은 심리적인 반복효과가 적기 때문이며 같은 실험 결과도 오늘날과 5년 후, 10년 후가 달라지리라고 생각됩니다.

가독성이나 경제성에 대한 문제점들은 이미 지적된 바가 있고 앞으로 보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안상수)

● “끝으로 결론을 맺어 주십시오”

—“최근에는 점차 멀티 미디어화되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면 위에만 한정 시켜서는 안됩니다. 종이 위의 디자인이 잘 되고 가독성이 있는 글씨 제작에 아니라 멀티 미디어화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멀티 미디어화되면 매체는 HDTV(고선명 TV)가 될 것이므로 고선명도 TV 속에서 우리 한글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연구해야 합니다. 이제는 종이 일변도로만 생각하지 말고 화면 속에서 한글 사이즈는 어떻게 해야 할까 등 멀티 미디어를 위한 한글의 표준화를 위해 정보시스템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 한글 글자꼴을 개발하는 사람은 또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유경희) ■

컴퓨터 응용디자인 교육안내

1. 교육일시

가. 기초교육(I) : '90년 11월 12일(월) ~ 11월 30일(금) (매일 14:00~17:00)

나. 기초교육(II) : '90년 12월 3일(월) ~ 12월 21일(금) (매일 14:00~17:00)

2. 장소 : 한국디자인포장센터 2층 컴퓨터 교육장

3. 수강료 : 250,000원

(할인 : 20%) 가. 센터 등록디자이너, 디자인·포장 정보이용회원(사), 포장관리사

나. 1개 업체에서 5명 이상 신청시

다. 대학생 및 대학원 재학생

4. 첨가접수마감

가. 기초교육(I) : 1990. 11. 9 (금) 까지

나. 기초교육(II) : 1990. 11. 30 (금) 까지

5. 수강신청방법

가. 참가신청서와 참가료 동시 접수 (센터 내방)

나. 센터 내방이 어려울시는 아래 은행계좌로 수강료를 온라인 입금시키고, 신청서와 입금증 사본을 센터로 우송 또는 FAX로 신청

*한일은행 : 107-03-010079 *상업은행 : 112-01-212081

*국민은행 : 031-25-0000-533 *FAX : 745-5519

6. 문의처 : 서울 종로구 연건동 128 (우) 110-460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진홍부 교육연수과

전화번호 : 742-2562/3

7. 컴퓨터 응용디자인 교육일정

일자	시간	분	과정명	강의내용
11/12	14:00~14:50	50	개강 및 오리엔테이션	컴퓨터 그래픽 개요
	15:00~17:00	120	컴퓨터 개론	컴퓨터 그래픽 필요성 및 향후 동향 메인토시 시스템 개요 작동 방법
11/13	14:00~14:50	50	컴퓨터 그래픽시스템 소개	시스템 특징 및 해설 도구설명 및 실습
	15:00~17:00	120		
11/14	14:00~14:50	50	컴퓨터를 이용한 2차원	시스템 특징 및 해설
	15:00~17:00	120	그래픽(I)	도구 설명 및 실습
11/15	14:00~14:50	50	~면을 중심으로	패턴디자인, 로고디자인 등 제반 기능 메뉴의 활용법
	15:00~17:00	120	(Pixel Paint)	
11/16	14:00~17:00	180		응용기법 및 작품해설
11/19	14:00~17:00	180		실습
11/20	14:00~14:50	50	컴퓨터를 이용한 2차원	시스템 특징 및 해설
	15:00~17:00	120	그래픽(II)	도구 설명 및 실습
11/21	14:00~15:30	90	~선을 중심으로	패턴디자인, 로고디자인 등 제반 기능
	15:50~17:00	70	(Adobe Illustrator)	메뉴의 활용법
11/22	14:00~17:00	180		응용기법 및 작품해설
11/23	14:00~17:00	180		실습
11/26	09:00~17:00	360	작품제작(*)	응용 및 작품제작
11/27	09:00~17:00	360		
11/28	09:00~17:00	360		
11/29	09:00~17:00	360		
11/30	14:00~16:00	120	평가 및 수료식	작품평가 수료식
	16:20~17:00	40		

*1인 1대 교육을 위하여 작품제작과정 (4일) 교육시간은 •A반 : 90:00~12:00(3시간)

•B반 : 14:00~17:00(3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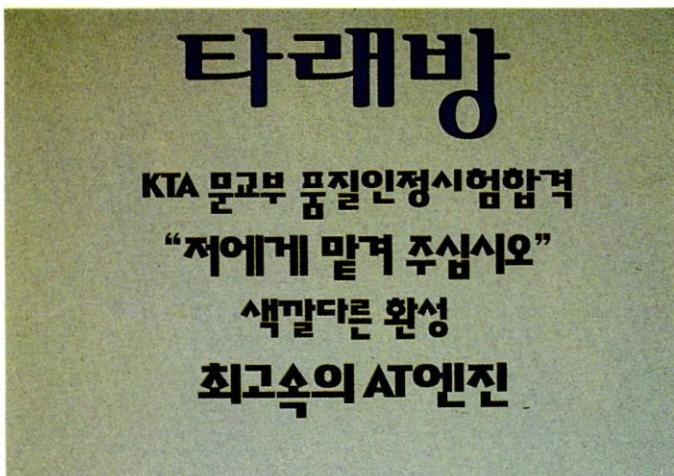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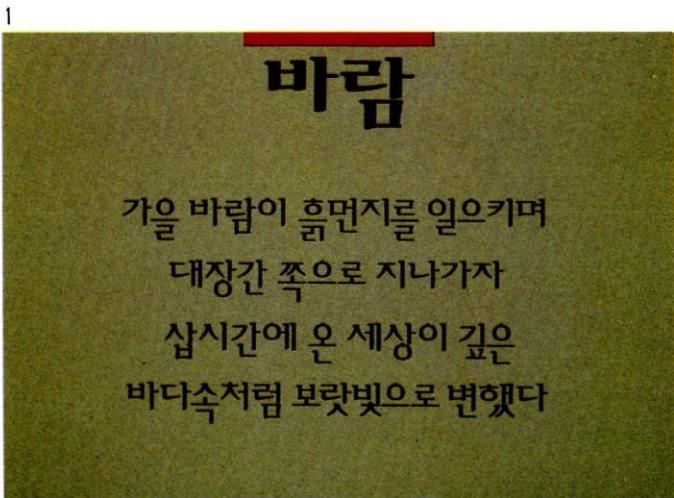
아름다운 한글 : 글자체 600년전



아름다운 한글:
글자체 600년전

한글창제 544돌을 맞아 「아름다운 한글 : 글자체 600년전」이 지난 10월 9일부터 15일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이 전시회에서는 한글 활자체의 역사가 해설·도판·고서적과 함께 설명되었고, 아름다운 한글 표현 추천 작품이 전시되었다. (편집자 주)



활자 활자 활자 활자 활자

참고우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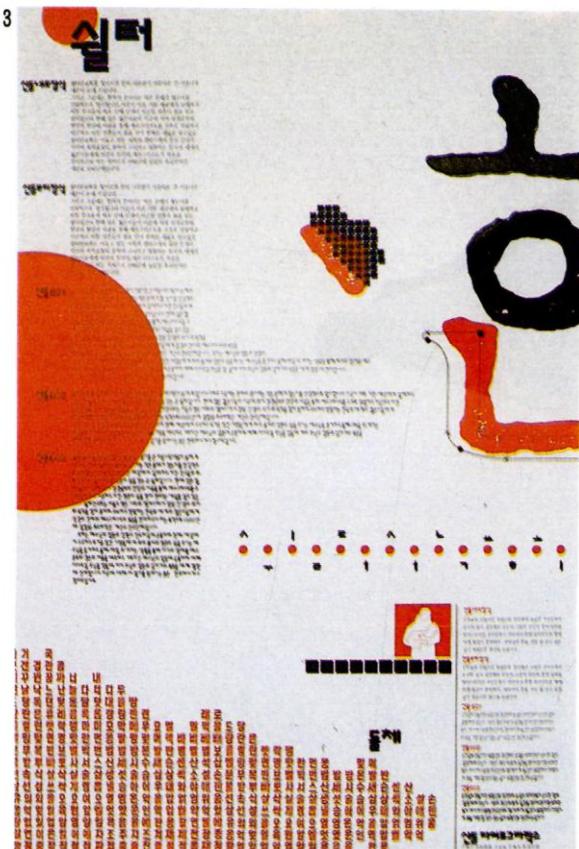
참고운활자

참고운활자

참고운활자

참고운활자

1. 구성희
2. 김진평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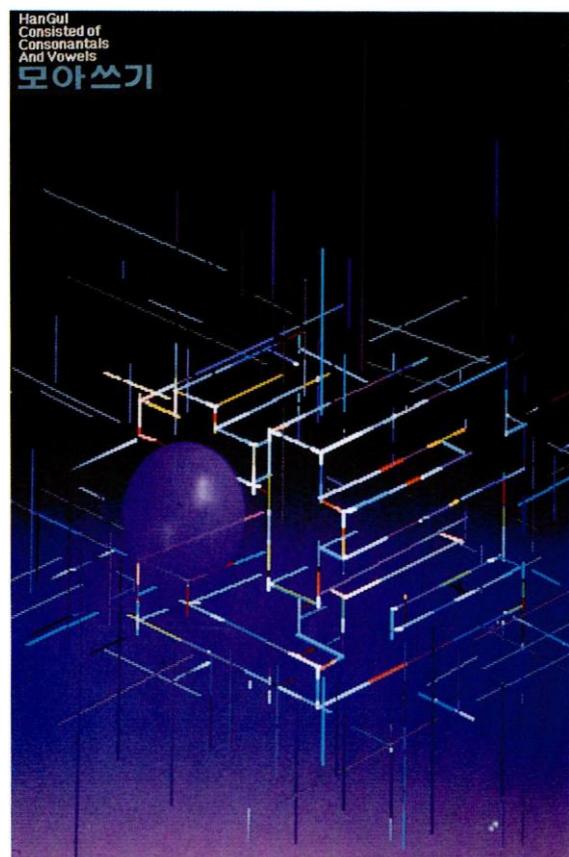
흥민정을 혜혜의풀이

천지자연의 소리가 있으면 반드시 천지자연의 글이 있다.
옛 사람이 소리에 의하여 글자를 지어서 만물의 뜻을 통하고 삼재의 도를 실어서 뒷 세상사람이 바꿀 수 없는 바이다.
그런데 사방의 풍토가 따로 나누어져 있고 소리도 또한 따라서 다르다.
대저 다른 나라의 말은 소리는 있어도 글자는 없어서 중국글자를 빌려서 씀에 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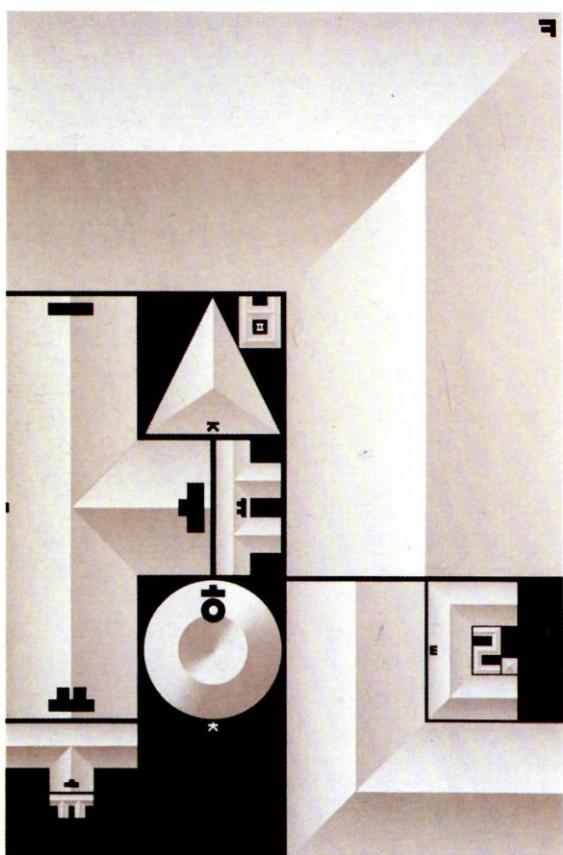
- 3. 석금호
 - 4. 안상수
 - 5. 최정순
 - 6. 하재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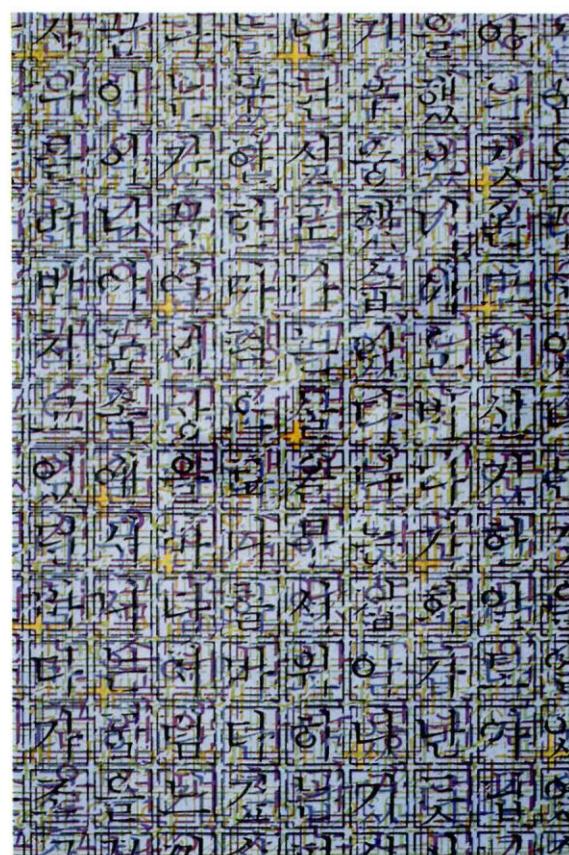
7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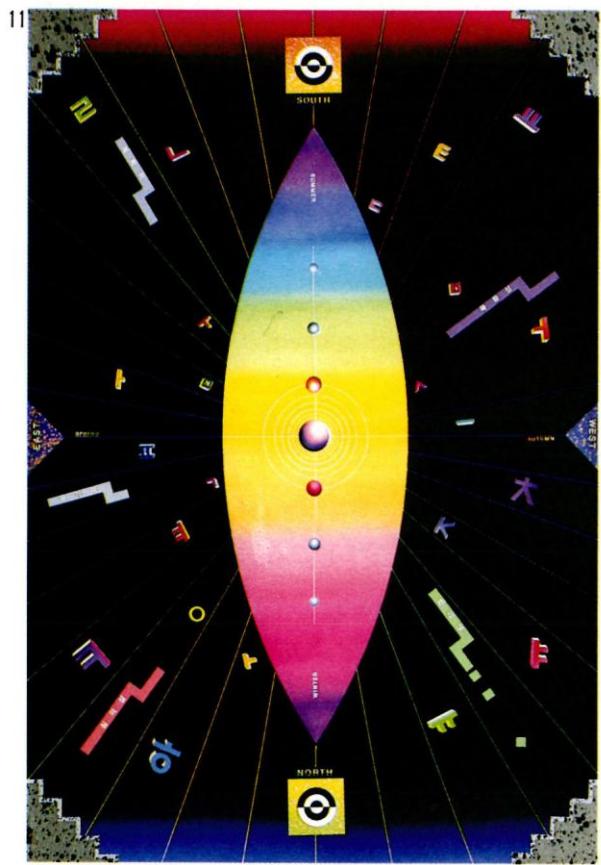


3 9



10

7. 권명광
8. 문 철
9. 류명식
10. 백금남



11. 오병권
12. 양호일
13. 정계문
14. 최동신

홍우(洪佑) 한글 신서체 전시회

편집실

홍우 한글 신서체 전시회가 10월 8일 인쇄문화회관에서 개최되어 홍우동씨가 개발한 한글 신서체 5종(옛글자꼴 2종 포함)이 선보였다.

홍우체를 개발한 홍우동씨는 그의 나이 17살 때인 대학교에서 주식회사의 견습공 시절부터 한글 서체의 문제점을 발견해 한글 서체 개발에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 처음엔 체계적인 이론이나 논리적 바탕없이 혼자 힘으로 시작해 고집과 집념으로 30년간 외길을 걸어 왔다.

그는 새로운 서체를 개발하는 이유로 첫째 가로쓰기 시대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둘째 평판인쇄(平版印刷: 옵셋) 기술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셋째 맞춤법 등의 변천으로 사용빈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넷째 이제는 어떤 원칙이 정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섯째 시력 보호라는 점에서 국민건강에 막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여섯째 가독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곱째 자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덟째 글자 위치의 안정감을 고려해야 하며, 아홉째 문자생활에의 안정감을 고려해야 하며, 열번째 한자체와의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등을 꼽았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서체의 원도 제작방법에서 문제점으로 첫째 문자의 굵기—같은 급수 내에서의 문제점과 각 급수별 굵기의 조화 문제, 둘째 통일성과 계열화 문제—굵기에 따른 각 서체와 평체·장체일 때 각 서체가 따로 제작되어 하나의 서체로서 계열화나 통일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셋째 문자의 크기와 공간—조화미 창출뿐 아니라 가독성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이번에 전시된 서체들은 약 25년 전부터 자료조사, 개발방향, 구도결정, 디자인, 실험 등을 거친 것으로 본격적으로 원도로 읽을 것은 6년 전부터의 일로써 전체 문자 2,000자 하나 하나에 20여 차례의 손길이 거쳐져서 교정·수정·실험된 문자들로 약 1/4의 분량만이 전시되었다.

한글고자 고딕체는 전문자 2,000자로 우리 나라 어떤 고전이나 우리 말 대사전은 물론 어떤 책이라도 없는 자 없이 출판인쇄가 가능한 수이고, 굵기는 한글 태고딕과 맞으며, 사전이나 일반 서적의 타이틀용으로 적합하다.

한글 고자 명조체는 세명조, 중명조, 홍우(1)·(2)·(3) 서체와 혼용할 수 있는 본문체이다.

홍우(1)번 서체는 중명보다 약간 가는 듯한 감이 드는 서체로 시중의 신중명과 신명체의 장점만을 가리어 오늘날 횡서시대와 옵셋인쇄에 맞게 고안된 서체이다. 이 서체는 신중명과 신명체를 선호하는 이에게 적합한 것으로 교과서·사전·전문서적·단행본 등에 다용도로 쓰일 수 있다. 이 서체의 장점은 좌우 중앙 원칙과 횡선인 보 중심으로 안정감 있게 맞추어 썼으며, 국내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서체들을 한 자씩 분석 검토하여 공간·균형을 재조정하고, 굵기의 불합리성으로 인한 인쇄 후의 농담차를 완전히 제거하였다.

홍우(2)번 서체는 구조적으로 초·중·고 고등학교 국정교과서체와 비슷한 감각을 갖고 있으며, 가장 큰 특징은 ㅈ와 ㅊ을 갈라쓰지 않고 흘려 쓴 점과 글자의 굵기가 세명보다 약간 굵고 중명보다는 가늘게 써서 세명한문과 혼용하면

이상적인 조화를 이룬다. 홍우(1) 서체와 두루 쓸 수 있고 중명보다 가는 것을 원하는 이에게 적합하다.

홍우(3)번 서체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원칙을 살렸고 획의 구조는 고딕체와 혼용했을 때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서체이다. 그리고 글자의 굵기는 홍우(2)번 서체와 비슷하고, 옵셋인쇄에 특히 선명성의 효과가 기대되고 가독성도 좋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우 서체의 큰 특징은 획이 많은 글자, 크게 쓰지 않으면 안 될 글자라 하더라도 농담의 밸런스가 일정하여 인쇄효과에 크게 기여하고, 세로쓰기 시대의 서체를 가로쓰기애 옮겨 놓은 시중의 서체가 이·기·니·리·시와 같이 옆에 점이 없는 글자는 불필요한 공간을 갖고 있어 띠어쓰기애 혼돈이 느껴지거나 가독성에 문제가 있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서체의 개발은 전문가 수준에서 5년여의 시일과 5천만원의 경비가 요구된다고 하니 관계당국이나 공익단체 등의 출연 없이 개인이 개발하기에는 비용면이나 시간상으로 어려움이 많고 통일된 원칙에 따른 통일된 서체, 다양한 서체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관계당국·기관·독지가의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는 것이 주위의 지적이다.

홍우동씨는 현재 86년 7명의 출판사 대표들이 공동출자해 설립한 동국전산(주) 대표로 있으면서 한글서체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

아니었다고 알고 있네. 즉 우무아로에서 ‘아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그려는 것 같더구만……」

「자네 아버님이 자네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시던가? 나는 다르게 들었다네. 어쨌든 중요한 일은 대사제가 그들을 이끌었고 또 그들은 그를 따라 주었다는 사실이지. 자네가 또한 소문을 들을 귀가 있었다니 얘긴데 우리 아버님이 계실 때의 사건은 어떤 했는가? 나의 아버님께서는 과부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누구든 노예로 만들었던 옛 풍습을 타파하셨는데 자네는 그 때 이미 어린애가 아니었지 않은가.」

「어제울루, 나는 자네가 말한 것 중 그 어느 하나라도 반박할
사람이 아닐세. 나는 자네의 친구이고 그래서 나는 내 좋을 대로
모든 것을 자네에게 털어놓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자네가 반쪽은 사람이고 또 다른 한쪽이 선이라는 사
실을 잊었다는 얘기는 아닐세. 자네가 자네의 부친이나 조부님에
대해 말한 것은 모두 다 맞는 얘기일세. 그러나 그 시절에 일어
났던 일과 요즈음 일어나고 있는 일이 똑같은 것이 아닐세. 그들
은 전혀 비슷한 데라곤 없다구. 즉 자네 부친이나 조부님께서는
결코 이방인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그렇게 행동하신 게 결코 아
니란 말일세.」

이 말이 날카롭게 에째울루를 찔러 왔으나 그는 다시 한 번 화를 꾹 참았다.

「자네가 계속 날 웃게 만드는군！」 그가 말했다. 「만약 누군가
가 자네에게 와서 에째울루가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그의 아들을 이상한 종교로 보냈다고 말한다면 자네는 그에게 뭐
라고 말할 텐가? 말하지만 또 다시 날 웃게 만들지는 말게.

「자네가 계속 날 웃게 만드는군！」 그가 말했다. 「만약 누군가

아니었다고 알고 있네. 즉 우무아로에서 '아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그러는 것 같더구만……」

「자네 아버님이 자네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시던가? 나는 다르게 들었다네. 어쨌든 중요한 일은 대사제가 그들을 이끌었고 또 그들은 그를 따라 주었다는 사실이지. 자네가 또한 소문을 들을 귀가 있었다니 얘긴데 우리 아버님이 계실 때의 사건은 어떠했는가? 나의 아버님께서는 과부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누구든 노예로 만들었던 옛 풍습을 타파하셨는데 자네는 그 때 이미 어린애가 아니었지 않은가.」

「어째울루, 나는 자네가 말한 것 중 그 어느 하나라도 반박할 사람이 아닐세. 나는 자네의 친구이고 그래서 나는 내 좋을 대로 모든 것을 자네에게 털어놓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자네가 반쪽은 사람이고 또 다른 한쪽이 신이라는 사실을 잊었다는 얘기는 아닐세. 자네가 자네의 부친이나 조부님에 대해 말한 것은 모두 다 맞는 얘기일세. 그러나 그 시절에 일어났던 일과 요즈음 일어나고 있는 일이 똑같은 것이 아닐세. 그들은 전혀 비슷한 데라곤 없다구. 즉 자네 부친이나 조부님께서는 결코 이방인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그렇게 행동하신 게 결코 아니란 말일세.」

이 말이 날카롭게 에째울루를 찔러 왔으나 그는 다시 한 번 화를 꾹 참았다.

「자네가 계속 날 웃게 만드는군！」 그가 말했다. 「만약 누군가
가 자네에게 와서 에째울루가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그의 아들을 이상한 종교로 보냈다고 말한다면 자네는 그에게 뭐
라고 말할 텐가? 말하지만 또 다시 날 웃게 만들지는 말게.

「자네가 계속 날 웃게 만드는군！」 그가 말했다. 「만약 누군가

“한글 글자꼴 2500”

— “한글 글자꼴 2500” 저자 윤호성 씨를 찾아서

편집실

방대한 분량의 다양한 한글 글자꼴을 수록한 “한글 글자꼴 2500”이 20여년간 한글 글자꼴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온 윤호성씨에 의해 발간되었다.

이 책에는 2,649종 이상의 글자꼴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글자꼴들은 붓이나 펜뿐 아니라 피스나 지점토·금속판 등으로 만든 다양한 기법의 글자들로 다채로운 아이디어가 눈에 띈다.

20여년을 한글 글자꼴 개발에 바쳐 온 이 책의 저자 윤호성 씨는 서예와 차트 부문에도 능해 이 책에서 다양하고 자유롭고 개성 있는 여러 글자꼴을 선보였고, 이 책이 “디자이너 등에게 디자인 아이디어 뱅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밝혔다.

또한 윤호성 씨는 우리 글자꼴을 개발·발전시키려면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현재 많은 이들이 네모틀 글자의 문제점을 발견해 탈네모틀 글자를 주장하면서도 실제 디자인되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고정관념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한글을 개발하는 이들이 네모틀 글자나 고딕체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이러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그는 교육계 역시 이러한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로고타입의 원칙은 개성임을 알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도록 교육시켜야 하며, 대학에서도 글자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과를 설치, 미술학도들은 문자에서 새로운 차원의 조형감각을 갖고 업체나 상품에 맞는 이미지의 문자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선구적이고 새로운 개발이 일반인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채택되기 위해서는 디자인 메이커와 출판계 등 매스미디어가 계몽하고 육성하는 역할을 수행해 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글 글자꼴 2500”은 2,649종 이상의 글자꼴을 글자꼴의 특성을 비교할 수 있도록 수록하여, 글자꼴 창작방법 및 응용과 참고의 교재가 되도록 했으며, 붓글씨체의 변형과 새로운 재료를 이용한 글자조각 등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려고 노력했다. 또한 편집기간만도 1년이나 걸린 이 책에는 한글 글자꼴 모델뿐 아니라 한글꼴의 조형원리나 조형방법, 기본형태, 제작방법 서예와 간판, 조각형·도자기형·공예형 글자꼴 제작 방법 등 이론을 함께 게재해 글자꼴 개발에 있어서 참고서 역할을 하도록 했다.

현재 한글 타이포그래피가 가독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문자의 리듬이 있어야 가독성이 생기는 데 영문자에 비해 글자의 높이·크기가 거의 같아서 읽는데 문제가 있고, 인쇄시 글자가 뭉개지는 일이 생기므로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히 지적하는 윤호성 씨는 또한 이러한 인쇄문자의 연구개발에는 자금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아쉬워 했다.

외국 것을 모방하고 외국 것을 따라야 세련된 것이라 생각하고 장식이나 의류에 영문자 등을 사용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얼마든지 아름다운 한글 글자꼴 개발이 가능하며, 이것으로 여러 곳에 응용해 사용할 수 있다는 윤호성 씨는 고딕체의 변형은 이미 한계에 왔고 고딕체를 벗어난 여러 서체로의 변형에는 반드시 서예가 필요하므로 서예 궁체를 마스터해야 한다며 서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글자꼴을 개발하고 편집하면서 커다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윤호성 씨는 이 책에서 남아 안한 스타일을 했다는 데에 자부심을 가지면서, 저작권을 보호하고 복사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글자 바탕의 색채가 강해졌고 인쇄상에서 원본의 효과를 그대로 내지 못한 것이 아쉽다면서 그러나 이것이 컬러표본의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기대했다.

윤호성 씨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현재의 가독성이 높고 아름다운 글자꼴을 만들려는 많은 움직임과 연구 속에서 정관 제정작업중인 「한글글자꼴 선양회」라는 법인체를 구성하여 글자의 표준화 작업, 아름답고 가독성 있는 글자꼴 개발 그리고 탈네모틀 글자에 대한 연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글 글자꼴 2500”에서 발췌한 글자꼴 ➔

호선 267
 가나다라마바
 사아자차카타
 속양참탓고큐
 파하갈담란몇

호선 310
 ㅠㅠㅠㅠ
 ㅠㅠㅠㅠ
 ㅠㅠㅠㅠ



호선 48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우주의 대원리
 가능하고자사
 나이간디마치

금 보

기 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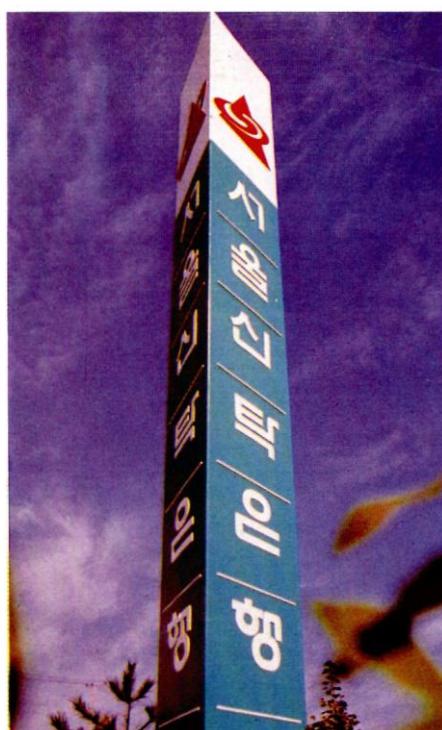
가 겸 나 넝 달 덤 라 레
 말 못 벽 빛 사 쟁 늘 양
 원 쳐 좌 첫 품 카 쾌 틀
 탁 판 퓨 협 홍 젖 꽂 땀

한국서예
 한글서예
 한글서예
 한글서예

“한글 글자꼴 표현 사례”

—간판·광고물을 중심으로

편집실







디자인·포장 정보 회원제 이용안내

한국디자인포장센터는 경제발전과 수출증대에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디자인과 포장의 연구·진흥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디자인포장센터는 디자인과 포장에 관련된 국내외의 각종 최신 정보자료를 필요로 하는 산·학계에 정보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 디자인·포장 정보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디자인·포장 정보 회원제에 가입하시면 새로운 차원의 정보서비스와 혜택을 드립니다.

정보 서비스 방법

	종 류	대 상	수 수 료	비 고
가	열람 서비스	회원·비회원	무료	
나	복사 서비스	"	A ₄ : 60원(1매당), B ₄ : 80원(1매당)	회원 30% 할인
다	우편 서비스	회 원	복사료에 준함	
라	팩시밀리 서비스	회 원	A ₄ : 1,000원(1매당)	전국 동일
마	해외 문현정보 검색 및 원문제공 서비스	회 원	자료수집비+내 항 또는 해 외 항 수수료	
바	수탁 자료조사 서비스	회 원	실경비	
사	기술 상담 서비스	회 원 우 대	무료	

무료 증정자료

- 산업디자인(격월간)
- 포장기술(격월간)
- 디자인·포장정보(월간)
- 최신 산업 및 기술정보자료
- 연구 및 조사보고서, 세미나 교재(수시)

회원가입

- 회원의 종류 및 연회비
A급 회원 단체 및 업체 연 20만원
B급 회원 개인 연 10만원
- 가입절차 : 회원가입 신청서(소정양식)와 연회비 납부
- 회원자격 유효기간 : 가입일로부터 1년간
- 회비 및 수수료 납입 : 센터 경리과 또는 은행 온라인구좌
조흥은행 325-1-071461
한일은행 012-158421-01-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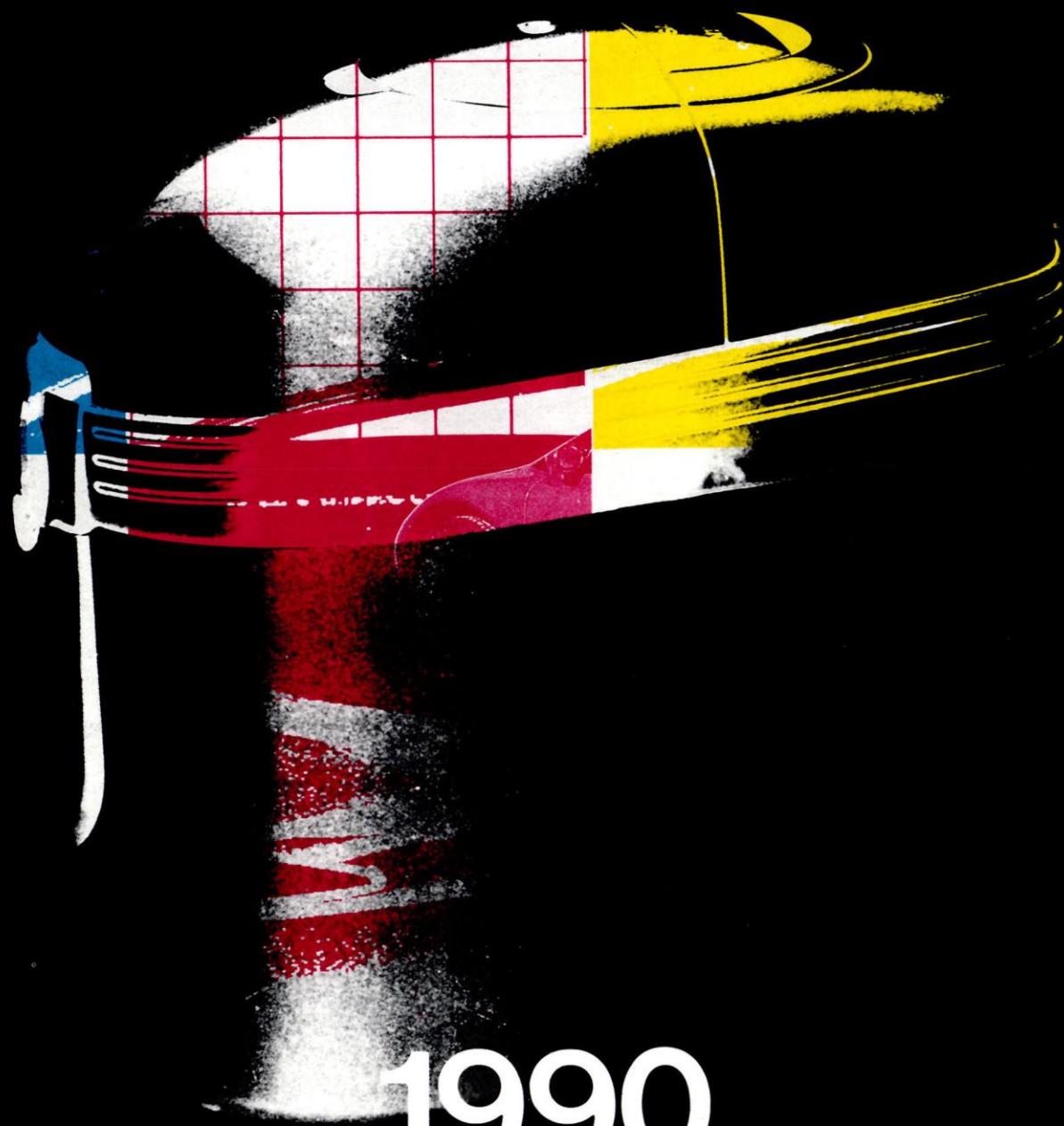
각종 혜택

- CAD 장비 사용(주 1회 4시간)
- 유가간행물 정가의 20% 할인
- 자료복사료 30% 할인
- 광고제재료 20% 범위 내 할인
- 교육연수 수강료 20% 할인

문의처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정보자료부 조사과
서울 종로구 연건동 128번지 전화 : 02-744-0226~7
Fax : 02-745-5519

우수디자인상품선정제



GOOD DESIGN

'90 우수디자인 상품 선정제

우수디자인 상품 선정제(GD마크제)는 선진 디자인의 복사나 모방단계에서 탈피하고 독창적인 우리 고유의 디자인을 창조하여 우리 나라 산업디자인 발전의 이정표가 되고, 상품의 디자인 수준 향상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1985년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6년째를 맞이했다.

GD상품 선정제는 해를 거듭하면서 참여업체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신청상품의 질도 눈에 띄게 향상되고 있다.

우리 센터에서는 우수디자인 상품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수디자인 상품 선정제에 있어서 몇 가지 제도의 보완을 추진하였다.

올해부터 상하반기로 연 2회에 걸쳐 실시함으로써 디자인의 라이프 사이클 단축으로 인한 업체의 참여에 있어서 불편한 점을 해소코자 하였고, 선정 부문을 운송기기 부문을 포함하여 10개 부문 130여개 품목으로 확대하였으며, 마크사용실태·광고실태·유통량조사 등 GD상품 사후관리에 역점을 두어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 교육을 확대하고자 한다. '90년도 상반기 GD상품 선정에는 총 53개 업체에서

207점의 상품이 출품되어 32개업체의 61점의 품목이 선정되어 29%의 선정율을 보였다.

또한 하반기 GD상품 선정에서는 총 44개 업체가 266 품목을 출품해서 20개 업체의 57점의 상품이 선정되어 21%의 선정율을 나타냈다.

당 센터에서는 GD마크제 및 GD마크 상품의 보급과 홍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혜택을 주고 있다.

1. GD 마크 사용 : 선정품에 우수한 상품임을 표시하는 GD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2. 선정품 전시 : 선정품을 센터에서 상설전시한다.
3. 선정집 제작 배포 : 선정품의 카탈로그를 국문판과 영문판으로 발간해 국내외에 배부하고 기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수시로 해준다.

※ 선정대상 품목

부문별	세부 품목
전기·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텔레비전 • 전기냉장고 • 선풍기 • 전기세탁기 • AUDIO SYSTEM • 전기털수기 • 전자레인지 • 전기다리미 • 통신장비 및 주변기기 (전화기 포함) • 후레쉬 • 전기청소기 • 전기면도기 • 전기스탠드 • 전기솥 • 전기포트 • 전기믹서 • 전기쥬서 • 에어콘 • 가습기 • 모발건조기 • 마이크로폰 • 라디오 • 카세트 • 전기스토브 • 인터폰 • 헤드폰 • 도아폰 • 전기후라이팬 • 전기보온밥통 • 자동차용 음향기기 (라디오, 카세트 등) • VTR
주택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욕조류(법랑, 스테인레스강판, 인조대리석,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제) • 배선기구 • 가정용주방용구(조리대, 가스대, 코너대, 물벼름대, 복합취사대 등) • 수도꼭지 • 도자기질 타일 • 위생도기 (세면기, 양면기, 변기 등) • DOOR HANDLE 및 LOCK
레저스포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니스라켓 • 자전거용 공기펌프 • 자전거 • 체중계 • 안전모
용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동화 • 쌍안경 • 카메라 • 베드민턴라켓 • 등산장비류 • 보안경
악기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르간 • 피아노 • 기타 • 전자전반 • 전자오르간 • 전자피아노 • DRUM • 멜로디온 • 크로마하프
아동용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모차 • 보행기 • 유아용 삶물차 • 어린이용 그네 • 승용차용 어린이보조좌석 • 기타 유아용품
사무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볼펜 • 만년필 • 샤프연필 • 연필깎기 • 스테이플러 • 자 • 사무자동화용 책걸상 • FACSIMILE기 • 타자기 • 복사기 • 휴대 및 탁상용 계산기 • 문서편집기 • 서류보관함 • Personal Computer 및 P/C용 Printer • 사무용품류
일용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이터 • 우산 및 양산 • 손톱깍기 • 정수기 • 보온용기 • 시계 • 보온도시락 • 압력솥 • 가스레인지 • 이온수기 • 석유레인지 • 석유난방기구 • 타이머 • 압력냄비 • 식기류 • 식기건조기 • 욕실용 기물류 • 옷걸이 • 주방용 기물류 • 면도기 • 저울 • 진공보온병 • 가스난방기구 • 가위 • 조리용구 • 전기장판 • 산업도자(카피세트, 단반상기) • 실내청소용구류
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제완구 • 금속완구 • 고무 또는 플라스틱완구 • 기타완구
운송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용차 • 이륜승용차 (※ 자체 디자인 개발품에 한함)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핸드백 • 혁대 • 지갑 • 열쇠고리 • 여행용가방 • 학생용가방 • 식탁 및 식탁의자 • 승용차용 액세사리

※ 6년간 GD 상품 선정 추이

년도	구분			상 품			회 사		
	신청수	선정수	선정율	신청수	선정수	선정율	신청수	선정수	선정율
1985년	284점	48점	16.9%	23개업체	14개업체	61%			
1986년	250	62	24.8	31	22	71			
1987년	511	149	29.2	41	28	68			
1988년	675	116	17.2	44	27	61			
1989년	288	125	43.4	53	45	85			
1990년	473	118	24.9	87	48	55.1			
총 계	2481	618	24.9	279	184	65.9			

※ 90년도 GD상품 선정 현황

부문	구분			상 품			회 사		
	신청수	선정수	선정율	신청수	선정수	선정율	신청수	선정수	선정율
전기·전자	132점	45점	34%	18개업체	12개업체	66.6%			
주택설비	28	5	17.8	6	3	50			
레저스포츠	40	9	22.5	14	9	64.2			
악기류	12	1	8.3	3	1	33.3			
아동용구	4	3	75	3	2	66.7			
사무기기(문구)	63	18	28.5	18	10	55.7			
일용품	157	33	21	35	16	45.7			
완구	5	0	0	2	0	0			
운송기기	5	1	20	2	1	50			
기타	17	3	17.6	7	2	28.5			
총 계	473점	118점	24.9%	108업체	56업체	55.1%	실제 87업체	실제 48업체	

컬러 텔레비전—(주)금성사

박종민 디자인

Goldstar CNR-9190

L 578m/m, W 448m/m, H 454m/m, W 18.9kg

₩528,000

- 3 MODE DOLBY 써라운드 회로 채용

- VITRO-SOFT TOUCH KNOB 채용

- Leg 채용



포터블 컴팩트 디스크 플레이어—(주)삼성전자

윤지홍 디자인

SAMSUNG MYCD2

L 148m/m, W 136m/m, H 38m/m, W 450g

₩178,000

- 단순한 디자인으로 휴대에 편리

- DC/AC 겸용으로 오디오 시스템에 연결 사용 가능



전화기—금성통신(주)

유창희 디자인

금성 테크폰 GS-305M

L 215m/m, W 170m/m, H 80m/m, W 1.022kg

₩118,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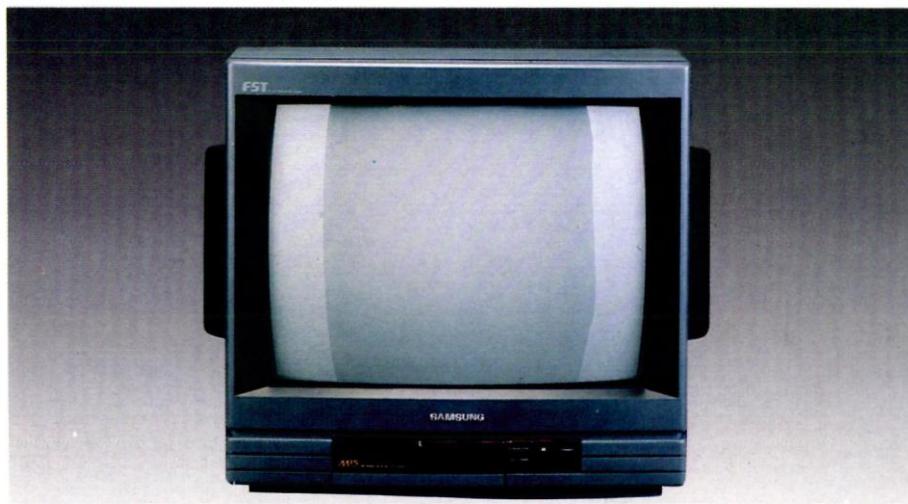
- 송수화기를 높이거나 세워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라디오—(주)다물
현영남 디자인
RAD-Tech, DM 901
L 95m/m, W 74m/m, H 3.0m/m, W 0.068kg
₩19,800

- 현대 감각의 타원형을 도입
- 저음 부분을 키워줌으로써 부드러운 소리
- 헤드폰 내장



비디오 비전—(주)삼성전자
최봉길 디자인
SAMSUNG SMV-2100
L 615m/m, W 479m/m, K 499m/m, W 32kg
₩679,000

- 난방사 방지 및 고화질 평면 브라운관 채용
- 고급형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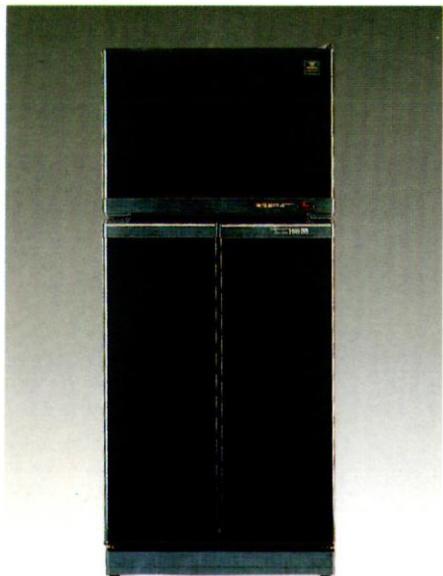
하이파이 비디오 녹화 재생기—(주)금성사
양두선 디자인
Goldstar GHV-9000
L 356m/m, W 430m/m, H 86m/m, W 7kg
₩698,000

- 한글화면 예약 녹화
- 2배속 재생효과



텐트—(주)진웅
최두병 디자인
CAMPING LAND.CIN 515
L 2,850m/m, W 2,540m/m, H 1,450m/m,
W 6.7kg
₩235,000

- 에스키모의 이글루에서 원형의
- 4각, 육각돔을 만듬
- 내부구조를 넓혔고, 높이도 10cm 정도 높음
- 3개의 문을 만들어 공기 순환에 역점



냉장고—(주)금성사

안규성 디자인

Gold Star GR 45-3GD

L 665m/m, W 760m/m, H 1744m/m, W 94kg
₩815,000

-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이미지
- 내부의 간결한 형상 추구

세탁기—삼성전자(주)

박노섭 디자인

SAMSUNG SEW-62 QIL

L 623m/m, W 606m/m, H 1090m/m, W 59kg
₩535,000

- 친근하고 포근한 느낌의 이미지에 주력
- 전면을 Round 처리

청소기—삼성전자(주)

김형배 디자인

SAMSUNG VC-680

L 386m/m, W 252m/m, H 221m/m, W 3.2kg
₩70,000

- Compact하고 깜찍한 이미지
- 작고 가볍다.



오디오 시스템—(주)인켈

(주)인켈 디자인실

인켈 IS-8135T

L 2,400m/m, W 430m/m, H 950m/m
₩2,878,000

- 티타늄의 표면 색상을 알루미늄에 착색
- 가능한 한 외관을 깨끗한 상태로 디자인
- 주요 기능을 Display 부위 하단에 수직으로 일률적 배열, 2차 기능을 도어 내부에 배치 사용상의 혼란 방지

베낭—대진상사

박홍준 디자인

HOTLINE 02-7590

L 270m/m, W 330m/m, H 950m/m, W 2.5kg
₩91,500

- 신체 구조를 최대한 고려
- 장기 등반시 중량감을 신체 구조와 결부하여 최대한 완화시킴





씽크대—(주)보루네오가구

최준성 디자인
메탈 U-50, SU-120, DU-40, RD-60, AU-40
L 3,100m/m, W 600m/m, H 850m/m
₩1,199,600(벽장식은 별도)

- 4면을 라운드 처리
- 인조 진주 가루를 혼합한 PEARL 도료 사용
- 스크레치 방지 위해 특수도장 마감처리



테니스 라켓—에스콰이어라켓공업(주)

이효숙 디자인
ESQUIRE GRAND-DUKE
L 68.4m/m, W 236m/m, H 35.0m/m, W 336g
₩185,000

- Metalic과 흑색의 조화가 품위와 고급스러움을 줌



파카 크리스탈—두산유리(주)

김성연 디자인
PARKA.WI 3001BK
L 70m/m, H 200m/m, W 150g
₩2,599

- Contemporary한 형태와 현대적 컬러의 디자인



퍼스널 컴퓨터—삼성전자(주)

김규철 디자인
SAMSUNG SPC-5500L
L 365m/m, W 325m/m, H 83m/m, W 7.2kg
₩1,980,000

- 직장인을 위한 휴대용 컴퓨터
- 건전지와 AC 어댑터 겸용으로 장소에 구애 없이 사용 가능



유아용 컴퓨터—대우전자(주)

임현규 디자인
DAEWOO.KOBO
L 570m/m, W 360m/m, H 620m/m
₩594,000

- 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안전성을 우선으로 고려한 디자인
- 밑부분에 서랍을 설치 수납공간으로 활용



스텐레스 삼중바닥 냄비(전골냄비)—대림통상(주)

임원도 디자인
리빙스타. 모닝별 골드 쿡웨어
L 360m/m, W 240m/m, H 130m/m
W 1.8kg
₩33,000



카메라—삼성항공산업(주)

김주복 디자인
삼성 SLIM (Q,D)
L 115m/m, W 37m/m, H 65m/m,
W 1.93kg
₩250,000

- 항상 주머니에 휴대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디자인

제3회 한국우수포장대전

THE 3RD KOREA GOOD-PACKAGING EXHIBITION

포장의 우수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우수포장 개발을 촉진하며, 적정포장 설계의 유도로 유통 합리화를 도모하고, 상품의 고급화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개최되어 온 한국우수포장대전이 올해로 3회째를 맞이했다.

지난 9월 4일부터 9월 13일까지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전시관에서 개최된 이번 공모전에는 총 82점이 출품되어 59점이 입상했고, 영예의 대상은 장상진씨의 안동소주 포장디자인이 차지했다.

지난 87년도에 첫 공모전을 연 우수포장대전은 산업계와 일반인에게 포장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포장 디자이너와

포장분야 종사자들에게 연구 의욕을 고취시켜 주는 새로운 장으로 자리잡았다.

이번 공모전에는 디자인 부문에서 실용성과 디자인적 측면이 잘 연결된 작품이 눈에 띄었으나 포장비의 경제성에는 다소 소홀했다는 평을 받았다.

또한 포장기법이나 포장재료 부문에는 출품이 미미했는데 전문 포장대전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해 이 부문에 대한 포장산업 종사자와 실무자들의 높은 관심과 활성화가 더 한층 요구된다고 하겠다. [편집자 주]



제3회 한국우수포장대전 수상작

대상(상공부 장관상)
안동소주 포장디자인 연구
장상진 작

- 디자인 전체에 B·I 개념을 도입하여 레터링, 컬러, 심볼·로고를 통일하여 디자인
- 포장용기는 우리나라 전통도예에서 사용하는 물레기법에서 손자국이 나타나게 디자인하여 미끄러짐을 방지하고, 2가지 색상으로 제작
- 용기는 사용 후 화병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 디자인
- 로고타입은 안동소주의 전통성에 비추어 목판화나 전각의 효과를 살려 디자인
- 골판지 컬러는 2도 인쇄를 원칙으로 인쇄면의 색상과 B·I 개념이 어울릴 수 있는 색채 선택



금상(한국디자인포장센터 이사장상)

건어류 포장디자인 연구

권영수·강주현 작

- 포장을 통한 상품의 고급화 및 차별화로 구매의욕 유발
- 골판지를 사용, 통풍이 원활하도록 했음
- 독특한 지기구조로 인해 결속재 사용이 불필요하므로 생산비(포장비)의 절감 유도
- 디스플레이시 소비자들이 쉽게 상품을 인지하여 소구력을 갖게끔, 패키지 전면에 스크린 인쇄로 그래픽 처리
- 손잡이 부분의 두께를 얇게 처리하여 휴대시 편리하고, 적재시 부피가 크지 않아 유통비 절감을 꾀할 수 있음
- 디스플레이시 앞덮개가 뒷반침대의 역할을 하므로 접두 진열시 상품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함



금상(한국디자인포장센터 이사장상)

한국 단청문양을 이용한 피어리스 아미드팜
포장디자인

박진석·임권근 작

- 단청 고유의 길고 강한 색채와 다양한 문양표현으로 우리 민족의 뛰어난 예술적 감각을 살린 국적 있는 색조제품을 디자인
- 우리나라의 단청문양과 사라센 문화의 아라베스크 무늬를 접목해 면분할은 단청을 기본으로 하고, 외형은 아라베스크 패턴을 응용
- 단청의 기본 5색(황·청·적·백·흑)을 응용해 흑색을 기본색으로 선정하고, 화려함을 강조하기 위해 적색을 기본으로 핑크, 중간색, 갈색계열로 배열
- 제품의 이미지 통일 및 POP 효과가 뛰어남



특별상(한국방송공사 사장상)

카 악세서리 수출용 포장디자인

한광우·김경순 작

- 브랜디 아이덴티티를 위해 포장재질의 일관성 및 기업 고유의 패턴으로 제품 고급화 실현, 수출을 위한 P.O.P에 역점
- 브랜드 네임인 'Schick'는 '유행에 알맞는, 맵시 있는, 멋진'의 뜻으로 국제성에 주안
- 자동차 경주시 사용되는 기의 모양을 변화·조화시켜 패턴화
- 주조색을 다크 그레이로 해서 중후하면서 세련된 감을 주도록 함





은상(한국디자인포장센터 이사장상)

특수 전선 포장디자인

조한호·노병현 작

- 포장 내부의 내접이 원형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8각 형태로 해서 내용물의 유동을 최소화
- 개폐가 용이한 팩식 구조 채택
- 개별 단위포장으로 유통 단위 최소화 도모, 코스트 절감
- 전체 포장을 해체하지 않고 일부분만을 개봉해 사용할 수 있고 따라서 오손과 헝클어짐 방지
- 내용물에 대한 정보를 포장 전면에 인쇄해 정보제공과 그래픽 효과를 줌
- 구입이 용이하고 폐기 및 재사용이 가능한 골판지 채택



은상(한국디자인포장센터 이사장상)

코리아나 아트피아 기초화장품 포장 계획
김동욱·박홍수 작

- 제품의 짧은 라이프 사이클에 대처하도록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기업이미지 제고
- 상단부를 8각형으로 처리해 시선을 집중하도록 했고, 홀더는 ABS 재질에 금속 증착을 해서 경제성 고려
- 혹과 백의 강렬한 대비와 함께, 뛰어난 광택 및 인쇄효과를 통해, 제품의 고급화를 꾀함
- 용기 사용시의 손의 형태나 움직임을 감안, 인체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디자인



은상(한국디자인포장센터 이사장상)

수출용 담배 포장디자인

이종화·김태석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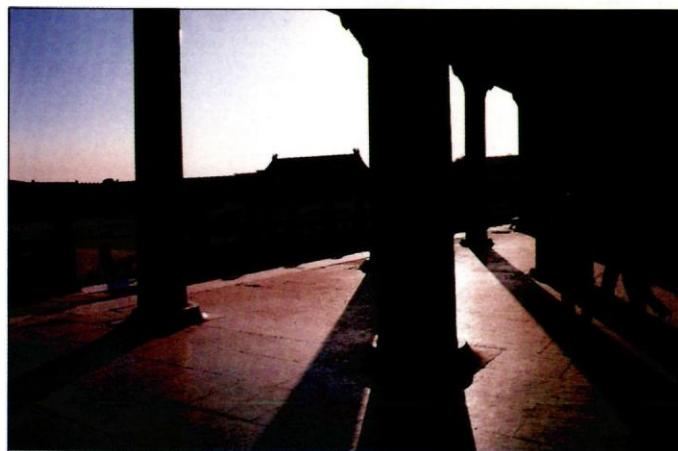
- 깨끗(신선)하고 고급스런 이미지로 판매대상 (여성 포함)을 넓힘
- 브랜드 이미지 강조는 물론,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표면에 상징적으로 표현
- 수입담배에 대처하기 위해, 다국적 브랜드 네임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Character」를 상품명으로 채택
- 개별포장 및 집합포장(10개, 3개), 라이터와 담배가 든 블리스터 포장 등 패키지가 다양

제7회 한국그라픽디자이너협회전

한국그라픽디자이너협회(KOGDA)의 제7회 정기회원전이 지난 9월 17일부터 22일까지 동방플라자 미술관에서 개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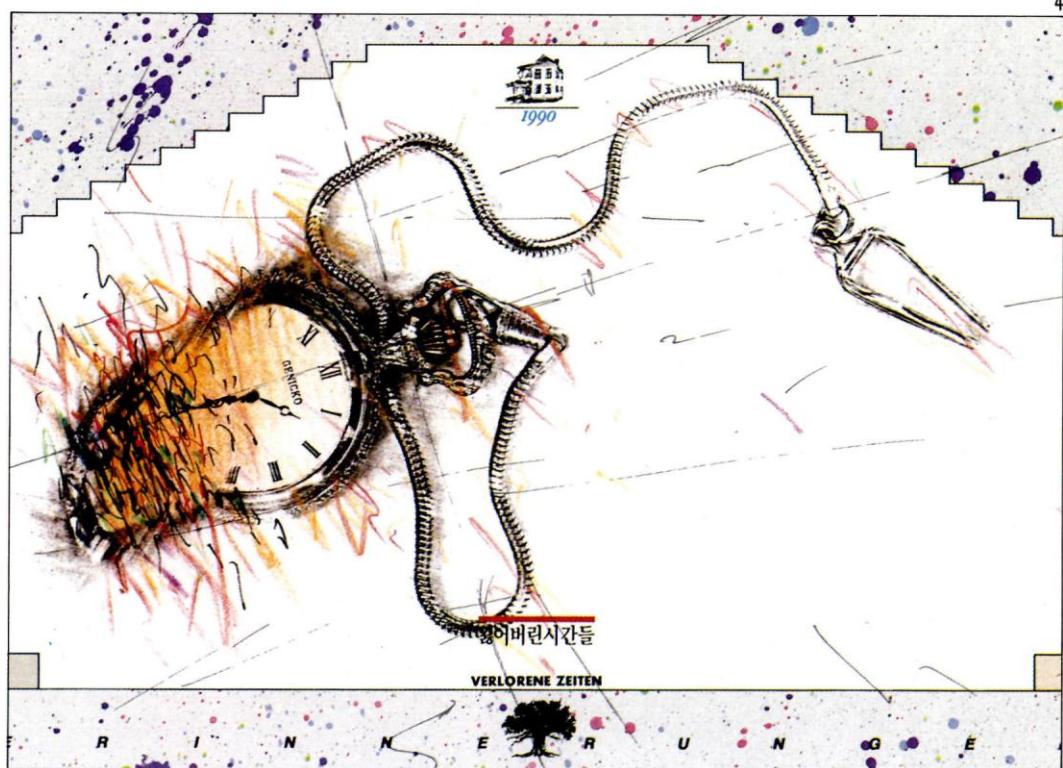
이번 정기전에는 “백색 테마”를 가지고 총 100여점의 작품이 전시되었는데 일러스트레이션 작품이 수적으로 적었고, 참신하고 실험적인 에디토리얼 디자인 작품이 많이 출품된 점이

특징으로 에디토리얼 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높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번 KOGDA 회원상에는 금상에 서기훈 교수(경원대 시각디자인과), 은상에 조의환씨(조선일보 미술부 차장), 동상에 류재우 교수(홍익산업대 광고디자인과)와 홍동원씨가 각각 선정되었다. [편집자 주]



3

1. 서기훈
2. 조의환
3. 류재우
4. 홍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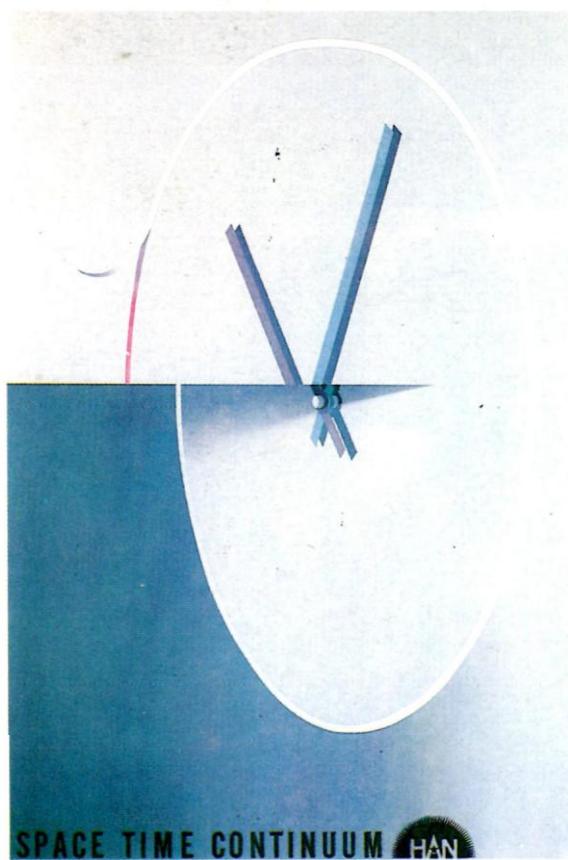




5

This image shows a page from a Korean children's magazine. The top half features a large title "가가가 - 캐미가 가가미 가" (Gaga - Cameo Ga-Ga-Mi Ga) in a stylized font. Below the title are two black-and-white portraits of a man and a woman, both wearing suits and ties. The man's portrait is on the left, and the woman's is on the right. The bottom half of the page is divided into several rectangular boxes. One box on the left contains a portrait of a man with glasses. Another box on the right contains the word "까까까 까까까 까까까 까까까 까까까". The rest of the boxes contain various Korean words and short stories. The overall layout is clean and organized, typical of a children's educational publication.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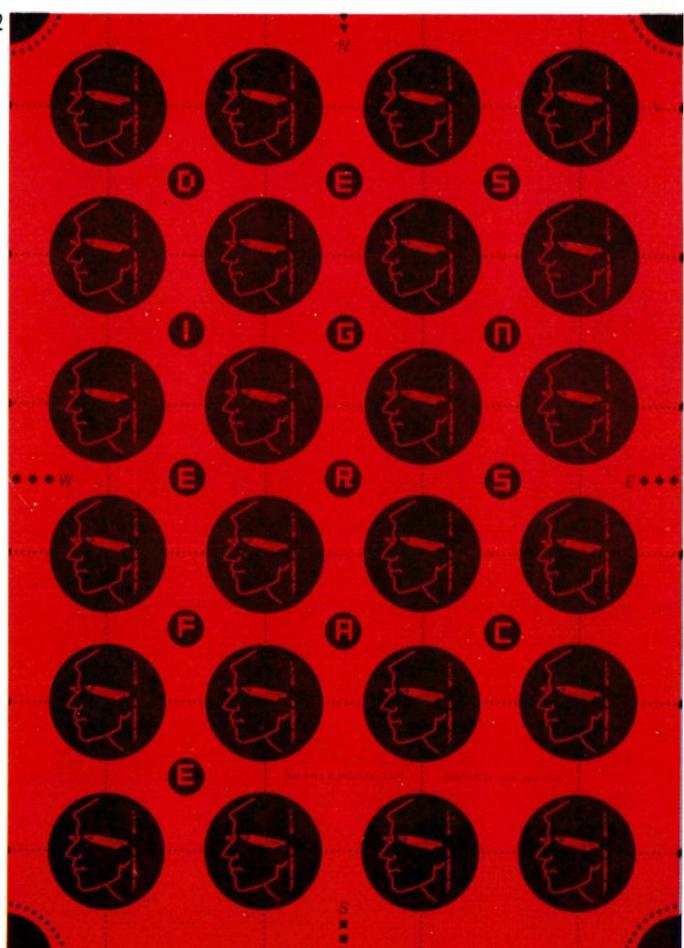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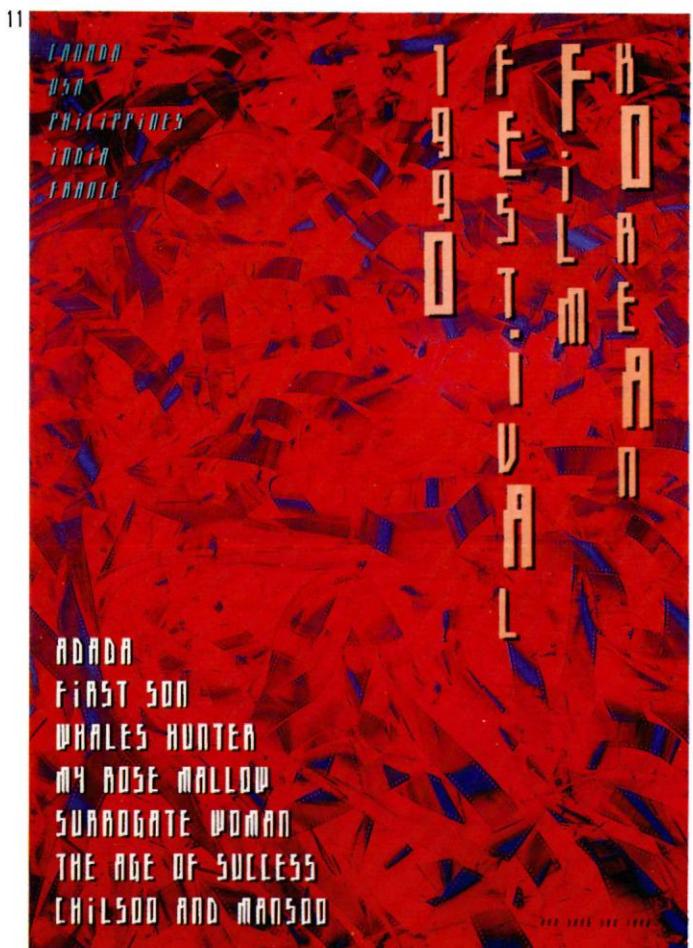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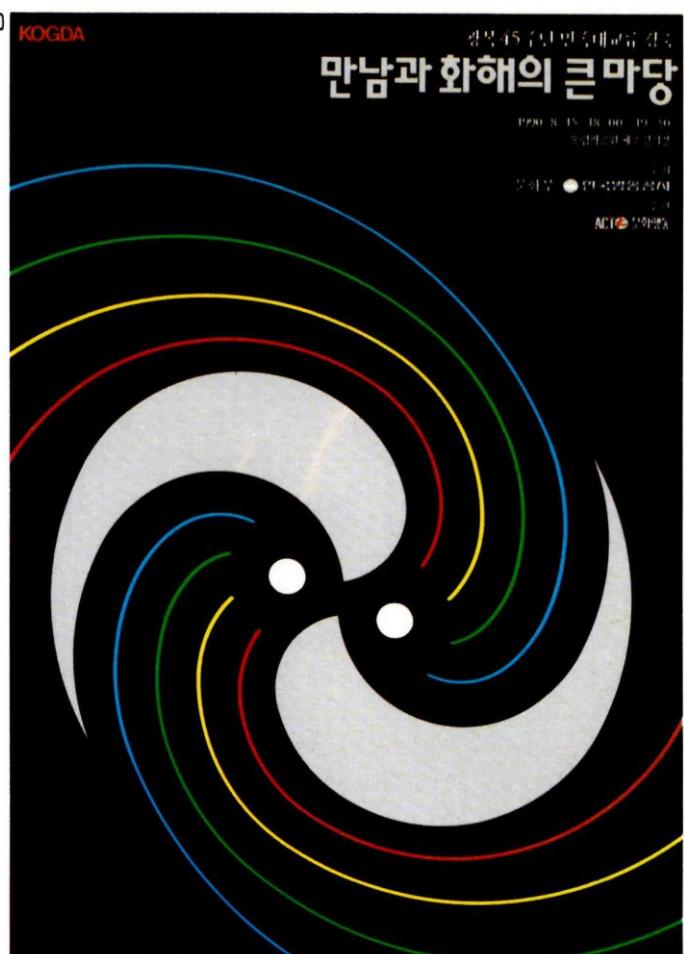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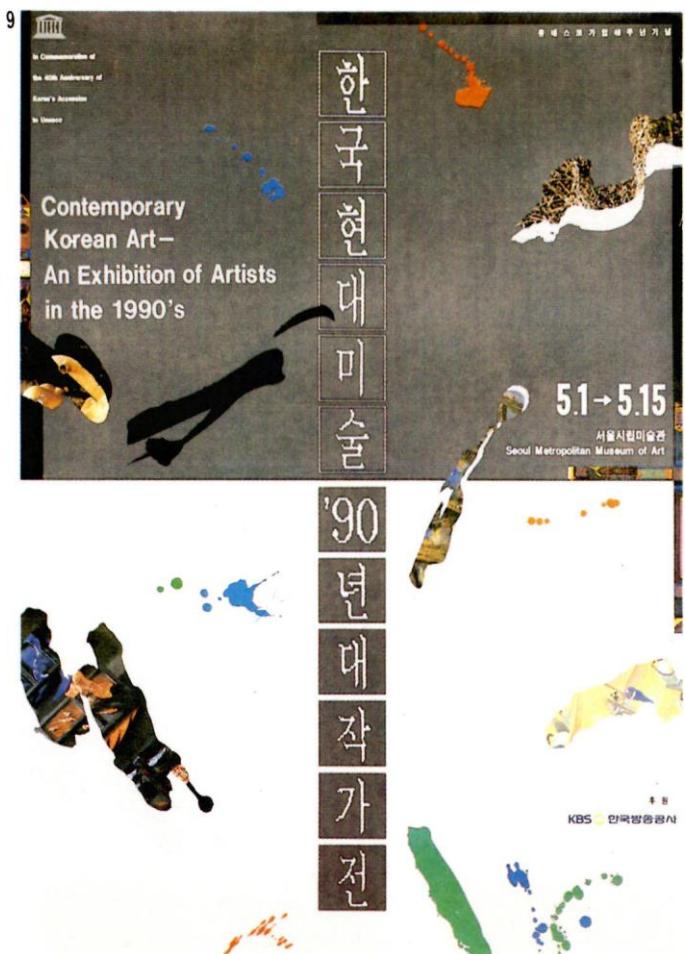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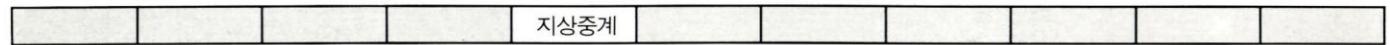
7

8

- 5. 명승수
 - 6. 원유홍
 - 7. 한백진
 - 8. 박금준

- 9. 강우현
 - 10. 류명식
 - 11. 안상수
 - 12. 박암종





제3회 오리엔트 시계디자인 공모전

제3회 오리엔트 시계디자인 공모전 수상작품이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전시관에서 전시되었다.

시계디자인의 진흥과 육성, 창의성 있는 시계디자이너 발굴 및

아이디어 발굴, 산학협동체제 구축 등의 목적을 가진 이번 공모전에는 대상에 박현웅의 「사군자」, 최우수상에 조남도·서동길의 「Black Hole」이 선정되었다. (편집자 주)



사군자의 독특한 품격에 의미를 부여하고
착용자로 하여금 시각적 효용을 높여 줌으로써
고급시계가 갖는 정형성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미적
조형미를 부각시켰다.

또한 중년층을 겨냥하여 장식을 가미함으로써
현대 시계 패션의 너무 극단적인 획일화·몰개성화
등에 유의하면서 변화를 시도, 형태를 더욱
강조하는 것에 큰 역점을 두었다.



현대는 보다 아름답고 유익한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가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엄청난
변화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

최근의 디자인 경향은 감성시대를 맞이하면서
개성화, 다양화, 국제화되어 가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며 제품의 이용자에게는 고감도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3S(Simple, Smart, Sense of
Style)의 이미지에 따른 변화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Chagal
Black Hole Series는 기존의 시계이미지를
탈피하여 3S의 요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시도하였다.





우주상 Radar

최동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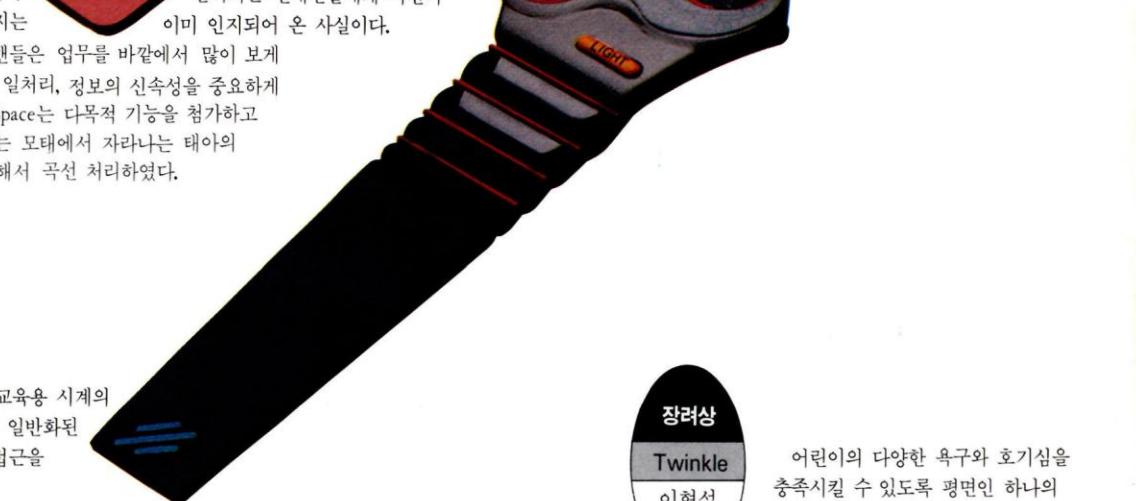
시계시장의 주소구대상인 젊은 층의 패션과 개성에 대한 욕구가 시계에까지 영향을 미쳐 종전의 시계로서의 단순기능보다는 패션과 첨단기능을 갖춘 개성화된 시계를 찾게 되었다. 시계에 호출기능을 추가,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첨단기능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우주상 Space

이수호

다국적 시대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미 인지되어 온 사실이다. 특히, 샐러리맨들은 업무를 바깥에서 많이 보게 되므로 신속한 일처리, 정보의 신속성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에 Space는 다목적 기능을 추가하고 디자인 컨셉트는 모태에서 자라나는 태아의 모습에서 도출해서 곡선 처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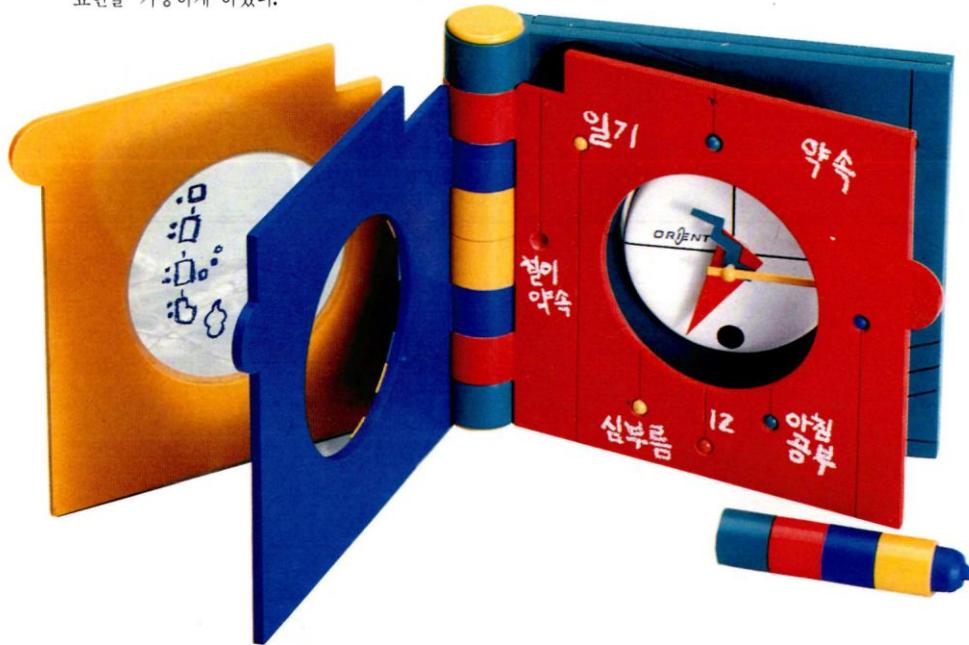
우주상

나의 세계

이지연

취학 전후 어린이를 위한 교육용 시계의 제안으로 종래의 어린이용 탁상시계의 일반화된 경향을 탈피하여 새로운 방향으로의 접근을 시도하였다.

형상화된 단일제품의 아닌 Book style의 시계로 교육적 의미와 입체와 평면의 조화를 피하였으며 시계 기관 자체에 어린이 스스로 시작적 표현을 가능하게 하였다.



장려상 Twinkle

이형섭 박가영

어린이의 다양한 욕구와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평면인 하나의 Movement를 입체화시켜 3개의 시계에 의해 360° 어디에서나 볼 수 있도록 기능적인 면을 강조했고, 어린이의 이미지에 맞는 조형성 및 안정성을 부여한 형태로 디자인을 시도하였다.

시침과 분침을 Led 램프로 처리하였고 내부에 야광물질을 부착하여 취침 조명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형과 색을 변형하여 재미를 더했다.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전시관 대관 안내

센터 전시관은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현대식 시설과
쾌적한 환경, 철저한 관리와 운영으로 여러분들의
각종 전시회를 불편이나 부족함 없이 정성껏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전시관의 특징

- 완벽한 전시 시설(냉·난방, 전시대)
- 각종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실 구조
- 넓은 주차장과 쾌적한 주위 환경
- 저렴한 임대료와 편리한 교통

임대료

1일 평당 1,200원(부가세 별도)

상담처

센터 총무과 전화 762-9461

자료실	중앙홀 (60평)	제6실(75평) 제5실(75평)
도서 열람실		

별관 3층

참고	제4실(45평) 제3실(45평)	중앙홀 (60평)	제2실(75평) 제1실(75평)
----	----------------------	--------------	----------------------

별관 2층

제7실(60평)

별관 1층



디자인 동서남북

국내 소식

'90 서울도서전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주최하는 「'90 서울도서전」이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삶을 풍요롭게 하는 책'을 주제로 잠실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회는 85년 28회대회 이후 중단되었던 전국도서전시회를 서울도서 전시회로 이름을 바꾸어 5만에 개최하는 것으로, 사상최대의 규모가 되었다.

이번 전시회에는 출판사·잡지사·출판 관련단체·음반제조업체·팬시문구업체·전자출판시스템업체 6백 64개사가 대거 참여하여 2백 12개의 부스에 20만종의 책과 전자출판시스템, 음반, 비디오, 팬시·서재용품들이 선보였고,



'90 서울도서전시회
SEOUL BOOK FAIR

'90 서울도서전을 위해 제작된 포스터와 심볼 로고

특별기획전시로 「한국 교과서 역사전」, 「장애인 도서전」, 「인기저자 1백인이 추천하는 자신의 책」, 「외국우수도서 초대전」, 「북한간행물전」이 함께 마련되었다.

김영희 닉종이 조형전

김영희 닉종이 조형전이 9월 5일부터 19일까지 조선일보미술관에서 열렸다.

'78년 닉종이 인형을 발표해 주목을 받고 '81년 독일로 이주해서 닉종이 인형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김영희씨는 10년만에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 토속적인 인형뿐 아니라 추상화된 인형과 콜라쥬 작품, 병풍 등 100여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그의 인형은 둥글게 불거진 뺨과 가늘게 옆으로 올라간 눈과 미소가 특징적이며, 초기작품은 종이를 이용해 몸체를 만들고, 무명천에 천연염료로 염색해 옷을 입히고,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머리를 만들었는데, '81년 이후에는 모든 재료를 종이로



무녀(78×53cm)

사용하고 있다.

또한 작품 소재도 초기에는 보통 사람에서 부처의 형상으로 바뀌고 무당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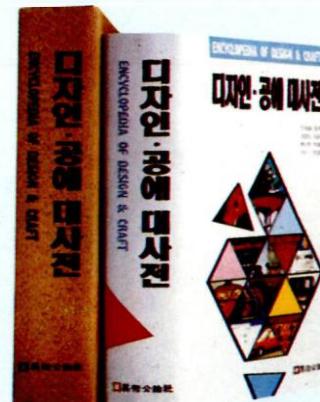
그리고 병풍 등에는 물고기가 소재로 등장하고 있다.

작품 제작시 데생을 하지 않는 김영희씨는 머리 속에 그려지는 감각적인 데생으로 작품을 제작하며, 개인전과 아트페어 등을 통해 계속 작품을 발표하고 있다.

「디자인·공예 대사전」 발간

응용미술의 전영역을 통합해 디자인의 한국화를 시도한 「디자인·공예 대사전」이 미술공론사에서 출간되었다.

이 사전은 감상을 위한 순수미술을 제외한 응용미술 전반을 고대부터 현대까지 동서양을 통털어 망라하는데, 시각디자인·영상디자인·광고디자인·컴퓨터디자인·인더스트리얼디자인·디자이너 인명록·타이포그래피·인테리어디자인·인쇄학·재료학·사진·도자공예·목공예·유리공예·전통공예 등 40여 전문분야, 4천여 항목을 광대웅,



김승희, 김혜원, 백태호, 이부웅,
임영주, 전용일, 유성웅 씨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2년여 준비기간을 거쳐
공동집필했다.

이와 같이 디자인과 공예, 인쇄까지
포함한 사전은 외국에서도 전례에 없던
것으로 디자이너와 출판계, 학생들
모두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또한 이 사전은 4천 항목의 인명과
용어를 사전식으로 편찬하고, 2천 5백
장의 컬러 도판을 게재한 9백여면의
방대한 분량으로 되어 있다.

제1회 생활공예창작공모전

전통솜씨를 겨누는 제1회
생활공예창작공모전에서 영예의 대상은
「신라금관 문양을 이용한 생활용품류」
(직물)로 정연종씨에게 돌아갔다.
우수상에는 이형근씨의 「방찌쇠를
이용한 주물기법으로 만든 촛대」,
이경자씨의 「철은입사함」, 최종관씨의
「나전반단이 시리즈」, 한병문씨의
「낙중장도세트」, 문영숙씨의 「은입사함」,
양이석씨의 「모시와 명주실로 짠 춘포」,
최현열씨의 「왕골찻잔받침」 등이
선정되었다.

전통공예를 애호하는 민간모임인
전통생활공예창작문화가족이 개최한
이번 공모전에는 147명의 818점이
출품되어 대상 1명, 우수상 7명, 장려상
11명, 입선 49명이 수상했다.

대상작인 「신라금관 문양을 이용한
생활용품류」는 통일신라시대의
전통문양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구성하여
디자인한 것으로 실크 원단에 프린트하여
스카프, 넥타이, 우산, 핸드백, 앤범
등 각종 생활용품에 응용한 예술성이
높은 작품이다.

수상작 및 입선작은 인간문화재의
찬조작품과 함께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인간문화재 공예품 상설전시관에서
전시된다.

서울 그래픽 비엔날레 동경전

서울 그래픽 비엔날레 동경전이 동경
한국문화원 갤러리에서 10월 2일부터
8일까지 개최되었다.

이번 전시회의 작품들은 한국의 여심과

규수방 도구와 풍물에서
민예적, 토속적 신앙의
형상인 입주물(立柱物)
까지 다양한 한국적
이미지를 표상하였다.
그리고 한국적 의상 등
우리 것에 대한 모든 것을
함축시킨 작품이미지를
일러스트 또는 판화양식으로
부각 재현한 것이다.

이번 전시회는
한일문화교류의 일환으로
동경에 한국적 이미지를
전달하는 데 기여하는
자리가 되었다.

참가자는 김광현, 김명호,
나성남, 유관호, 문수근,
박선의, 백금남, 봉상균,
신언모, 윤병규, 장완영,
정신공 등이다.

영국 현대 공예전

영국현대공예전이 국립현대미술관과
영국문화원 주최로 9월 22일부터 10월
21일 까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전시에는 영국의 젊은 세대에
속하는 작가들의 도자공예, 목공예,
섬유공예 등이 선보였는데 작가들의
경향은 전통적인 방식을 지키면서 자신의
해석으로 작업하는 그룹과 새로운 형식과
테크닉으로 실험하는 그룹, 두 가지로
구분되었다.

예술의 전당 미술관 개관

예술의 전당 미술관이 17일 개관되었다.
예술의 전당은 국내 유일의 복합문화
예술전문공간으로 음악당과 서예관,
미술관, 축제극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차로 88년에 음악당과 서예관이
완공되고 이번에 미술관이 개관됐는데
지하 1층, 지상 4층의 총면적 4,677평
규모의 대형미술관이다.

1층에는 제1·2전시실과 아트샵,
물품보관소, 안내소, 매표소, 로비,
사무실이, 2층에는 1층과 연결된
제1전시실과 제3전시실, 커피샵, 로비
그리고 3층에는 제4·5전시실이 있다.
전시실은 전시벽의 이동이 가능해



Korean Folk Craft

한국민속공예, 문수근 작

자유로운 공간연출이 가능하고, 다양한
전시기법을 시도할 수 있다.

예술의 전당 미술관은 개관과 함께
개관기념전인 「한국미술—오늘의
상황」전을 개최했다.

기업체 제품디자인공모전, 미래형 디자인 개발의 디딤돌

일반 기업체에서 개최하고 있는
제품디자인공모전이 이들 업체의 미래형
디자인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금성사와 오리엔트시계공업(주)이
실시하고 있는 제품디자인공모전의 응모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학생 및
일반인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응모작의 수준이 날로 향상되어 이들의
아이디어를 신제품 디자인에
적용함으로써 이들 업체의 미래형 디자인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 산실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83년 시작된 금성사 제품디자인공모전은
5회째인 지난해 응모건수가 187건으로
4회 때보다 58%가 늘어났고, 88년에 처음
실시된 오리엔트 시계디자인 공모전은
3회째인 올해 438건이 응모되어 지난해
보다 13%가 늘어났다. 이들 공모전은
국내 산업디자인의 진흥 육성 및

공모전을 통한 산·학 협동체제 확립의 밀거름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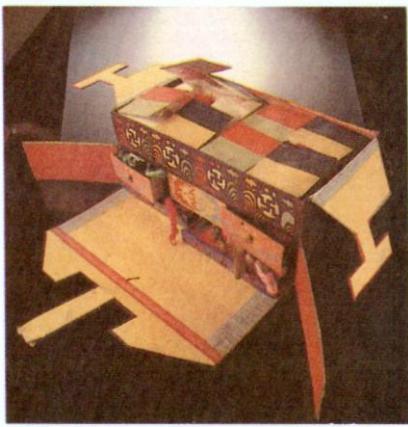
전통한지공예전 해외에서 첫선

우리 나라의 전통 한지(韓紙) 공예품이 처음으로 해외에 소개된다. 한국자수박물관(관장 허동화)은 9월 15일부터 12월 9일까지 일본 오사카 민예관에서, 91년 1월 4일부터 3월 24일까지 도쿄 민예관에서 「한국의 전통 한지공예전」을 개최한다.

이 전시회에는 책장·서류함·실침·바느질 그릇 등 20여종의 전통 한지공예품 242점이 선보이는데, 이것들은 지난 10여년 동안 한국자수박물관이 전국 각지에서 수집해온 것이다.

한지공예는 물자가 귀했던 조선시대에 못쓰게 된 종이를 이용해 생활용품을 만들어 쓰면서 형성된 우리 고유의 생활예술품으로 실용성과 예술성을 함께 갖추고 있고, 우리 조상의 슬기와 예술감각 그리고 근검절약정신이 배어 있다.

한지공예전시회는 일본에 이어 유럽에서도 개최될 예정이다.



색실상자(실과 바늘 등을 넣어두는 상자)

3·4분기 4대 매체 광고비 4,823억원

올 3·4분기의 4대 매체 총광고비는 4천8백23억7천 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7%, 지난 2·4 분기보다 6.6%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광고데이터(주)에 의하면 3·4 분기에는 수출부진으로 내수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한 의류·섬유업종 등의 광고비 증가와 신문의 증면, 평화방송·

불교방송 등 신규 라디오 방송사에 대한 광고비 지출로 광고비가 크게 늘었으나 경제여건 불투명에 대한 경계의식이 작용되어 지난 2·4분기보다 6.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업종별 광고비 지출에서 최대 신장률을 보인 부문은 수출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의류·섬유업종으로 전체 광고비 지출의 10.6%를 차지했다.

이 기간중 광고비 지출을 매체별로 보면, 라디오가 총 2백8억원으로 가장 큰 신장률을 보였다. 이는 2·4분기에 비해 19.2%가 증가한 것으로 평화방송과 불교방송에 대한 광고비 지출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이며, TV광고의 대기 물량이 넘어온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잡지광고는 4.7%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는데 이는 계절적 요인 외에도 잡지매체의 영업구조가 취약한데다 이미 상반기중 광고물량이 수요측면에서 포화상태에 달했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침체에 따라 기업의 광고노력이 감축되면서 잡지매체 광고가 1차적인 감축대상이 되고 있다.

국내 TV 시장, 대형 모델화

국내 컬러 TV 업체가 다양한 모델 가운데 시장 규모가 큰 20인치 이상에 주력하면서 대형 모델에 관심을 쏟고 있다.

현재 금성사·삼성전자·대우전자·아남전기 등 국내 TV 4사가 생산·시판하는 21인치 대형 TV는 30여점이 넘고 크기도 다양해져서 금성사에서는 33인치·37인치까지 판매하고 있다. 업계는 대형 모델의 수요 증가에 따라 모델 다양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형 TV는 화질이 좋고 서라운드 입체 음향으로 음질이 오디오 전문기기에 버금간다. 화질은 수평해상도 6백40~



대우 DTQ-2900FW

8백本(비디오 신호 입력시)으로 일반 TV의 2배 수준이다. 특히 29인치 이상의 초대형 TV에는 슈퍼-VHS VTR을 연결할 수 있는 입력회로나 단자를 마련, 일반 VTR을 연결할 때보다 50% 향상된 고화질로 재현, 비디오 프로그램 시청시 극장영화를 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도 있다.

또한 다기능이며 세련된 디자인을 채용하고 있다. 즉, 대형 TV는 디자인 면에서도 첨단으로 TV 디자인의 완성형으로 일컬어지는 모니터룩을 채택했다. TV 디자인이 콘솔형에서의 작동 부위가 한쪽면을 차지하던 형태에서 작동장치를 아래쪽에 설치하고 스피커를 내장한 모니터룩으로 발전한 것이다. 또한 브라운관이 일반형과 같이 둑근 형태가 아니라 평면(FST:플랫 스웨어 튜브)인 것이 대형 모델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이는 화면의 찌그러짐이 없이 모서리 부분까지 화면을 재현해 주고 외부 빛에 의한 반사광이나 난반사를 줄여 시력보호 역할을 해 준다.

패션시계에 신규참여 바람

시계업계는 패션시계 중심으로 변하는 소비 패턴에 따라 다양한 패션시계 개발과 판촉활동에 전념하고, 제화·의류 및 팬시업체 그리고 유통업체들도 여기에 가세하고 있다.

최근 시계는 패션상품 및 소비재로 개념이 변화하고, 소비패턴도 의상에 맞게 착용함으로써 중복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제화업체인 금강은 토탈패션화 추세에 부응하여 올해 초 시계사업에 참여했는데 현재는 한독에서 30여 제품을 공급받고 있으나 앞으로 모델수를 늘리고 자체 디자인을 개발하는 등 이 사업을 크게 강화할 예정이다. 에스카이어도 정인상사에서 패션시계 30여종을 도입해 판매에 나섰고, 엘칸토는 자체 디자인을 외주 생산, 내년부터 시계 판매에 나서기로 했다.

캐주얼 의류업체인 이랜드는 중저가형 패션시계 사업법인인 로이드사를 설립했고, 시티타임·페가서스 등 유통업체도 수입시계와 국내 중저가 패션시계를 공급받아 판매하고 있다.

또한 시계의 패션화에 대비, 시계업계의

판촉행사도 단순 제품전시에서 전체 이미지를 표현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90 한국 국제 CAD·CAM 및 그래픽스전

CAD/CAM'90

'90 한국 국제 CAD·CAM 및 그래픽스전이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한국과학기술원 등 8개 단체의 후원으로 한국종합전시관에서 5,184m² 규모로 개최되었다.

이번 전시회는 그간 국내 컴퓨터 그래픽스 산업의 눈부신 발전과 동분야에 대한 실무자들의 관심과 시스템 도입 요구 속에서 개최되었던 한국 그래픽스 전시회(KIC)가 관련업체의 요구 및 그래픽스 산업의 응용분야인 CAD/CAM/CAE 시스템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올해부터 한국 국제 CAD·CAM 및 그래픽스 전시회로 명칭을 바꾸어 개최한 것이었다.

이번 해에는 IBM, 인터그래프, 칼콤 등 세계적인 CAD·CAM 관련업체가 국내 에어전트를 통해 대거 참여하여 총 8개국의 60여 업체가 설계·공정관리·가공·조립·검사·실험용 등 전분야의 시스템을 선보여 세계 CAD·CAM 관련산업의 기술 동향 및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의 발전추세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전시기간중 참관객의 인적사항과 관심분야를 체크해 고객서비스 및 영업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한국기업, 미국 시장에 이미지 광고

한국 기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해외 시장인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이름을 혼동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이미지 광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승용차 「엑셀」을 팔고 있는 「현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업이름이 구별하기가 어려운데, 「삼성」은 Samsung으로, 「쌍용」은 Ssangyong으로, 「선경」은 Sunkyong으로 표기하여 철자표기가 어렵고 발음도 비슷하며 비슷한 사업에 비슷한 광고를 실시하고

있어 이미지에 혼동을 주고 있다.

그래서 한국 기업은 올해 비즈니스 간행물을 통해 총 1천만 달러의 이미지 광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 기업의 대미국 광고는 서서히 발전해 회사 내의 광고스텝진을 이용하던 것에서 지금은 사외의 전문광고회사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삼성의 경우 합작선인 보겔사를 이용해서 300만 달러를 투입해 전세계에 광고를 전개중이고, 대우는 J.W.톰슨사를 기용해 매년 일정률로 예산을 늘려 가는 방식이 아닌, 비즈니스 간행물을 받아보는 사람의 50%에 도달하도록 광고를 전개할 방침으로 금년의 비즈니스 광고비가 배로 늘어난 450만 달러가 될 것이다.

그러나 현대는 작년에 자동차 광고에 1억 달러를 사용했으나 「우리 회사가 자동차밖에 만들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21% 밖에 정확하지 않습니다」라는 이미지 광고에는 불과 170만 달러만을 할당하고 있다. 그밖에 삼성·금성 양사도 각각 5천만 달러의 연간 해외 광고비 중 5% 정도만을 이미지 광고에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의 10대 히트상품

한국능률협회는 지난 9월 25일·26일 양일에 걸쳐 63빌딩에서 90년도 히트상품 성공전략 발표회를 가졌다.

선정된 10대 히트상품에는 현대자동차의 스쿠프, 진로의 종이팩 소주, 한국야쿠르트의 슈퍼 100, 선우의

파비스 싱싱아, 진웅의 케스트 캠핑랜드 텐트, 제일제당의 다시다, 대우전자와 컴퓨터 르모III, 동양제과의 후라보노껌, 파스퇴르 유업의 파스퇴르 우유, 시티은행의 슈퍼신탁 등이다.

현대자동차의 스쿠프는 독신여성·전문직 종사자 등 특수고객을 대상으로 개발된 것으로 스포티한 성능과 새로운 패션을 강조한 스포티 패션카를 캐치플레이즈로 지난 2월 발매하면서 신차발표회·신차전시회·시승회 등을 실시, 홍보 및 판촉에 주력했다. 그 결과 젊은 층으로부터 호평을 받아 판매대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진웅의 케스트 캠핑랜드 텐트는 컴퓨터를 이용한 그래픽디자인으로 텐트를 설계·제작하여 미국 텐트 시장의 40% 이상을 장악한 제품으로 89년에 개발되어 첫해에 4천3백만 달러의 수출을 기록했으며 올해 수출목표는 5천만 달러로 잡고 있다. 미국시장조사를 통해 개인위주 캠핑에서 가족단위 캠핑으로 전환하는 추세를 알아내고 이에 부응하고자 가족용 대형텐트로 이 제품을 개발했다.

대우전자의 르모III는 워드 프로세서의 소형화로 새로운 시장개척에 성공한 제품으로, 화면을 기존제품보다 넓혀 40자·24행으로 하고, 50여 가지 편집기능과 초당 38자의 고속인쇄가 가능하다.

가구업계, 자동화 활발히 추진

노동집약산업인 가구업계가 최근 심각해지는 인력확보의 어려움을



현대자동차 스쿠프

해결하기 위해서 자동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최근 가구업계는 건축경기의 활황에 따라 가구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기능공 확보가 어려워지자 자동라인 설치를 서두르고 있다.

보르네오가구는 제3공장을 완전 자동화한 데 이어 기존공장도 이태리로부터 자동재단라인 등을 도입키로 했다.

삼익가구도 지난해 50억원을 들여 자동접착기, 자동루타기계 등 20여대의 첨단설비를 일본에서 도입한 데 이어 올해도 30억원을 투입해 자동도장설비를 갖출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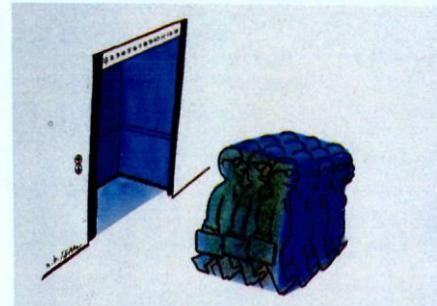
노송가구는 최근 컴퓨터를 부착한 NC루타기를 일본에서 도입하고, 각종 목공기계 30여대를 설치할 계획이며, 파란들도 도장설비를 자동설비로 바꾸고 있다.

요미우리 국제만화대상 작품전

날카로운 풍자와 유머가 깃든 세계 우수만화의 제전인 '요미우리 국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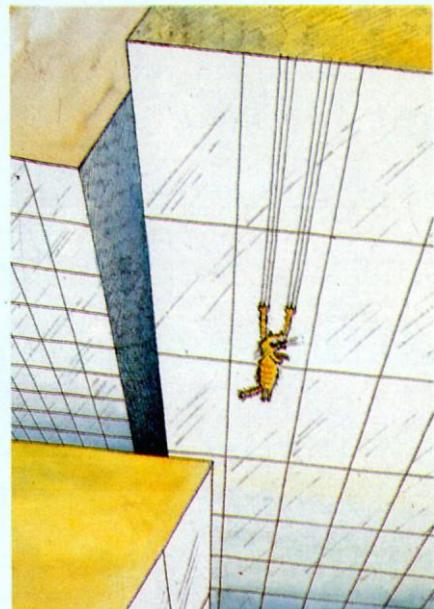
만화대상 작품전'이 롯데백화점 본점 8층 특별전시장에서 열렸다. 이번 세계만화축제는 일간스포츠 창간 21주년 기념행사로 후지필름 후원으로 일본 요미우리 신문사와 공동으로 개최되었다. '만화올림픽'으로 불리기도 하는 '요미우리 국제만화대상'은 세계 최대 규모의 만화 컨테스트로 1979년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사에 의해서 처음 개최되었다.

이번 전시회에는 90년도 요미우리 만화대상 입상작 110점과 10회까지의 대상작 10점을 포함하여 모두 120점의 작품이 전시되었는데 뛰어난 아이디어와



제10회 近藤日出賞「무제」
Norman B. Isaac(필리핀) 작

해학성 그리고 함축성을 지닌, 사회성이 짙은 작품들이 선보여 만화 한 컷으로 얼마나 많은 그리고 깊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어 만화의 의사전달 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자리가 되었다.



제10회 대상 「도시생활」
Kazuhiro Yamamoto(일본) 작

해외 소식

혼다, 알루미늄 승용차 개발

일본 혼다에서 알루미늄 스포츠카를 개발, 시판하고 있다. 보디와 엔진, 샤시 등을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 기존의 철강재를 사용한 승용차 보다 훨씬 가벼운 이 알루미늄 승용차는 연간 6천대 생산, 이 중 2천여대를 일본에서 판매하고 나머지는 미국과 유럽에 수출할 예정이다.

새로운 알루미늄 스포츠카 NSX는 배기량 3천CC의 6기통으로 DOHC 엔진에 안전장치인 에어백 장치를 갖추고 시속 2백60km까지 가능하다. 또한 전체의 31.3%를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 철강체 승용차보다 2백여kg이 가볍다. 특히 특수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차체강도가 철강재와 엇비슷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 차의 가격은 일본 승용차 중 가장 비싼 승용차의 2배 수준으로 수동5단식이 8백만3천엔(세금 제외), 자동4단식이 8백60만3천엔 등이다.

펜형 소형 리모컨 등장

미쓰비시전기 미국 현지법인이 TV리모컨에 경박단소의 원리를 응용했다.

현재 미국 TV의 리모컨은 채널이 다양하고 형태가 복잡하고 조작이 쉽지 않으며, 이것 가운데는 벽돌 크기의 것도 있고 50개 이상의 버튼이 부착된 리모컨도 있다.



리모컨의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미쓰비시전기는 펜모양의

소형 리모컨을 제작했다. 이 리모컨은 버튼이 전원·채널·볼륨 3개뿐이며, 각 버튼은 크기가 서로 다르고, 두 개의 로커(흔들) 버튼은 채널 조정과 음량조절에 사용된다.

'PRM-1'이란 리모컨은 표준규격품으로 올해 미국 산업디자인협회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코카콜라, 친숙도와 신뢰도 1위

세계 유명상품 중 소비자들에게 가장 친숙하고 신뢰를 받고 있는 것은 코카콜라로 나타났다. 그리고 2위는 소니, 3위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차지했다.

기업이미지 자문회사인 미국 랜저사는 최근 미국·일본·서유럽 등의 소비자 1만명을 대상으로 6천개의 유명상품에 대한 친숙도를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코카콜라가 지난해에 이어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 이들 3개 상표에 이어 코닥, 디즈니, 도요타, 맥도널드, 등이 뒤따랐다.

국내외 디자인 관련 정보 자료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자료실 신착도서 및 자료

간행물

Design(英) ('90.5)

- 이태리 밀라노에서 개최된 주방용품 전시회 Eurocucina 소개
- Scotland 미술대학 학생들의 작품 소개
- 미국 California Silicon Valley 지역의 디자인 용역업체와 매니저 소개
- 미래의 사무실 디자인 시스템
- 미국의 디자인 용역회사 Chuck Pelly's의 작품
- 영국 직업소개센터의 설계 특징

Ufficiostile('90. 6)

- 1963년에 설립된 이태리의 대표적인 광고회사 Adoer사의 작품
- 이태리 디자이너 Giuseppe Raimondi의 사무용 가구 모델
- 서독 베를린시 철학가 Hajo Eichhoff와의 인터뷰 — 의자와 관련된 인간공학 연구 —
- Apple사 유럽지사의 빌딩 구조와 실내장식

Novum('90. 7)

- Jerry Dadds의 판화작품
- 프랑스의 그래픽 디자인 용역업체 Tort Pous Plaire 소개
- 세계적인 디자인 교육기관 Royal College of Art 관련기사
- 오스트리아 광고디자인 용역업체 Haslinger, Keck 사의 스키 광고 및 문구류 광고사례

Die Schaulade('90. 8)

- 서독의 유명 도자기 생산업체 Rosenthal사의 '89년도 경영 분석
- 서독 금속 양식기 전문생산업체 BMF사의 최신 모델

Gold + Silber('90. 8)

- 서독 Schwabisch Gmuend시의 금과 은을 주제로 한 국제 악세사리 공모전
- 동독에서 개최된 '90 악세서리 공모전 수상작
- 독일 Essen 지역 금은세공 전문학교 Ost의 교육과정과 학생들의 작품

md('90. 8)

- 동독에서 개최된 2000년대 가구디자인 모델 세미나 개최 소식
- 서독 Dusseldorf의 가방전문 판매점 Bagstore의 실내장식, 침대 겸 쇼파가구 모델 소개
- 1931년—1933년 Bauhaus의 디자인 강사로 활약한 Erich Dieckman의 가구 디자인 작품
- 핀란드에서 개최된 Nordic Design 공모전의 수상 작품

ID(90.7/8)

- ID지가 매년 개최하는 Annual Design Review에 소개된 소비재 상품, 부속품, 가구, 실내장식, 그래픽 분야의 최우수 상품

IDEA('90. 9)

- 미국 Museum of National History의 대양 생물 전시실
- 제69회 ADC 공모전의 수상작품
- 디자인 용역업체인 Moria Design

Ine,Wates Design Association Inc.들의 작품

- 상업사진가들은 후원하기 위해 설립된 APA(Advertising Photographers of America)에서 개최된 APA NIKON 갤러리 전시회의 작품 소개

JEI('90. 8)

- 소비자들의 무선전산기에 대한 관심
- 사무에 이용되는 라디오 시스템 기술
- 장거리를 극복하는 무선전화 기술
- 일본 Sony, Hitachi와 Matsushita사의 캠코더 모델들의 디자인 및 성능 비교
- 통신, 전신 분야에서의 신경향
- 일본 Oki사의 실용적 전신, 전화 모델

Asian Sources Gifts & Home Products('90. 8)

-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오디오 비디오 시스템 가구 및 냉장고의 신모델 경향
- 홍콩, 대만, 중국, 싱가폴, 한국, 태국, 인도의 워키—토키 (Walkie—Talkie) 생산업체들의 마케팅 전략
- 인도네시아의 경제: 수출제품 생산 현황

AXIS(日)('90. 36. Summer)

- 미국 Monterey에서 개최된 제2회 TED(Technology Entertainment Design) 회의 내용
- TED 2에서 발표된 일본의 Takerobu Igasashi의 그래픽 디자인 방법론

Domus('90. 9)

- 일본 오사카의 가정집 디자인
- 이태리 자동차 생산업체 Ferrari사의 역사

공간('90. 8)

- 세비야 엑스포 한국관 설계시안 공모
- 현대미술의 이론, 테크닉의 비평적 평가
- 1910년도경의 한국의 건축사

- 일본 삿포로 지역에 설립된 문화체육센터 KIFA CLUB의 전축 구조
- 동경의 프랑스 유명 패션 브랜드 CHRISTIAN LACROIX의 판매 상점의 실내장식

- 신제품 개발을 위한 준비

Fashion & Accessories('90. 10)

-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가죽제품 생산 및 경제동향
- 슬리퍼의 최신 디자인 및 재료 비교
- 악세사리 포장 디자인의 경쟁

Novum ('90. 8)

- 미국 콜로라도주 Fort Collins에서 개최한 포스터 전시회 내용 《Colorado International Invitational Poster Exhibition》
- 이태리의 고급 제품을 선전하는 잡지 광고 및 광고 전략
- 영국의 디자인 대학 Lancashire Polytechnic 학생들의 작품 소개

Gold & Silber ('90. 7)

- 세계적인 유명브랜드 Floren 시계의 판매 전략
- 스위스 시계 생산업체 Rado사의 '90년 대형 디자인 콘셉트
- 스포츠, 레저용품 제조 브랜드 Ellesse 사가 소개한 시계 콜렉션
- 영국의 악세서리, 은양식기 생산현황

영상자료

BM('90. 9)

- 지난 5월 개최된 스칸디나비아 지역의 가구전시회 내용

JEI('90. 9)

- 대만 전자제품 생산업체들의 해외 투자전략
- 최신 카라디오, 컴팩트 디스크 등 소개
- 무선 통신기기 및 CD 라디오테이프의 기능 설명 및 안내

Nikkei Design ('90. 9)

- 최소형 휴대용 전화기 Toshiba의 "Dynabook"
- Sharp의 "Note"와 Sony의 "Palm TOP"의 기능과 디자인 비교

◆ Changing the Face of Thing (6part, 203컷)

- 컬러 패턴, 색감의 표현, Fine Art의 응용을 통한 인테리어 디자인, 패션, 가구디자인, 포장디자인, 광고 등의 실제 기법

American Craft ('90.)

- 금년 4월 미국공예 박물관에서 개최된 섬유 예술가 Lenore Tawney의 전시회
- 제20회 미국 유리 예술 협회 전시회

◆ Careers as a Model Maker (2part, 115컷)

- 신제품 개발(자동차, 컴퓨터를 위한 전문 Model Maker)의 이미지 창조 방법, 포장디자인 모델 등 소개

Design Journal ('90. 9/10)

- 특집 : 소련의 그래픽 디자인 경향
- 건축디자인의 어제와 오늘
- 지난 6월 체코에서 개최된 제14회 그래픽 디자인 비엔날레에 소개된 작품들

◆ Appreciation of Metalwork (395컷)

- 금속공예 작품들의 시대적 흐름과 현대 금속공예의 비교 분석, 금속공예의 기본 기법 이해와 감상

Travelware ('90. 9)

- 여행용 가방 생산시장의 경제 동향
- 제품 구매시 현대 소비자를 자극시키는 브랜드명 및 디자인
- 87년도 여행용품 판매시장 분석 내용 및 미래동향 예측

◆ World Poster(200컷)

- 포스터의 표현 방법, 런던·멜버른 올림픽 게임 포스터, 산업미술과 디자인, 건축관련 포스터

MD ('90. 9)

- 이태리의 최신 가구모델 디자인
- 이태리 Sardin 해변의 고급주택
- Pico의 최신 조명 시스템

◆ Illustration(200컷)

- 일러스트레이션의 발상, 작업과정, 각종 주제별 일러스트레이션 표현에

Engineering ('90. 7/8)

- 영국디자인 카운실에서 출간한 "Design Protection"의 저자 Dan Jonston와의 대담

◆ Exploring Photography(507컷)

- 19세기에서 20세기 사진예술의 발달과정, 사진예술의 모든 형태, 사진의 역사와 현대사진의 역할, 사진의 기계적 측면, 사진촬영과정, 암실에서의 인화방법

Commercial Photo('90. 9)

- 일본 Canon사의 최신 카메라 모델 "Auto boy Jet"의 기능과 디자인
- 유명사진작가 Holly Warbwton의 작품 소개

商占建築('90. 6)

특집

■ 자랑스런 우리의 말과 글

필자: 이현복

우리 말과 글의 과거·현재·미래를 통해서 본

특징과 장단점에 관한 글

■ 활자체로 보는 한글꼴의 역사

필자: 김진평

시대의 변화에 따른 한글꼴 역사를 3시기로 나누어 고찰한 내용

신입디자인 112

1990. Vol. 21. p6~27

특집

■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의 한글—국어정보학회의 할 일

필자: 유경희

한글의 표준화의 중요성과 국어정보학회가 앞으로 할 일에 대한 내용

■ 질의 응답

한글 글자꼴 세미나 발표자들과의 질의 응답 내용
간추려서 소개

1990. Vol. 21. p38~42

특집

■ “한글 글자꼴 2500”

윤호성씨의 “한글 글자꼴 2500”의 내용 소개

■ “한글 글자꼴 표현 사례”

현재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간판에 나타난
한글 표현 소개

신입디자인 112

1990. Vol. 21. p50~53

지상중계

■ 제7회 한국그라픽디자이너협회전

KOGDA 제7회 정기회원전의 작품 12점 소개

■ 제3회 오리엔트 시계디자인 공모전

오리엔트 시계디자인 공모전의 수상작 화보 및
작품 설명

신입디자인 112

1990. Vol. 21. p66~71

특집

■ 한글 창제 이념을 계승한 새로운 한글디자인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필자: 석금호

한글 창제 원리에 입각한 현대 정보화 시대의 새로운
한글 글자꼴에 대한 연구

■ 탈모네틀 한글꼴의 시도와 한글 글자꼴의 연구에 대한

몇 가지 제안

필자: 안상수

탈모네틀 한글꼴에 대한 견해와 글자꼴 연구에 대한 제안

신입디자인 112

1990. Vol. 21. p28~37

특집

■ 아름다운 한글 : 글자체 600년전

아름다운 한글전에 선보인 아름다운 한글 추천 작품 소개

■ 홍우(洪佑) 한글 신서체 전시회

홍우 서체전에 전시된 홍우동씨의 서체 소개

신입디자인 112

1990. Vol. 21. p44~49

지상중계

■ '90년도 우수디자인 상품선정제

'90년도 상·하반기 GD상품 간추려서 소개

■ 제3회 한국우수포장대전

제3회 한국우수포장대전 수상작 화보 및 작품 설명

신입디자인 112

1990. Vol. 21. p56~65

디자인 뉴스

■ 디자인 동서남북

디자인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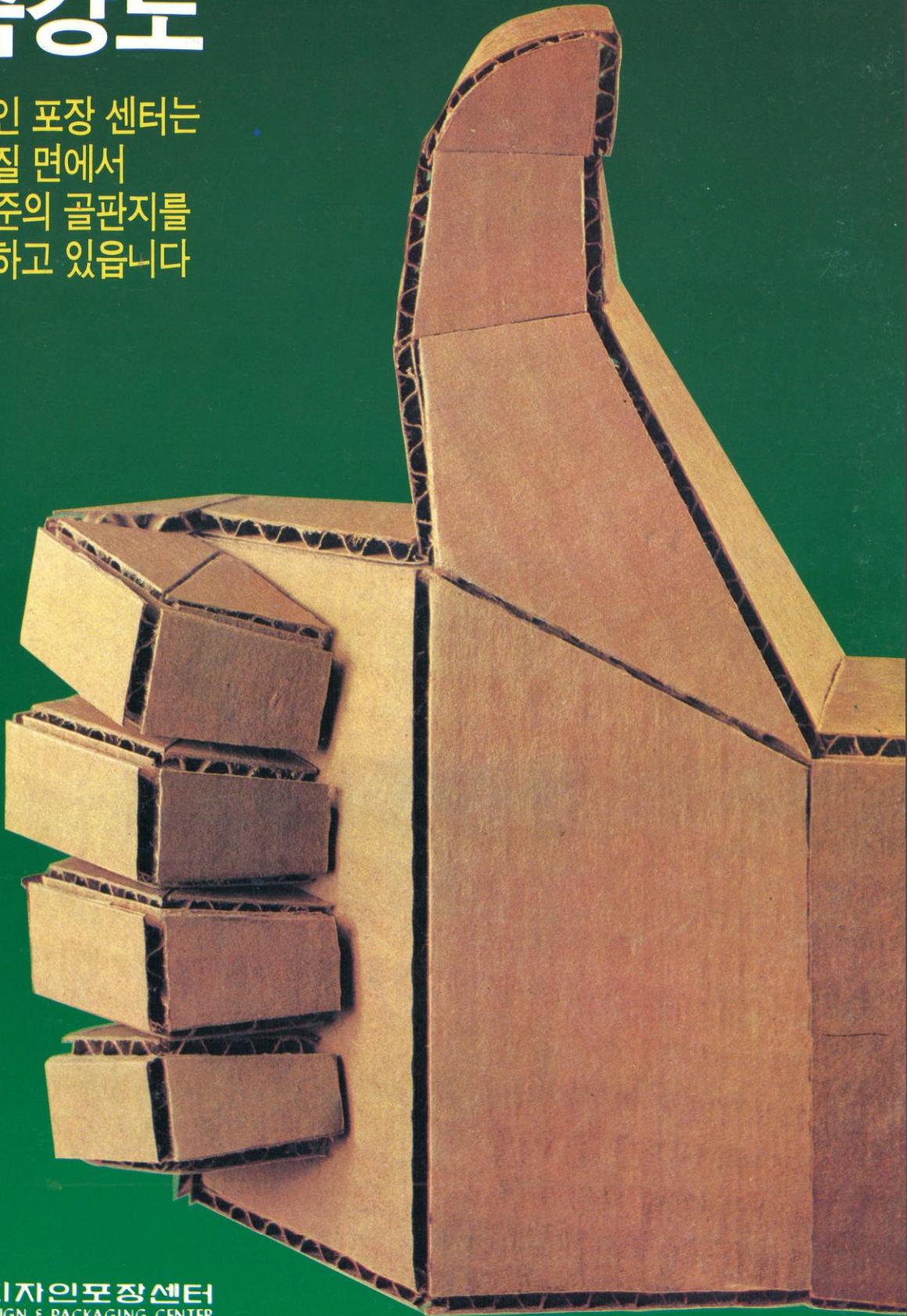
■ 국내외 디자인 관련 정보 자료

신입디자인 112

1990. Vol. 21. p73~79

골판지 상자의 생명은 압축강도

한국 디자인 포장 센터는
기술과 품질 면에서
선진국 수준의 골판지를
제조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국디자인포장센터
KOREA DESIGN & PACKAGING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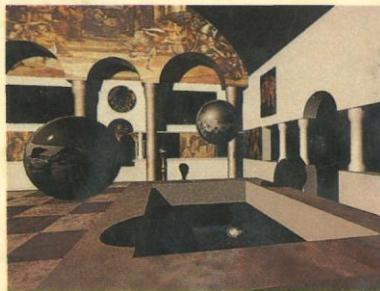
본 사 :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128-8 TEL. 762-9461~5

공 장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50 TEL. 855-6101~5

부산지사 : 부산직할시 학장동 261-8 TEL. 92-8485~7

사업 수익금은 디자인·포장의 연구·개발 및
진흥을 위한 공익 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컴퓨터그래픽 시스템 “TOPAS” 디자이너들의 충고를 충분히 반영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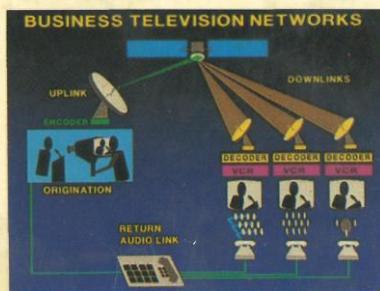
●빛을 받은 구, 평평한 Pillar 와 자동적으로 생성된 자연스런 그림자.



●특수 효과를 사용한 화면전환 방법의 일례.



●AutoCAD 모델을 훨씬 실물에 가깝게 “TOPAS”가 자동으로 랜더링했다.



●SONY 사의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



●기다로그의 표지디자인을 이미지와 문자를 결합해서 사용, 분해필름으로 출력했다.



●포장디자인된 작품을 여러방향에서 볼 수 있고 관찰할 수 있다.

“TOPAS”를 이용하면 제품디자인시에 MOCK-UP을 만들기 이전에도 제품에 대한 모양과 색상을 원하는 방향에서 볼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디자이너가 원하는 어떠한 시점에서도 관찰할 수 있으며 제품의 색상도 원하는대로 변경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800개의 조명을 임의로 축소 및 확대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1년중 8월달 오전 11시경의 태양광선 등과 같이 원하는 달, 원하는 시간에 자연현상의 태양광선 효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TOPAS”를 이용해서 비디오편집시 방송에 나오는 효과처럼 화면이 말리거나 퍼지고, 또는 부서지는 효과를 내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TOPAS”가 가장 인기있는 것은 바로 움직이는 영상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비디오영상의 활용은 KBS-TV등에서도 사용하고 있으며, CF프로덕션에서도 활발히 사용하고 있어 순수 국내아티스트에 의한 작품도 점점 늘어날 전망입니다.

3차원 이미지의 영상을 디자인하고 싶은데 “TOPAS”로도 금속성 있는 질

감이나 나무결등과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습니까?

“TOPAS”는 금, 은, 크롬, 동, 플라스틱, 대리석, 나무결, 투명유리 등등의 다양한 질감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이외에도 디자이너의 창작에 의해 다양한 질감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스런 그림자 처리도 훌륭하게 생성해냅니다.

프레젠테이션용 슬라이드를 제작대행하는 회사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화상처리된 데이터와 글씨를 결합하여 간단히 슬라이드 화상을 제작할 수 있으며,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서는 즉석에서 현상해 만들 수 있는 폴라로이드 인스탄트 슬라이드필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TOPAS”시스템은 단일 모델입니까?

아닙니다. 전문디자이너들의 전공분야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용, 그래픽디자인용, 제품및

포장디자인용, 조감도 및 투시도의 랜더링 용, 편집디자인용, 로고타입 및 심볼마크디자인용 등이 있으며 PC용 CAD데이터와 호환성이 좋습니다.

“TOPAS”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면 어떤 방법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접 보시고 검토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업무에 바쁘신 회사는 세미나신청을 하십시오. 출장도 가능합니다. 세미나신청의 접수는 저희회사 C.G담당자를 통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십시오.

A (주)애플라이드 엔지니어링
주소 :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1가 7 계림빌딩 309호
사서함 : 서울 청량리 사서함 289호
전화 : (02)679-7691 (대)
TELEX : K27928 APPLKOR
FAX : (02)677-3863